

# 束草文化

85 / 第二號



청초호반에서 본 설악 / 김 광 수

束草文化院

大韓佛教曹溪宗 第三教區 本寺

# 雪嶽山 神興寺



주지 金 慧 法 스님 (法學博士)

神興寺는 新羅 眞德女王 6年(652) 慈藏律師  
께서 創建하여 香城寺라 이름하였다. 그후 화재  
로 소실된 것을 조선 인조22年(1644)에 靈瑞,  
惠元, 蓮玉 세 스님이 중건하여 神興寺라 개명  
하였다.

神興寺에는 創建 당시 주조한 대종과 조선  
순조께서 하사하신 청동시루, 극락보전 (指定文  
化財 14號), 경관 (指定文化財 15號) 및 香城寺  
址 三層石塔 (寶物 第443號)이 보존되어 있다.

강원도지방유형문화재 제14호 신흥사 극락보전  
강원도지방유형문화재 제15호 신흥사 경관  
지정문화재이외의문화재 제11호 신흥사 (계조암·  
내원암·안양암·부도 포함)  
동산문화재등록 : 신흥사 아미타 3 존좌상의 9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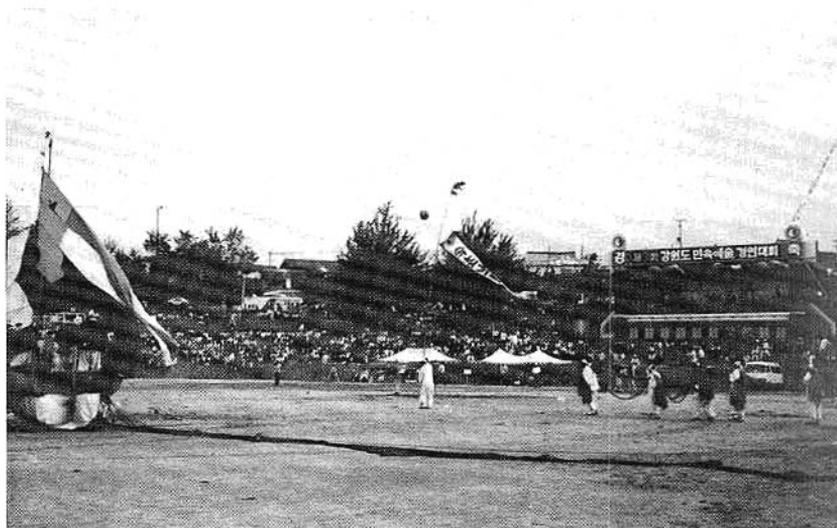
이승만 자유산악회비

무명용사의 비

# 東草文化院 화보



韓相甲 學長  
고별강연회



제 3 회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경로잔치 및 호도  
청소년 표창식



청소년대상  
문화강좌



수석 및  
박공예 전시회



주부 교실



설악제  
민속예술 경연대회



노인 교양강좌



내고장 문화논단



祝  
續刊

續刊之發化民成俗之壯舉  
刊載不朽鑑古戒今之美行

乙卯歲夏 於書院精舍

書院主人 金鏡權



## 文藝中興宣言

우리는 民族中興의 歴史的 轉換期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切感한다.

한 겨레의 運命을 決定 짓는 根源的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意力이다. 藝術이 創造力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을 찾았을 때 나라는 흥한다. 新羅 統一의 偉大한 業績과 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證明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産을 開發하고 民族的 正統性을 이어 받아 오늘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盲目的인 復古傾向을 警戒하고 分別 없는 模倣行爲를 배척하며 천박한 頹廢風潮를 一掃하여 우리 藝術을 확고한 傳統 속에 꽃 피우고 우리 文化를 튼튼한 主體性에 뿌리 박게 한다.

우리는 祖國의 現實을 直視하고 榮光된 겨레의 來日을 위하여 價値意識과 史觀을 바로 잡고 表現의 自由와 文化의 自主性을 함께 누리며, 곳곳 마다 文化의 殿堂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藝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自身の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世界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文化의 활발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 文化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藝術家 모든 文化人들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 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정성을 다해 文藝中興을 이룩할 것을 宣言한다.

1973年 10月 20日

□ 卷頭辭 / 束草文化의 뿌리 .....	李 虎 舜 / 10
□ 祝 詩 / 收復塔의 沈默 .....	朴 明 子 / 12

**論 壇**

地域文化의 發展에 대하여..... 李 相 稷 / 14	地方文化發展의 經濟的要因 ..... 金 南 根 / 21
한계산 古城과 마의태자..... 金 鍾 權 / 17	○ 束草漁民 실태고찰 ..... 在京束草學友會 / 24
◆ 회호 .....	정 원 철 / 32

**특 집**

失鄉한 獅子 그 몸부림 .....	편 집 부 / 34
北淸獅子 놀음 .....	최 임 규 / 38

□ 특집기고... 그리운 내 故鄉

어느 가을날의 斷想 .....	박 세 교 / 41	내 정서의 뿌리.....	李 盤 / 42
故鄉에 대한 나의 辯 .....	權 純 弟 / 44		

□ 나의 제언 □

南北往來와 期待 .....	李 相 集 / 45	인간교육을 서두르자 .....	文 龍 翼 / 46
호국보훈의 달 .....	이 창 복 / 48	反共運動의 새로운 方向.....	金 永 根 / 49

◆ 설악제를 결산하면서 .....	김 중 록 / 51
◆ 자매도시 그레삼市를 방문하고.....	최 용 철 / 54
● 내 고장 소식.....	/ 59
◆ 在京 속초고등학교 동문회의 오늘 .....	崔 光 哲 / 61

□ 현장을 찾아서 □

雪嶽山 神興寺의 由來(2) .....	金 慧 法 / 65		
물치주시.....	李 建 錫 / 69	雪嶽山 케이블카 .....	金 亨 東 / 72
국립공원 설악산 .....	朴 益 勳 / 74		
내고장 민 속 / 속초산대소리.....	속초시공보실 / 77		
내고장선각자 / 故 朴祥喜邑長의 行적고찰.....	李 時 行 / 82		
내고장 열 굴 / 李基燮 박사 .....	崔 龍 文 / 84		
도시락군수 朴夏榮 .....	김 용 구 / 86		

**束草文化**

문화계동정 / 90	수필 / 국어는 文化의 尺度.....	尹 弘 烈 / 92
------------	----------------------	------------

□ 초대시	□ 독자투고		
장을 바라보며 .....	李 相 國 / 95	恨..... 그후 30年 .....	주 광 하 / 98
4 月.....	김 영 준 / 96	고향.....	고 영 화 / 99
파도소리.....	金 春 萬 / 97		

□ 文化院주최 설악제 白日場 印象작품

불꽃놀이.....	김 여 옥 / 100	설악제를 맞으면서 .....	정 소 영 / 104
불꽃놀이.....	문 상 혜 / 101	바 다.....	황 순 옥 / 105
흙.....	임 석 화 / 102	가을일기.....	원 영 주 / 106
새.....	이 경 희 / 103	가을일기.....	고 석 / 107
'85束草文化院 主要事業實績 .....			/ 109

# 束草文化의 뿌리

— 모방아닌 창출로 —

“

막강한 힘을 자랑하던  
몽고제국이 멸망한 것은  
유목민족이기에 文化가 없었기 때문이며  
우리民族이 오랜 歷史를 통하여  
거치른 북방민족과 왜구의  
수많은 침략을 받고도 살아남은것은  
오직 뿌리깊은  
文化民族이었기 때문이다.

”

李虎舜 /  
속초문화원 이사장



우리 民族文化는 유구한 歷史와 더불어 土俗 文化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즉, 그것은 原始文化인 씨족문화로부터 部族文化・民族文化로 변천하게 되었고, 國家社會가 형성되면서 地域 特性에 따라 巫俗・遊戱등 鄉土藝術이 有形無形으로 創造・發達・繼承되어 오늘에 이르는 동안에 우리는 자랑스러운 文化民族이 되었다.

막강한 힘을 자랑하던 蒙古帝國이 滅亡한 것은 遊牧民族이기에 文化가 없었기 때문이며, 우리 民族이 오랜 歷史를 통하여 거치른 北方民族과 倭寇의 수많은 침략을 받고도 살아 남은 것은 오직 뿌리깊은 文化民族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歷史上 地方文化의 발전과 國民精神 改革을 의도적으로 시행하려 했던 것은 朝鮮朝 中宗때 趙光祖에 의하여 처음 실시된 鄉約이 그것이다. 그 내용과 綱目은 德業相勸・過失相規・禮俗相交・患難相恤 등인데 이 鄉約은 書院과 鄉校와 더불어 相互協助로 地方文化의 育성과 地

『  
저 프랑스 파리의 凱旋門이  
제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나라 獨立門이  
더 훌륭하고 소중한 것이다.  
』

方自治에 공헌한 바가 실로 컸던 것이다. 그 이후 退溪의 禮安鄉約과 栗谷의 西原·海州鄉約에 이르러 地方文化에 큰 발전을 가져왔다.

원래 文化事業이란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기에는 매우 막연하다고 할 것이다. 美軍政 때는 情報提供·畫報展示 정도였다. 그러다가 1962년에 社團法人 韓國文化院 聯合會가 창설되었고, 1965년에 이르러 地方文化事業 造成法이 실시되면서 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地方文化라고 하면 그 地方에 따라 特殊性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는 文化라고 할 수 있으며 地方文化의 概念 속에는 土俗의이고 民俗의인 歷史의 產物로 住民에 의하여 창조되거나 自然發生的으로 발전·계승된 전통이라고 하겠다.

地方文化 暢達을 위한 주요시책을 간추려보면 첫째로 地方文化 藝術 進興을 위하여 專門委員會의 構成과 그 運營의 妙가 필요하다. 둘째는 地方文化 藝術을 위한 基金造成, 그 확보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는 地方文化 藝術團體의 적극적인 참여로 育成強化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넷째로는 地方鄉土文化祭의 育成을 위하여 研究·改善·發展시켜야 한다는 것 등이다.

다음으로 文化院의 社會教育計劃 內容은 弘報活動·文化行事·趣味活動·社會教育 프로그램 등인데 이상의 行政計劃을 실현하려면 財政確保와 專門職 指導要員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 고장은 다행히 天惠의 觀光資源이 풍부한 곳이라 이 山業秀麗한 雪嶽을 중심으로 東海와 湖水 등을 잘 보전하여 文化市民으로서의 矜持를 가져야 할 것이다. 비록 이 고장은 이름난 遺蹟址나 遺物인 文化財는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도 文化에 대한 인식은 깊이 가져야 할 것이다. 文化財라 함은 주어진 自然의 사실을 眞·善·美·聖의 理想 또는 價値에 準據하여 형성된 成果의 所産을 말한다고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본다. 저 프랑스 파리의 凱旋門이 제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우리나라 獨立門이 더 훌륭하고 소중한 것이다. 獨立門은 舊韓末의 혼란기에 自主獨立을 목적으로 세운 것인데 文化財 價値보다도 우리 民族의 나라 지키려는 피와 땀과 노력, 그리고 우리 民族의 魂과 정성이 깃든 값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 東草市民에게는 우리 東草市民의 손으로 이루어진 내고장 東草文化야말로 실로 값진 것이라고 하겠다.

東草市는 6.25의 비극으로 失鄉民동 八道民이 모여 이룬 다양성있는 新興都市로서 시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날로 成長해 가고 있다. 88올림픽과 91세계 잼버리대회를 계기로 國際觀光地가 될 東草市야말로 政府當局이 政策市로 開發함이 마땅할 것이며, 명실공히 國際觀光市로서 손색없는 속초시를 만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東草文化院은 指示나 示達 事業에 급급하지 말고 創意性을 발휘하여 自主的으로 重點開發해 나갈 때가 왔다고 여겨진다. “東草文化” 創刊號에 이어 第二輯을 刊行하게 되었음을 기쁨과 자랑으로 여기며, 이렇게 계속되는 동안 “東草文化”의 뿌리는 깊어질 것이요, 즐기는 굽어지고 잎이 무성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선 東草文化院의 當面課題는 院舍만이라도 마련하고 展示館 하나라도 갖추어 이곳 風物을 展示하여 내 고장을 이헤시킬 수 있도록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卷頭辭에 붙여 본다.

## 收復塔의 沈默



朴明子

九·二八 收復

어언 실흔 다섯 해.

塔은 歷史의 脈博을 즈러 밟고 서서  
東海를 굽어 우뚝 섰다.

아득한 沮擊陵線 防禦 障地  
鎖魂 나팔의 메아리는 그 날  
피의 香을 부르는데

머물듯 흐른 塔의 세월  
차라리 처절한 東海의 旗手  
기도의 높은 것이 沈默이듯이  
복녜 향한 뜨거운 發願  
가슴 깊이 껴안았네.

허리 짚린 이 江山에  
統一의 祝砲 울리는 날

靑山 같은 沈默 깨고 일어나  
歷史의 追越線을 내달려 가라.

# 東草文化

## 論壇

- 지역문화의 發展에 대하여 / 李相稷
- 한계산 古城과 마의태자 / 金鍾權
- 地方文化발전의 經濟的요인 / 金南根
- 속초어민 실태고찰 / 在京東草學友會



# 地域文化의 發展에 대하여



李相稷 /  
東宇專門大學長

## 1. 文化의 定義

文化라는 用語는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 혼동을 불러 일으키기 쉽다. 따라서 우선 文化의 概念을 정확하게 규정짓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文化行事, 文化國民, 文化住宅 등과 같이 이러한 경우에 쓰이는 文化의 뜻은 예술, 교양, 편안함과 어떤 현대적 감각을 의미한다고 해야겠다.

文化를 Culture라고 한다. Culture의 어휘의 뜻을 살펴보면 '문화, 교양, 세련, 훈련, 수양, 재배, 경작, 배양' 등의 명사적 의미와 '경작하다, 재배하다, 제발하다, 장려하다, 닦다, 연마하다, 발달에 힘쓰다'의 동사적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다.

위의 語義를 공통적으로 묶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훈련, 수양, 재배, 경작, 배양'은 '과정'에 관한 의미요, '문화, 교양, 세련'은 '결과론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文化는 '훈련, 수양, 재배, 경작, 배양'의 과정을 통하여 길러진 '교양과 세련'으로 그 定義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또한 '경작하다, 재배하다'는 물질과 관계가 있고 '제발하다, 장려하다, 닦다, 연마하다'는 정신문명과 더 가까움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어휘의 공통 개념으로 볼 때 물질과 정신세계가 조화 내지 공존할 때 文化의 의미가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오늘날 社會科學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文化의 概念 定義를 가장 먼저 제시한 사람은 영국의 인류학자 타일러(Edward B. Tylor)이다. 그는 1871년에 출간된 그의 저서 「原始文化」(Primitive Culture)에서 文化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文化는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및 사회의 한 構成員으로서의 인간에 의해 획득된 기타 모든 능력과 습관들을 포함하는 複合總體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文化는 한 사회 집단의 생활양식 그 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우리 文化의 課題

금세기 우리나라 文化體系의 특이한 점은 외부로부터의 文化衝擊 때문에 自律性에 의한 自生的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價値創造의 작업이 이루어진 점이다. 8.15 해방 이후 우리의 開放體制는 外來文化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우리의 傳統文化와 價値體系를 크게 혼란시켜 왔다.

이러한 현상을 빚어내는 예는 몇가지 커다란 요인에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식민지하의 日本文化의 移植이다. 그것도 西歐文化의 模倣 그 자체를 우리에게 오묘시킨 것이다. 이는 결국 우리 韓國文化에 대한 발굴이나 정비에 대한 기회를 박탈해 가는 결과를 가져와 文化의 주된 주체인 지식층으로 하여금 意識上 韓

“

이러한 西歐文化는 사람들의 생활 基底까지 정착하지 못하고 外皮의 측면에서 표류 하였기 때문에 創造的 價値가 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西歐文化는 先進文化이므로 理想的 價値로 잡고 우리의 在來文化는 後進文化, 前近代의인 文化로 낙인 찍혀있는 전통문화의 수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

國文化의 斷絶을 招來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8.15해방 이후 西歐文化의 大流入에 있어서 批判能力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나라에 西歐文化가 아무런 저항없이 순조롭게 전개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外來文化의 受容過程에서 발생되는 自國文化와의 갈등이나 충돌이 필연적인 현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심한 갈등이 없이 순탄하게 이루어져 왔으므로 우리 文化의 심각한 해체나 재편성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계기가 없게 되자 기존의 在來文化 위에 그대로 外來文化를 덮어씌우는 複合構造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러한 西歐文化는 사람들의 생활 基底까지 정착하지 못하고 外皮의 측면에서 표류 하였기 때문에 創造的 價値가 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西歐文化는 先進文化이므로 理想的 價値로 잡고 우리의 在來文化는 後進文化, 前近代의인 文化로 낙인 찍혀지는 전통문화의 수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西歐의 生活用具와 財貨生産에 관계되는 用具文化가 우리의 價値觀을 완전히 뒤섞어 놓는 바람에 이를 중심으로 價値體系의 序列化가 전개되어 享樂主義, 消費志向主義, 金錢萬能主義, 利己主義등 대중생활의 도덕질서를 문란시켜 왔다. 이러한 무질서의 수습이 우리 文化에 최대의 課題인 것이다.

### 3. 地域文化의 發展

#### 1) 鄉土愛의 深化

학교에 있다보면 시민들로 부터 궁금한 문제를 전화로 물어오는 일이 종종 있다.

지난 주에 어떤 분이

“제 자식 녀미 부산에서 출생하여 이곳 속초에서 죽 자라왔는데 제 자식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는 내용의 전화였다.

이는 ‘고향’에 대한 개념에 관한 문제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① 고향은 제가 나서 자라난 곳

② 제 조상이 오래 누려 살던 곳

전화한 이 시민의 意識속에는 인간이 本能的으로 갖고 있는 歸巢意識이라 할까 回歸意識이 깊이 잠재해 있음을 볼 수 있다.

교활하기 그지없는 여우도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는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하여 머리를 돌려 숨을 거둔다 했거늘 理性을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 내 고향이나 향토에 대한 애착은 本能 그 이상의 것이 아니겠는가!

한 지역의 文化의 發展은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愛鄉心, 鄉土愛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내 고향을 내 향토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낄 때 그 속에서 지역민들의 合意가 이루어지고, 그 合意를 바탕으로 그 지역문화 발

전의 求心點을 마련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춘 意識의 發展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토인비(Anold Toynbee)는 그의 大著 『歷史의 研究』에서 다음과 같은 이론을 전개했다.

“한 민족이나 국가의 패망은 물질적인 빈곤에서 오는 것이라기 보다는 先代의 文化와 文明을 계승하는 후손들의 정신적인 빈곤에서 비롯된다”

이와 같이 정신적인 빈곤은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인류 전체에 文化와 文明의 퇴보를 가져오는 결정요인이므로 意識의 빈곤을 타파하는 것이 文化發展에 최상위 목표임을 거듭 강조해 둔다.

## 2) 觀光資源의 開發

### ① 雪嶽山 巡禮大行進

봄과 가을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觀光의 계절이라 할만하다. 학생들의 修學旅行 行列과 觀光客들의 모습을 거리를 나서면 볼 수 있는 것이 이곳 束草의 風俗圖중에 하나다.

우리나라의 名山중에 설악산만큼 絶景을 갖춘 산도 또한 없을 것이다. 이 絶景을 지척에 두고 그 雪嶽의 秘景을 살살이 음미해 본 地域民은 과연 몇 분쯤 될까…….

이 地域의 학생들이 雪嶽山으로 수학 여행을 가는 일이 극히 드물 것으로 생각되는 나의 판단이 오류는 아닐런지. 또한 地域民도 예외가 아닐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내 鄉土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鄉土文化를 보전하고 기리는 일일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鄉土民을 始發로 雪嶽山巡禮大行進를 실시함이 地域文化를 발전시키는 合意點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이런 운동이 점차 확산되어 전국으로 번질 때 우리의 地域文化는 물론 觀光文化도 發展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 ② 土俗品の 開發

오늘날 인스턴트 食品과 化學酒가 우리 生活에 깊숙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어쩌면 이런 유형의 食品은 현대인을 전통적인 맛의 文化를



**우리나라의 名山중에  
설악산만큼 絶景을 갖춘 산도 없을 것이다.  
이 絶景을 지척에 두고 그 雪嶽의 秘  
景을 살살이 음미해 본 地域  
民은 과연 몇 분쯤 될까…**



병들게 하는 일일런지도 모른다.

우리 地域은 文字 그대로 山紫水明하여 도시의 공해와는 무관한지라 좋은 자연자원을 이용하여 土俗食品 開發에 주력한다면 산과 강과 바다의 많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地域文化를 發展시킬 수 있는 모델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모델을 제시하기는 쉽지만 목표를 성취하기란 정말 요원한 일인지도 모른다.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돌에 구멍을 내듯이 地域文化 發展을 위한 관심 하나 하나가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軌跡을 이룰 때 地域文化가 開花하는 것이다.

공타·마스타·활판인쇄

## 합동문화인쇄소

대표 : 金 鵬 海

속초시 중앙동 468-93 ☎ 2-2021

# 寒溪山古城과 麻衣太子



金鍾權 / 雪嶽山人

國立公園인 雪嶽山에 자리잡은 寒溪山 古城은 新羅敬順王의 第1子인 世稱 麻衣太子가 忠臣義士와 더불어 國權을 死守하기 위하여 이룩하고 고려에 抗拒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千年社稷의 마지막 자취를 남긴 실로 피눈물 어린 史蹟이다.

江原道麟蹄郡誌를 살펴보면 그 古蹟條에 「寒溪山城은 新羅敬順王때(927~935) 築城하고 高句麗와 新羅가 마지막 대치했던 곳이다. 古錄에는 規模가 크고 성안에는 望京臺가 있는데 景순왕은 여기서 亡國의 古都를 바라보며 恨을 反芻했다는 傳說도 간직한 地方文化財」라고 기록되었는데, 이 기록에서 ①寒溪山城을 「寒溪山古城」으로, 高句麗를 「高麗」로 바로 잡고 景순왕은 여기서 망국의 古都를 바라보면서 「麻衣太子는 옛 서울을 그리워하면서」로 고쳐놓고, 위선 文獻을 통하여 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東國輿地勝覽의 麟蹄縣古跡條에 의하면 「寒溪山古城 石築 주위 6178尺, 高 4尺, 內有 1井, 今半頽落」이라 하였는데 그 뜻은 寒溪山古城은 石築으로 둘레 길이가 6178尺(약 6杆)이고, 높이가 4尺(4m)이고, 성안에는 한 우물이 있는데 지금은 반쯤 무너졌다는 것이다. 또 그 山川條에는 「寒溪山在縣東 50里 山上有城有川 自城中流出 即成瀑布云云」이라 하였다. 이 뜻은 寒溪山은 縣의 동쪽 50리에 있는데, 산 위에는 城

이 있고 溪川이 있다. 개울은 성안에서 흘러 나와 곧 폭포를 이루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은 麟蹄郡誌에도 기록되었지만, 東國名山記등 그밖의 文獻에는 다만 城名들만을 기록했을 뿐이므로, 그 築造年代 史實등 詳考할만한 史料는 거의 없다.

道誌나 邑誌에 기록된 글과 地方의 傳說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寒溪山古城은 新羅敬順王이 高麗太祖 王建에게 나라를 넘겨주고, 忠臣義士들을 거느리고 여기 와서 城을 쌓고 高麗軍에게 抗拒하던 곳으로, 城안의 大闕터는 왕이 거처하던 宮터이고, 하나의 우물은 千軍萬馬가 먹던 우물이고, 望京臺는 왕이 옛 서울을 그리워하던 遺蹟이다」라는 내용들인데, 여기에서 敬順王이라는 말은 麻衣太子로 바로 잡아 놓으면 잘못된 것은 없겠다. 그런데 이 寒溪山 古城이 다른 城과 특별히 다른 점은 이렇게 큰 城에 城門이 단 하나뿐인 單一門이라는 것과 그 城門이 비교적 작고 또 城門은 石門으로 만들어 달아서 한 번 달아 놓으면 열지도 못하고 부수거나 불을 지를 수도 없다는 점이다. 그러면 史料를 통하여 이 古城이 敬順王과는 관계가 없고 그 아들인 麻衣太子의 據城임을 考察究明하기로 한다.

첫째로, 三國史記의 新羅敬順王條를 살펴보면 「九年冬十月 王以四方土地 盡爲他有 國弱勢孤 不能自安 乃與群下謀 舉土降太祖 群臣之議 或以爲

“

寒溪山 古城이 다른 城과 특별히 다른점은 이  
렇게 큰 城에 城門이 단하나뿐인 單一門이라는  
것과 그 城門이 비교적 작고 또 城門은 石門으  
로 만들어 달아서 한번 달아 놓으면 열지도 못  
하고 부수거나 불을 지를수도 없다는 점이다.

”

可或以爲不可 王子曰 國之存亡 必有天命 只合  
與忠臣義士 收合民心自固 力盡而後已 豈宜以千  
年社稷 一旦輕以與人 王曰 孤危若此 勢不能全 既  
不能強 又不能弱 至使無辜之民 肝腦塗地 吾所不  
能忍也 乃使侍郎金封休 賢書請降於太祖 太子 哭  
泣辭王 徑歸皆骨山 倚巖爲屋 麻衣草食 以終其身」  
이라 하였는데, 이 內容을 요약하여 요점을 들  
면 ①王 9年(935) 10월에 王은 群臣會議를 열  
고 나라를 高麗太祖에게 넘겨주자는 문제로 可  
否의 論難이 일어났는데 ②太子는 忠臣義士들과  
더불어 민심을 수습하여 千年社稷을 死守하자고  
주장하여 父王과 의견이 대립되고 ③王의 뜻대  
로 나라를 高麗太祖 王建에게 넘겨주자 ④太子  
는 울면서 皆骨山으로 들어가서 麻衣草食으로 그  
일생을 마쳤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史記에는 이어 말하기를 「11月 太祖  
受王書 送大相王鐵等迎之 王率百寮 發自王都 歸  
于太祖 香車寶馬 連亘三十餘里 道路填咽 觀者如  
堵 太祖出郊迎勞 賜宮東甲第一區 以長女樂浪公  
主妻之」라고 하였는데, 이 內容의 요점을 들면  
①王이 서울을 떠나 고려로 가서 나라를 太祖王  
建에게 넘겨주자 ②高麗太祖는 王을 맞아 집을  
주고 딸 樂浪公主를 그 아내로 삼았다는 내용  
이다.

그리고 또 이어 말하기를 「12月 封爲正承公  
位在太子之上 給祿1千石 侍從員將 皆錄用之 改  
新羅爲慶州 以爲公之食邑」이라고 하였는데, 이  
내용의 요점을 들면 ①王을 正承公으로 봉하여  
太子보다 우대하고 ②新羅 서울을 慶州로 고치  
고 王의 食邑으로 삼았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王의 승하한데 관하여 말하기를 「公至  
大宋興國四年戊寅薨 諡曰敬順(一云孝哀)」라고

하였는데, 이 뜻은 「王은 高麗景宗 3年(978年)  
에 승하하셨는데, 시호를 敬順 또는 孝哀 라고  
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사실로 보아 敬順王과 雪嶽山寒溪山古城과  
는 아무런 因緣이 없는 것을 確證할 수 있다. 그  
렇다면 여기에 제시된 新羅 마지막 임금이란 麻  
衣太子를 指稱하는 것이 確實함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寒溪山古城은 麻衣太子가 忠臣義士와 더불  
어 이룩하고 國權을 사수하던 유적임이 분명하  
다.

둘째로, 그렇다면 왜 麻衣太子가 雪嶽山으로  
들어와서 寒溪山古城을 이룩하고 抗戰한 사실이  
文獻에 기록되지 않고 또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  
았는가 하는 점을 살펴 보기로 한다. 이에 관하  
여는 기록과 사실과의 잘못된 이해에서 조성된  
것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麻衣太子가 入山한 皆  
骨山은 雪嶽山皆骨인데 高麗때 金剛山을 皆骨로  
이름한데서 그만 金剛山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잘  
못 알게 되고, 또 金剛山이 세계 명산으로 사람  
들의 입에 오르게 되자, 그만 三國史記의 皆骨  
山이 金剛山으로 오인되고, 후세에 모든 문헌에  
도 그런 것으로 굳어져 버린 것이다.

이렇게 되어 麻衣太子가 雪嶽山皆骨로 入山한  
것이 金剛山으로 들어간 것이 되고, 가소롭게도  
초라한 假墓까지 비로봉 뒤에다 만들어 놓고 뜻  
있는 사람들의 비웃음까지 자아내게 하였다.

실은 麻衣太子의 據城인 寒溪山古城이 있고,  
그 고을 甲屯里에는 太子陵墓가 있고, 金富里에  
는 大王閣에는 엄연히 新羅敬順王 第1子之神位  
라고 쓴 位牌와 神物을 모시고, 고을 사람들이  
千年을 한결같이 春秋祭享을 받들고 있는데도 어  
찌 사실을 바로 잡아 놓지 않으랴? 덧붙여 말

寒溪山 古城은 신라 1,000년 사직의 슬픈 사실을  
비장하고 있는 곳으로 麻衣太子가 忠臣義士들과 더  
불어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들을 거느리고 국권을 수  
호하고 고려에 거부하여 깨끗한 피, 살, 뼈, 눈물을  
뿌린 성스러운 곳이다.

하면 雪嶽山 밑의 원주민들에게 雪嶽山靑峰쪽을 가리키며 「저기를 뭐라고 부르지요?」하고 물으면 누구나 다 「개골(皆骨)이라고 부르지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三國史記의 祭祀條를 살펴보면 新羅당시 金剛山의 地名은 霜岳이었는데, 高麗때 그 경치에 따라 金剛山이니 楓岳山이니 蓬萊山이니 皆骨山이니 하는 많은 이름이 붙었는데, 후세에 와서 史記에 皆骨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것을 金剛山으로만 알고 이름도 모르는 麻衣太子의 史實도 옮겨가고, 文獻도 실제 사실과 달리 굳어져 버렸다.

세째로 寒溪山古城이 있는 雪嶽山은 역사적으로 金剛山보다 新羅文化史의 관계라 깊은 곳이므로, 麻衣太子가 입산한 皆骨은 이곳이 틀림없다고 믿어지는 점이다.

雪嶽山은 眞興王이래로 花郎들의 心身修養地였고, 善德女王때 慈藏律師가 여기에 寒溪寺·香城寺를 創建한 것을 시초로, 元曉 義湘祖師등 高僧이 洛山寺등등 많은 寺刹을 이룩하고 佛敎文化의 燦爛한 꽃을 피운 곳이므로, 國運이 衰退되어 나라가 고려로 넘어가게 되자, 麻衣太子는 先祖代代로 由緣이 깊은 이곳으로 들어 와서 奇巖絶壁을 의지하여 성을 쌓고 있으면서 최후까지 신라의 명맥을 보전하였을 것이다.

네째로, 寒溪山古城은 自然石을 그대로 쌓아 올린 石城이고, 城의 길이가 6杆나 넘는 큰 城인데 城門이 하나뿐인 單一門이고, 그것도 작은 石門을 달아놓아서 杜門과 같은 느낌을 준다. 이런 뜻에서 「徑歸皆骨山 倚巖爲屋 麻衣草食 以終其身」이라는 기록이 남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寒溪山古城은 文獻上으로 古城이라고 기록되

었는데, 古城은 말할 것없이 오랜 역사를 지닌 城임을 뜻한다. 東國輿地勝覽에 실린 城을 살펴보면 古城 山城 土城 石城 小城 長城등 四百四十여 城이나 되는데, 古城은 대개 오랜 城으로 그 史實이 未詳하다고 기록된 것이 통례다. 예컨대 雪嶽山 二大城의 하나인 權金城은 文獻上으로 高麗 蒙古兵亂때 外敵을 막기 위하여 쌓은 城임을 고증할 수 있는데도, 寒溪山古城은 古城 정도만 기록되어 있으므로 밝히기가 어려울 것 같다.

다섯째로, 新羅亡國史의 實相을 잘 究明해야 할 점이다. 생각하면 千年社稷을 끝까지 지키자고 주장하여 父王과 맞섰던 太子의 몸으로서 父王과 헤어져 皆骨로 들어가서 바위를 의지하여 풀뿌리를 뜯어 먹으며 살다가 죽었다는 기록이 어디 사리에 맞는 말인가?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나라도 나라가 망하면 그 유아들까지 피를 흘리면서 國權回復史를 남기는 것이 동서고금의 일반적인 사실인데, 千年社稷을 忠臣義士들과 더불어 民心을 收合하여 지키자고 주장한 太子가 어찌 그런 처참한 꼴로 일생을 마쳤겠는가? 이에 관하여 新羅史研究에 새로운 探究가 있을 것으로 믿어져서 여기에는 더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한 나라가 망하면 그뒤를 이은 나라가 그 전대의 사실을, 변조하거나 말살해 놓는데서 사실과 다른 꼴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麻衣太子도 역사적 文獻上으로는 그 이름조차 전하여지지 않고 世稱 麻衣太子도 전승되고 있다. 이러한 예는 三國史記法與王條에 駕洛國이 新羅와 통합된 사실은 적혀 있어도, 駕洛國四百九十一年의 史實에 관하여는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亡國의 史實에 관하여는 새

로운 探究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로, 요즘 江原道 인제지방에서는 新羅 千年社稷의 최후의 자취를 지닌 곳이 여기이고, 또 麻衣太子의 陵墓와 그 神位를 모시고 오랜 歲月 春秋祭享을 올리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그 遺蹟을 찾는 일이 일층 요망되므로 寒溪山古城이 그 據城임을 밝혔는데, 다만 文獻上으로나 遺物 등으로 그 實相을 정확히 고증하지 못하여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러나 이런 未洽한 점도 앞으로 究明될 것으로 믿어진다.

끝으로 덧붙여 말할 것은 이 城이 國立公園인 雪嶽山의 絶勝地에 자리잡았을 뿐 아니라 그 곁에는 雪嶽山에 처음으로 創建된 寒溪寺趾와 뒤이어 이룩된 雲興寺趾와 그 遺蹟·遺物등이 귀중한 文化財로 秘藏되어 있고, 大小寺刹 및 庵子와 大乘瀑布 玉女湯과 天壁 등 自然景이 실로 壯觀이므로 그야말로 名勝이다. 그런데 寒溪山古城은 극히 험준하여 빈몸으로도 오르기가 어렵고, 城주위는 6 軒 정도에 지나지 않으나 여기에 올라 大闕터까지 가서 望京臺를 돌아보고 돌아오려면 하루 해가 다 가므로 觀光을 하기에 힘들다.

이 城안의 大闕터 밖의 頂上에는 옛날의 碑石 셋이 있는데 이것은 太子入山하기전 곧 眞聖女王때와 孝恭王때에 이룩된 것이라고 전한다. 하나는 自然石碑에 陰刻文을 새겨놓은 것이고, 둘은 자연석을 둥글게 모아놓고 그 中央에 碑石 모양을 만들어 넣고 陰刻文을 새긴 것인데 이 碑石들은 다 祈禱와 致誠을 위하여 만들었지만 학술연구에는 좋은 자료가 되므로 興味롭다. 그러나 考察內容은 다른날로 미룬다.

結論으로 말하면 雪嶽山의 寒溪山古城은 新羅 千年社稷의 슬픈 史實을 秘藏하고 있는 곳으로, 麻衣太子가 忠臣義士들과 더불어 나라를 사랑하는 百姓들을 거느리고 國權을 수호하고 高麗에게 抗拒하며 깨끗한 피 살 뼈 눈물을 뿌린 聖스러운 城趾임을 거듭 밝히며, 앞으로 좀 더 자세한 史實의 研究를 스스로 다짐하는 바이다.

〈略 歷〉

- 史學, 漢學, 國學 研究
- 서울 普成高等學堂 教育界 40年
- 現, 雪嶽精舍에서 漢學敎習
- 著書: 國難史概觀의 많은 著·譯書 있음.



# 地方文化發展의 經濟的 要因



金南根 / 東宇專門大學教授

## 1. 問題의 提起

대중문화와 관련하여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할 점은 資本主義的 經濟的 活動과 文化生産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大衆文化란 다른 産業組織과 마찬가지로 文化産業이라는 經濟的 下部構造에 의해서 商品生産과 交換 過程을 통해 경제적 잉여를 産出하고 있다. 그리하여 資本主義的 生産法則에 기초를 둔 大衆文化는 市場의 극대화를 위해 標準化, 商業化를 指向한다.

交通手段의 發達로 인해 都市的인 生活文化를 시시각각으로 농어촌 구석구석까지 供給傳達해 주고 있으므로 실제로 농어촌에 살면서 都市文化의 홍수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現實이라 하겠다. 따라서 文化發展은 정치·사회·경제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 發展要素 및 效果等을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 本稿에서는 經濟的인 測面에서 지역문화발전에 있어서 문제점 및 그 改善方案을 전개해 보고자 한다.

## 2. 향토문화의 개발과 투자활동

우리의 전통문화는 精神生活에서 物質生活에 이르기까지 깊은 애정과 정성, 그리고 지혜가 함께 수반된 소박함과 아담한 은근미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 鄉土文化의 本質은 외양보다는 내면의 美에 있고 物質보다는 마음을 소중히 하는데 있다. 진정한 地方文化의 發展과 번

영을 가져오려면 우리 鄉土文化를 새로운 시각에서 인식하여 그 뿌리를 잘 살려서 우리의 참 文化를 발전,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産業化는 도시중심의 産業화이었고 그 결과 富와 온갖 文化的 혜택이 都市로 특히 서울로 집중하게 되면서 도시와 농촌, 서울과 지방간의 격차가 커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都市的 大衆文化의 획일적인 영향권에 포함되는 文化的 都市化 (소비, 향락등의 저속문화의 만연)가 일어나 地方特有的 鄉土文化의 침체와 증발을 초래하고 文化的 획일화를 조장해 왔다.

대중문화에 있어서 文化는 이제 하나의 資本으로서 文化生産에 投資되고, 生産된 文化內容은 하나의 상품으로서 대중의 文化的 欲求(購買力)를 충족시킨다. 경제성장에서 연유한 전반적인 지역 주민의 生活水準向上은 이와같은 文化的 欲求를 상승시켜 주는데, 이와같은 欲求를 적절히 충족시켜 줄 文化的 空間과 文化行사가 우리 지역에는 크게 不足한 실정이다.

이런 시민들의 文化的 欲求是 보다 나은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대한 욕구로서 社會成員이 가진 문화역량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 東草地域도 일부 예술인 혹은 선각자 몇 사람의 영역에서만 존재할 수 없는 정도의 문화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았을 때 여기에 대한 投資活動을 적극 전개하는 과정에서 급변하는 경제문화발전에



地方文化의 지속적인 발전은 우선적으로 지역주민의 의식구조개선에서 찾아야 한다. 人間의 生活文化란 기후·풍토·지리적 조건등의 환경에 의해서 각기 특성을 지니고 발전하게 되는 법이다.



부응하여 우리 향토문화는 더욱 발전될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市民生活에 깊숙이 파고드는 민속극운동, 전통문화운동, 노래부르기 운동, 출판운동등 넓은 의미에서 시민문화운동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財源의 뒷받침은 관계기관의 재정적인 보조와 아울러 우리 시민 스스로가 부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3. 시민의식구조와 기업문화

최근 한국일보사와 한국개발연구소가 공동조사한 한국 국민의 문화생활실태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문화생활실태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38.4%가 1년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응답자의 66.9%가 지난 1년간 한번도 영화구경을 간 적이 없으며, 92.5%가 음악회를, 91.5%가 연극을 한번도 관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공연예술은 일부층의 전유물화되어 있음이 나타났고 대신에 응답자의 48.6%가 휴일이면 T.V 시청등으로 소일하고 있었다. 특히 다음 표 I에서 도시의 응답자보다 지방의 응답자가 문화생활의 향유가 낮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 표 I >

구 분	도 시	지 방
1년간 독서량	9.6권	5.1권
연극관람 본적없다	86.1%	97.5%
영화구경 간적없다	59.1%	78.2%

우리의 전통문화는 精神文化가 그 기틀이 되어 발전되어 왔으므로 지역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은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식구조개선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人間의 生活文化란 기후, 풍토, 지리적 조건 등의 환경에 의해서 각기 特性을 지니고 발전하게 되는 법이다. 그러므로 우리 東草地域 특유의 향토문화를 계속 개발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도록 住民들의 참여속에서 각종 文化行事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야 하며 각종 매스컴과 지방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만이 市民全體 文化運動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으로 文化는 企業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으로서 존재할 뿐 아니라 企業內에서도 이것이 조직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企業文化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우리 속초지역에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中小企業과 상당히 많은 서비스업체가 있다. 이들 企業이 直·間接으로 지역문화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各 企業體에서는 체계적인 지방문화교육과 市民文化意識構造 형성에 선두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기업문화는 기업적인 자체내에서도 매출액이나 利益, 종업원의 직무만족, 愛社心등으로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또한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관광도시로서의 도시기반을 갖추고 있으므로 외래관광객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로 속초 지역의 향토문화 소개에도 매우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 4. 결론(문화의 주체성과 다양성)

한때 조상의 얼이 담긴 서낭당이나 장승이 미신타파라는 명분아래 철거되고 혹은 문화재적 건물들이 도시계획의 불도저에 밀려 나가기도 했다. 거대한 經濟發展은 전통적인 것을 전근대적인 것으로 변질시키기도 했으나 文化的 傳統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통해 형성된다. 傳統文化란 각 지역마다 독특한 멋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향토성과 지역성이 강하므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보다 용이하게 주도할 수 있다. 地方文化運動의 궁극적 目的이 주민생활 향상의 추구에 있으므로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지역주민 모두에 의한 文化運動이 되어야 한다. 지역문화운동이 주민 自生的 活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적 특성에 맞는 文化運動의 뿌리가 내려야 되겠다. 그러므로 우리 束草지방의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행사, 음식, 특산품 등을 개발함과 아울러 문화적 토양에 대한 이해를 위한 향

토자료의 정리, 연구, 향토문화재 등의 보존과 活用이 요청된다.

지역문화는 그 지역주민들의 애정과 生活이 담긴 향토문화와 성격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문화운동의 주체와 목표가 정해진 다음 지방문화육성을 위한 정부당국의 투자지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 그 지역의 대학이나 교육기관들이 일반 시민들과 직접 호흡하면서 참여하는 것 등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대학의 넓은 공간과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능력배양은 물론이고 대학과 주민의 문화적 일체감으로 지방문화의 기틀이 잡혀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束草 地域에 몸담고 있는 기업인, 근로자, 세일즈맨, 관계공무원등 전 시민이 한 덩어리로 뭉쳐서 지혜를 모으면 반드시 속초지역 향토문화 발전의 돌파구는 열릴 것이며 관광문화도시로서의 발전을 확신하는 바이다.

# 束草漁民 실태 고찰

在京東草學友會

## 1. 머리말

속초시는 전형적인 어업에 기반을 두고 성장해온 도시이다. 따라서 속초는 다른 도시와는 다른 독특한 생산경제를 지니고 있다. '60, '70년대는 계속되는 수산업의 호황으로 느끼기는 하지만 계속 성장해왔다. 그런데 최근 수산업의 불황으로 부터 시작한 경기침체는 심각한 전출 현상과 수산업 자체에서도 전업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글에서 국가의 현실적인 복지정책에서 부터 소외되고 또한 관광, 레저스포츠의 무한한 자원인 산과 바다와 호수 그리고 은천에서 소외되어 오직 퇴조기에 이르렀다는 허물 하나 탓으로 그 속의 많은 문제점과 모순을 방치한 상태로 외면당하는 수산업을 바르게 조명해보고 참다운 올바른 지역개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은 광범위한 수산업의 영역에서는 다룰 수가 없었고 속초의 수산업을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상황과의 관련하여서 주종을 이루고 있는, 또한 가장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오징어 채낚기어업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선원, 선주 그리고 판련기관(수산업 협동조합 어촌계등), 상인들과의 직접 면담과 필요한 문헌 조사와 통계자료수집의 방법을 취했다.

## 2. 몸 말

### 가. 한국수산업 역사에 대한 대략적 고찰

#### 1) 근대적인 수산업의 태동과 일본의 한국수산경제 침탈

한국의 수산업(어업)은 1900년대에 근대적인 방법에 의한 어업이 들어오곤 했는데 그 과정은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경제적인 침탈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전 근대적인 어업경영을 하는 조선 어업과는 달리 새로운 선진조선기술과 새로운 어로장비와 기술을 가지고 우리의 영세적인 어업을 억누르며 우리의 어업권을 독점하였다. 일본은 1904년 러·일전쟁에 필요한 토지와 통신망의 확보와 함께 한국의 어업권과 항해권을 빼앗아갔다.

합방 전해인 1909년 어업의 실태를 살펴보면, 조선어민 12,567척에 75,063명이 출어하여 어획고가 3,690,300원인데 (1인 평균어획고 49원) 조선의 일본 어민은 3,755척에 15,749명 출어에 불과한데 어획고는 3,076,800원 (1인 평균 어획고는 195원)이었다.

한일합방이후 식민지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농업에서는 "토지조사사업", 임업에서는 "임업조사"(1918), 광업에서는 "조선 광산령공포(1915)" 그리고 어업에서는 1911년 "조선어업령"을 공포하여 우리의 자원을 침탈해 갔다. 일제는 조선어업령을 공포함으로써 기존의 어업권 소유를 모두 부인하고 다시 허가하도록 하여 근대적인 소유 관념이 없는 많은 조선인의 어장 및 황실 소유의 어장이 일본인 소유로 재편성하게 되어 식민지 경제정책중 가장 먼저 이루어졌다. 또한 저인망어업이나 잠수기 어업등 근대적인 방법에 의한 어업은 일본인에게만 허가해 주고 어업조합을 설치하여, 조합에 의하여 조선인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조합을 일본인 중심으로 운영을 하여 어업권이 일본인에게 넘어가도록 유도했다.

이러한 일제의 식민지어민정책의 결과 어업권은 일본인에게 독점되었다. 합방후 10년 사이에

조선인의 어획고는 4 배 증가했으나 일본인의 어획고는 6 배 증가, 1 인 평균 어획고도 조선인은 49원에서 54원 증가했으나 일본인은 195원에서 245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근대적인 어업인 양식업에 있어서 일본의 우위는 두드러졌다.

2) 한·일 경제협력에서의 수산업의 희생

일본의 경제적인 수탈과 더불어 시작된 근대적인 어업은 계속 정체를 면치 못하였다. 특히 해방이후의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이 수산업의 문제는 가장 크게 거론되었으며 빈번히 무진장한 자원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전철을 거듭해왔다.

1952~53년 전쟁중에 열린 한일회담에서 선박과 어업문제가 거론, 당시李大통령이 '해양주권선언'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선포하여, 그것을 침범하는 일본어선을 강제 나포하였던 "평화선(李라인)" 문제를 다루었다.

5.16 쿠데타이후 5.16정권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인 해외지지를 얻기위해 이루어진 제 6 차 한일회담, 즉 한·일 경제협력에서 '김·오 오히라 비밀데모' 합의에 의한 재산청구권 문제를 해결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독점, 제국주의적 자본이 국내에 유입, 일본경제에 종속하게 되는 결과를 빚었다.

무상자금 3억, 유상자금 2억달러, 총 5억 달러의 경제원조와 경제협력이라는 이름으로 3억 달러 이상의 상업 베이스 민간차관을 제공받는 대신 그리고 상당한 규모(1억 7천 8백만불)의 어업협력 자금을 공여받는 조건으로 전관 수역에 대한 한국측 40해리, 일본측 12해리주장에서 한국측이 양보하였다.

이 어업협정의 체결로 지난 40년간의 피압박 수탈의 피의 댓가이며 또한 당시 한국 영세어민들의 생명선이나 다름없었던 "평화선"을 철폐하고 한국 연안에서의 고기잡이를 마음대로 허용하였다.

3) 경제적 근대화에서의 소외 낙후된 현실

일본과의 경제협력, 외국 차관도입, 베트남전쟁 참전으로 인한 달러유입으로 시작한 경제 개발은 지나친 2 차산업확장에만 힘을 쓰고 농업과 함께 수산업은 계속 낙후되어 전근대적인 어업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더구나

비생산적인 3 차산업의 비정상적인 과대화로 인한 불건전한 수산물 유통구조, 지나친 인플레이션 과열경제에서의 타물가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낮은 생산가격으로 어민들의 생활은 더욱 더 침체에 빠졌다.

나. 속초시 수산업 경제동향

60, 70년대 속초시의 수산업은 우리나라 수산업 자체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계속 호황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5, 6 년전부터 이상 조류 현상과 치어남획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계속 불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 어획고의 감소는 어민들의 생활에 큰 위협을 주고 더구나 급격한 물가상승(만성적 인플레이션)으로 더욱 더 상대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어가의 부채는 계속 급증하여 83년에는 180만원 정도로 농가부채액 170 만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속초경제의 기반산업인 수산업의 불황으로 전체 경기는 침체에 빠지게 되어 심각한 전출현상(인구이동)과 전업현상이 나타났다.

다음은 속초시 농가·어가소득의 비교에 대한 통계이다.

〈'83 농어가 소득조사 보고서 - 강원도〉

단위:천원

연 도	농 가 소득	어 가 소득
'80	-	4,580
'81	2,900	3,086
'82	3,399	3,517
'83	3,748	3,675

여기에서 '83년 어가소득은 82년보다 4.5%증가했으며 농가소득 10.3%보다 훨씬 밑돌고 있다. 그리고 전국 평균 403만원(어가소득)의 91.4% 수준인 것이다.

따라서 많은 수산업 종사기구들은 수산업을 포기하고 타업으로 전환을 하거나 막노동자로 전락을 하게 되었다. 80년 들어서의 많은 건축사업과 도시정비사업, 관광투자사업은 많은 노동력의 수요를 요하고, 이에 따라 수산업의 많은 노동력이 공급되었다. 그리고 많은 가구들이 전업이 불가능한 영세성 때문에 고향을 등지고 떠

# 논 단

나는 새로운 이촌(?)현상을 빚어야만 했다. 아래표에서 시인구의 79~80년 감소(6,142명)보다 수산업 인구감소(16,409)가 더 크다. 이는 수산업의 침체로 시에서 전출한 사람이 많음과 동시에 전업한 인구가 많음을 보여준다. '79년 44%를 차지하던 수산업이 84년의 18%까지 무

려 5년 사이에 26%의 감축을 보았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수산업은 1차 산업이라는 생산적 산업인 관계로 몇 과정의 유통과정에서 잉여이윤이 파생하고, 이러한 순환이 계속되므로 수산업은 2차산업(3%)이 부재한 까닭으로 계속 속초의 지배적인 산업이 되고 있다.

속초시 인구추이 <79~83>

(속초시통계연보 1984)

연 도	시 인구(개)	수산업인구수 (나)	나/가(%)	시가구수(개)	수산업가구수 (나)	나/가(%)
'79	71,940	31,632	44.	14,786	6,274	42.4
'80	65,798	15,223	23.1	14,452	3,066	21.2
'83	72,324	14,211	19.6	16,287	3,017	18.5

## 다. 수산업의 여러 문제점

### 1) 어선과 선주

속초시의 어선과 어로장비는 비록 현대화되어 가고는 있으나 그 속도는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미비한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선주(비공식 60~80%)가 영세적인 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래표에서 톤미만의 소형선박이 59.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선박의 소형화와 더불어 노후화는 현대적인 어로장비의 설치를 제한하여 영세적인 경영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한다. 또한 이러한 선박들은 출어에 많은 제한을 받아 잦은 해난사고의 발생, 또한 불규칙한 어획량으로 인한 타격을 더 심하게 받고 있다. 낙후된 어로 장비로 조업을 하므로 추측, 육감, 경험등에 의거하는 전 근대적인 방법으로 어군을 추적하고 있다.

지금의 소형어선으로는 원양어업이 불가능하며 설령 원양어업이 가능한 선박들일지라도 경

영상태가 매우 부실한 영세 경영자가 대부분이어서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낙후성과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이른바 "계획조선"이라는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계획조선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저리로 국가에서 일체를 부담하여 100톤 이상의 규모의 배를 건조해 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계획조선은 수출 주도형 경제정책으로 증공업이 국내산업과 유리된 상태에서 불균등한 성장을 하여 국외수요의 감소를 국내 수요로 충당하려는 시책으로 조선공업에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계획조선은 흥어와 과다한 시설투자에 대한 영세적인 경영자의 부담증가로 실패로 돌아갔다. 이러한 과다한 시설 투자는 경비의 지출을 증가시켜 전체 어업소득의 감소를 초래하였고, 선박수의 증가는 선원의 부족을 가져와 급기야는 출어전에 선주들은 선원들에게 선금을 주고 고용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 <어선 보유 현황>

(속초시 수산과)

연 도	2톤 미만	2~5톤	5~10	10~20	20~30	30~50	50~100
'77	353	93	34	183	29	24	7
'78	339	96	43	164	31	35	7
'79	291	103	36	152	26	46	20
'80	77	364	31	120	25	62	28
'81	90	355	37	100	41	82	36
'82	86	368	45	97	38	80	50

대부분의 영세경영자(선주)는 대자본을 충당하지 못하여 1년 1회의 영어 자금을 수산업 협동조합에서 지원받아도, 자금이 부족하여 사채를 빌어쓰고 있는데 다음에 나타난 바와 같이 83년 강원도 어가 호당 평균 저축액이 62만1천원이며 채무액은 184만7천원이다.  
이는 저축액의 3배이며 해마다 계속 늘어나

고 있다. 속초시의 83년 어가저축액은 21만1천 어가채무액은 171만3천원이다.

이러한 심각한 부채 증가의 원인은 전반적인 불황에도 큰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영세적인 경영에다 선박의 노후화, 어구 구입비의 증가등 우리나라 수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강원도 어가호당 평균 저축·채무액〉

(단위: 천원)

연 도	저 축				채 무			
	계	수 협	사 채	기 타	계	수 협	사 채	기 타
'80	336	91	84	161	405	244	144	17
'81	281	95	79	107	549	310	197	42
'82	604	90	148	366	1,022	505	445	72
'83	621	251	73	297	1,847	946	648	253

( '83. 농어가소득조사보고서 - 강원도 )

위표에서 보면 어업 조수익과 어업 경영비는 매년 증가추세이나 어업조수익의 증가율이 경영

비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여 어업 소득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강원도 어업소득(호당평균)〉

(단위: 천원)

연 도	어업조수익(가)	어업경영비(나)	어업소득(다)	어업소득율(다/가)
'80	4,582	1,454	3,128	68.27
'81	4,133	1,237	2,896	70.07
'82	5,435	2,466	2,969	54.63
'83	5,548	2,849	2,699	48.65

( '83. 농어가소득조사보고서 - 강원도 )

〈강원도 어업경영비(호당평균)〉

연 도	어업경영비	수 리 비	감가상각비	유류광열비	노 입	어구구입비	조세공과금	기 타
'82	2,466	265	237	733	747	282	28	174
'83	2,849	381	269	983	615	329	123	149

( '83. 농어가소득조사보고서 - 강원도 )

여기에서 어가소득을 이루는 어업소득과 어업의소득중 어업소득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의 감소는 치어의 남획등 부정어업을

낱게 되어 장기적으로 더욱 더 소득을 감소시키고 있다.

# 논 단

## 2) 선 원

선원구성은 각 어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오징어 채낚기어업의 경우 선원구성은 선장, 기관장, 갑판장은 조기장 그리고 한 배에 고정적으로 계속 고용되어 있는 본선원(5~6명 정도)과 때와 계약조건등에 따라 다른 배로 이동을 할수

있는 일용선원(20명 내외)으로 되어 있다.

선원들의 학력수준은 국졸이하(무학포함)가 58.4%(글 모르는 사람 3.7%)로 그들의 권익옹호를 위한 단결이나 조직은 거의 없는 상태이며 노동조합도 명목적인 단체로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무관심속에 방치되어 있다.

### 〈학력별 가구원수〉

연 도	계	국	중	고 졸	초급대 이 상	무 학					
						글을 안다			모 른 다		
남	5,535	2,426	2,093	671	48	계	남	여	계	남	여
여	4,908	2,801	1,224	229	13						
계	10,443	5,227	3,317	970	61	486	202	284	382	95	287

(제 2 차 총어업보고-1980. 농수산부)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이 35.7%를 차지하고 있어 노동력의 노후화 경향이 짙어 생산량(력)은

계속 감소할 것이며 어업 종사자수도 계속 줄어들 것이다.

### 〈성별·연령별 어업종사자수〉

총 수	3,469	14~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세이상
남 자	3,439	37	595	660	915	749	429	54
여 자	30		1	6	16	7		

(제 2 차 총어업보고-1980. 농수산부)

젊은 노동력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소득의 저조때문인데 계속되는 수산업의 침체 상태에서는 생계유지가 위협받게 되고 따라서 자녀에 대한 교육은 생각할 수 없게 되어 계층 상승에 대한 기대는 좌절될 수 밖에 없다.

## 3) 선주와 선원간의 문제

선주와 선원과의 관계는 계약에 의해 체결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이다. 양자의 관계는 분배문제(보합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 분배(보합)의 문제는 어획량을 정해진 계약조건에 의하여 분배하는데 각 어업의 종류에 따라 그 비율이 다르다.

오징어 채낚기어업의 냉동선을 기준으로 보합 문제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채낚기어업의 경우 선주와 선원간의 분배를 선주협회와 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으로 1년에 한번씩 체결하게 되어 있다. 일반적인 비율은 총 어획량에서 공용

경비(위판수수료, 기타경비포함, 기름값은 제외)를 공제한 잔액중에서 선장, 기관장은 4%, 갑판장·조기장은 자기의 어획량에서 47.5%(20마리당 9.5마리), 본선원은 45%(20마리당 9마리) 일용선원은 32.5%(20마리당 6.5마리)를 분배받는다.

조업중의 주·부식비는 개인부담으로 되어 있으나 80% 정도는 공동취사를 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선주는 영세하므로 출어시 이 주식, 부식 및 어구를 외상 매입하게 된다. 이 경우 외상금액에 따른 이자를 함께 계산하여 생산물을 판매한 금액으로 지불하게 된다. 따라서 외상매입에 따른 이자는 선원들이 부담하게 되고 물품도 원하는 물품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심한 경우 선주는 구입할 현찰이 있으면서도 외상구입하고 대신 그 돈은 이자를 별도로 하기도 한다.

따라서 선원들은 공동취사의 주·부식비, 전구 소모비, 기타 경비를 공제하고 나면 훨씬 그 몫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보험문제에 있어, 현행 보험제도는 매년 단체협약에 의해 체결하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속초시 선원노동조합은 그 간판만 있을 뿐이며 선원들을 대변하여 선주측과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채낚기어업의 경우 600여명의 조합원이 있으나 30톤이상의 배에 승선하는 선원으로 선원수첩을 소지한 선장, 기관장, 조기장, 갑판장등 본선원만이 가입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일반선원(일용선원, 위의 조합원보다 훨씬 많음) 들은 조합에 가입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아 단체협약은 사실상 그들의 의사일 수가 없다.

둘째, 최근 들어서의 급증한 어선수는 계획조선에 의한 어선의 보급에 힘입었겠지만 분배상 선주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이 주어짐으로 인한 투자의 증가임을 보여주고 있다.

세째, 영세선주들은 1년1회의 영어자금으로는 자금 조달이 부족하여 불리한 조건으로 많은 사채를 빌어쓰고 있다. 이러한 부채는 선주의 소득에서 많은 감손을 초래하고 이것이 선원과의 보험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선주는 사채로 인한 소득의 감손분을 보충하려 한다. 결국은 직접 생산자에게 소득의 분배가 유리하게 아니 공정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자본을 지닌 대선주나 아니면 사채를 빌려준 사채업자의 불로소득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러한 보험의 소득분배문제 때문에 선주와 선원간의 관계는 상호신뢰의 협력관계에서 벗어나 갈등과 대립, 반목의 관계로 나타난다. 이 관계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보험문제가 정상적으로 해결되지 않는한 계속적인 반목 질시가 있을 것이며, 또한 일반 어민들의 생계유지에 많은 위협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선원과 선주간 새로운 문제를 계속 낳고 있다.

흔히 '뒷방'이라고 불리는 암거래의 문제도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 보험의 현 비율로서 수입이 늘지않는 선원들은 현재 수협에 위탁 판매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선주 몰래 사적인 거래를

한다. 뒷방의 실태는 채낚기의 경우가 가장 심한데 오징어는 건조나 염하기가 쉬우며 비싼 가격을 받기 때문이다.

뒷방의 양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으나 선주 협회에서 예상하는 양을 보면 한번 출어시 선원 1인당 100(20×5)마리로 보면 1년에 6번정도 출어를 하며 승선원은 30명이니  $30 \times 5 \times 6 \times 20 = 18,000$ 마리(900×20) 20마리당 '84년 시세가 1만6천원이므로 1,440만원이 된다.

뒷방의 존재는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혼란시키는 것은 틀림이 없고 잘못 됐는가 아닌가가 법적문제에 까지 발전하여 최근에는 사법당국과 협조하여 단속할 정도이다. 하지만 뒷방의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않고 그나마 선원들의 수입 보충 역할을 하는 뒷방을 단속하여 근절시키려 한다면 한번 출어시 8만원 정도의 수입감소에 생활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어민의 생계와 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 부정어업문제이다. 선종과 어종에 따라 어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당장 떨어지는 어획량을 보충해야만이 생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수산자원의 보호는 먼저 어민의 생활 안정이 되지않고는 멀고먼 이야기일 뿐이다.

#### 4) 유통구조에서의 어민과 소비자의 관계

수산업의 매우 큰 문제중의 하나가 유통구조의 문제이다. 현행 유통구조는 어민 → 산지어판장 → 중매인 → 반출상 → 내륙지공해장 → 중매인 → 중간도매상 → 산매장 → 소비자의 9 단계를 거치고 있다(이보다 적은 단계를 가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유통구조의 관계로 어민들은 그 어느 노동환경보다도 열악한 상황에서 잡아온 수산물을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하고 팔게 되며 소비자들은 그 어느 상품보다도 비싼 가격으로 사야 한다. 더구나 수협을 거쳐 위탁판매되는 과정에서 어민들은 자기가 잡아온 수산물의 가격결정에 결코 가입할 수 없는 실정이며 그 과정에서 상인들 농락으로 어획량의 조그마한 변화도 크게 고기값을 좌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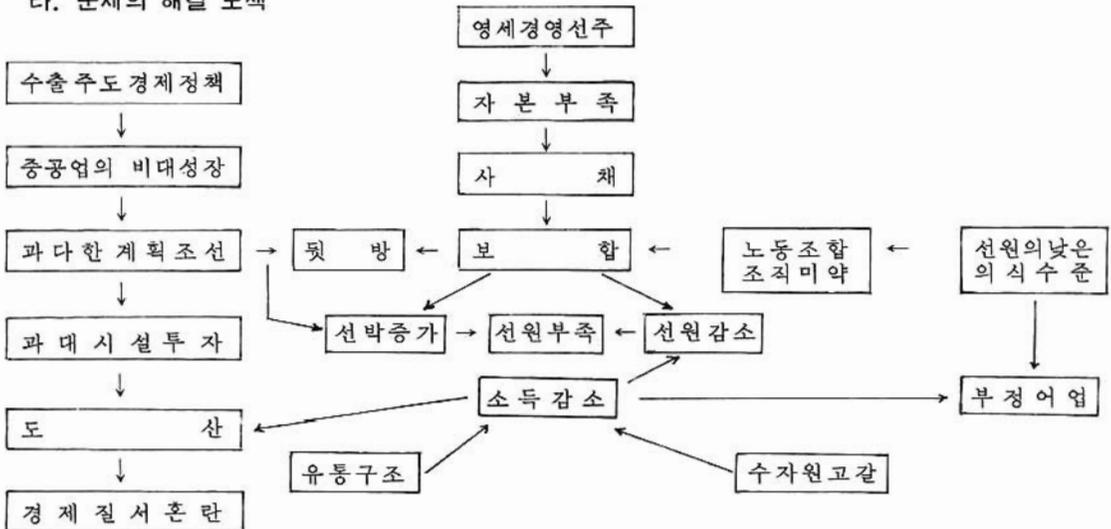
이러한 생산물의 가격은 어민들의 생계와 직

# 논 단

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도표화했다. 이와 같이 속초의 수산업은 국민경제와 상호 유기적인 관

## 라. 문제의 해결 모색



계를 맺고 있어서 그 근본적인 해결 또한 국민 경제의 시각에서만 가능하다.

- 1) 정부의 수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 수산업 역사의 대략적 고찰에서 보았듯이 한국의 수산업은 일본과 같은 세계적인 수산국으로의 발돋움을 포기해 왔다. 수산업으로의 발전은 먼저 원양어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영세하여 자금난에 처해 있고 부채는 갈수록 증가한다.

현재 수협에서는 몇 년전의 정부의 예산속에 영어자금이 책정되었으나, 지금은 수협 자체의 능력으로 조달-저리로 대출해 주고 있으나 수협자체의 능력한계로 대부분의 경영자들이 비싼 사채에 의존하고 있다. 절대적인 영어자금의 조달에 있어서의 부족액을 대재벌 독점기업에 지원하던 방향을 바꾸어서 지원해야만 한다. 또한 수산업에 대한 시책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취해져야 한다.

- 2) 수산물 유통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유통과정에서의 지나친 마진은 마땅히 생산자에게 정당한 댓가로 주어져야 한다. 최근 일

본에서는 생산어민→공동출하→집매센터→소매단체→소비자의 4 단계의 개선안이 검토중이며, 원칙적으로 소비자 구입가격의 60%는 생산자에게 40%는 중간상인에게 돌아가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민들이 가격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또한 출하시기와 출하량의 조절로 어가변동을 막을 수 있는 냉동보관시설과 진정으로 어민들을 위한 위탁판매의 수협이 되어야 한다. 또한 어민들의 조직이 잘 구성되어 권익을 수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3) 소득분배(보합)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의 보합문제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보합문제는 뒷방의 해결책이며 선주와 선원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어 새로운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된다.

4) 진정한 어민들을 위한 조직이나 어민 자발적인 권익옹호의 단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금 어민들을 위한 조직은 수산업 협동조합과 어촌계 그리고 노동조합이 있다. 그러나 수산업 협동조합과 어촌계는 선주들만의 가입이 허용되어 일부 어민만의 모임처럼 구실을 하고 있으며 그나마 선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노동 조합법도

까다로운 조합원 규정으로 대다수의 선원이 가입을 하지 못하여 제대로의 구실을 해내지 못하여 어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

지금 있는 이러한 조직의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요소를 버리고 모든 어민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전에 어민들 스스로 권익을 찾으려는 의식을 지녀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자발적인 조직이 가능하다.

5) 부정어업이 근절되고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치어의 경우 1년이 지나면 길이가 2배로 늘어 무게는 8배의 증가를 가져온다. 치어의 남획은 급격한 어획량의 감소를 초래하고 소득이 줄어들면 또 다시 치어를 남획해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금어기를 철저히 지키고 선박과 어로장비를 현대화하여 어획량을 고르게 하면서 점차 기르는 어업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그러기전에 부정어업의 직접 원인인 빈곤을 퇴치하는 소득향상이 급선무다.

6) 상황에 맞는 적정규모의 시설투자가 필요하다.

계획조선은 현실에 맞지않는 과다한 시설투자로 이에 따르지 못하는 소득때문에 실패로 끝났다. 어느 상황이나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

### 3. 맺음말

속초는 왜곡되어진 민족사의 수난터이다. 6.25의 비극이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 숨쉬며 또한 소외된 자들의 굳센 삶이 펼쳐지는 현장이다. 그런가 하면 뜨내기 관광객의 오락장이기도 하다.

지형조건이 좋아 산이 수려하고 바다가 펼쳐져 있고 그래서 관광도시로서의 전망을 좋게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설악산 상가 및 숙박업의 소유자는 대부분이 타지방, 서울사람이므로 설악산에 나오는 이익은 다시 속초 밖으로 유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수산업과 관광업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추고 이 지역발전, 참다운 속초시민의 생활향상에 힘써야 할 것이다.

아직도 18% 이상을 차지하는 수산인구, 어민들은 다른 직종의 환경보다 열악한 상태에 처해 있다. 문화적인 시설, 어민복지 기구하나 조차 없는 상태이므로 빨리 어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루빨리 올해부터 시행되는 의료보험에도 많은 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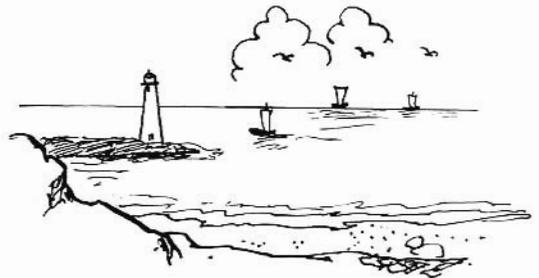
또한 속초시민의 삶의 터전인 항만이 계속 황폐화되어 오염되어 가는데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슴저리는 사실은 속초 대부분의 시민이 실항민이라는 사실이다. 분단상황에서 속초만큼 치열한 아픔은 없고 오늘도 속초의 어민은 저 북녘의 황금어장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분단은 우리에게 상처와 가난과 절망을 주었다. 2시간도 못되는 금강산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헤아려야 했던가? 통일은 우리의 가난을 풀어줄 것이며 진정 우리의 꿈을, 민족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다.

이번 지역사회의 문제를 거론함에 있어 막대한 책임의식을 느끼면서도 다 못해낸 우리의 임무에 부끄러울 따름이다. 그러나 단지 하나의 씨앗으로 머물러 열매를 거둘 수 없을지라도 조금 더 한국의 경제 현실속에서 바르게 보았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길지라도 이것이 속초에 대한 뜨거운 애정으로 호흡을 하는 많은 시민의 진정한 의식형성과 공감대 조성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족할 것이다.

비록 짧디 짧은 혀로 가쁜 호흡을 가다듬어 한 마디 한 마디 더듬거리기는 했지만 언젠가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끝내 한 문귀가 되어 우리의 긴, 고이 간직해왔던 호흡을 대신해 주리라 믿는다.



奉祝 東華文化誌 出版

文化  
同源  
感情  
相通

蘇東書藝學院主 女卷 鄭元激

## 失郷한獅子, 그 몸부림

고향을 잃은獅子는  
그러나 결코 고향을 잊지않는獅子는  
월남한지 35년이나 지났건만  
지금도 정월 대보름이면  
달을 향해 몸부림치며 울부짖는다.

울부짖는獅子  
사자의 탈을쓰고 몸부림치는北靑人들  
속초시민의 대부분이 북녘을 고향으로 두었고  
그 실향민중 대부분이 북청군민이라 하는데  
그들 마을의 마지막 사연「북청사자놀음」은  
이제  
누가 지켜줄 것인가.



속초문화원은 「북청사자놀음」을 내 고향 민속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失郷한獅子 그 몸부림

최재도

## 束草에도 나타난 사자

1957년 정월대보름, 실향민의 도시 束草에 느닷없이 사자 두마리가 나타났다. 사자는 뒷발로 땅을 딛고 일어서서 울부짖기도 하고, 엎드려 기도 하며 미친듯이 몸을 흔들며 대었다. 그의 온 몸은 현 그물 울을 풀어 물감을 들인 것이고 그의 얼굴 또한 초라하고 조잡한 채였지만 꿩과 리와 통소를 앞세우고 집집을 방문하여 악귀를 쫓아내고 있었다. 아이들이 그 뒤를 이었고, 사자가 발을 멈추는 곳은 그대로 잔치마당이 되었다.

사자는 이렇게 해서 市内 유지들로 부터 약간의 기금을 모았고, 그 이듬해 당시 束草邑長이던 全屋宇씨에게서 현 중앙동소재의 邑有地를 무상으로 불하받아 北靑都廳을 세우게 된다. 근 1년간이나 李貞基(작고)씨를 비롯한 서른 여섯명의 北靑人들이 끼니를 거르고 「눈물을 삼키며」 산허리를 깎아내는 작업을 해낸 끝에 얻은 결과였다. 고향을 빼앗긴지 7년만에 그들은 다시 都廳 안에 모여들 수 있었던 것이다.

北靑人들에게 있어 都廳은 고향 곧 그 모습이었다. 都廳이란 일종의 마을회관 같은 것으로서 서당과 노인정 또 일터와 놀이터를 겸하는 북청 특유의 公建物이다.

일단 부락이 이루어지면 그들은 맨처음 이 都廳을 세운다. '북청물장수'로 대변되는 그들의 높은 교육열과 대단위 공동체의식은 바로 이 곳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노인들의 오락장이고, 어린이들의 공부방이며, 지나가는 길손의 유숙장이고 동네 사람들의 토론장이기도 한 다목적 활용의場이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속초에 정착한 北靑人들도 굶주린 배를 움켜진 채 생업을 보류하고 都廳建立 부터 착수했던 것이다.

## 北靑의 사자

함경남도 북청군은 강원도 전지역의 1/6 이나 될만큼 광활한 지역인데다 해방직전 이미 11面 3邑에 인구가 28만을 넘었다고 하니 그야말로 「大北靑」이었음에 분명하다. 북청지방은 土城官員놀이, 梧梅별달놀이, 햇불싸움등 고유 민속놀이를 여러개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북청사자놀이」는 독특하고 희귀한 민속이다.

우선 사자라고 하는 짐승이 남쪽나라 초원지대에만 살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북청지방까지 흘러 들었는지 궁금하다. 또 사자를 실제로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도 궁금하다.

이에 대해 北靑郡誌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사자는 百獸를 누르고 밀림세계를 다스려 왔었다. 거치장스러운 동물은 그의 발톱에 이슬로 사라져 갔다. 사자는 이렇게 공포의 대상인 동시에 위세당당한 야수의 畏敬을 한 몸에 지녔다. 야수권의 총수였던 사자의 위력은 마침내 증오자를 처리해 버리는 결단과 냉혹의 가차없는 즉결의 힘과 그 만의 슬기를 떨치면서 유유한 보행 속에서 일단 필요시엔 번개같은 민첩성을 발휘하여 목적을 이루었다. 이리하여 사자의 상징성은 邪惡을 용납없이 쓸어버리는 기개와, 절조를 일삼는 실력자로서 성격을 인정받게 되었다.」

북청지방의 대표적 전설 「범잡은 삼살이 마을

의 李장사]에는 사자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

「젊은이 앞에 얼룩덜룩한 큰 짐승의 가죽을 내어 놓았다. 황소보다도 더 큰 짐승의 가죽인데 젊은이에게는 호랑이 가죽으로 보였다. 그래서 세상구경이란 한번도 해본 일이 없는 젊은이는 “할아버지, 저는 산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렇게 큰 호랑이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말했다. 노인은 꺾꺾 웃으면서, “이건 호랑이 가죽이 아니다. 호랑이까지도 잡아먹는 사자라는 짐승의 가죽이며 그것도 진짜 가죽은 아니고 사람 손으로 만든 사자놀이에 쓰는 가죽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다」 (함남북청민속예술포럼발행, ‘북청사자놀음’ 대본)

다시말해 사자는 「호랑이조차도 잡아먹는」 무서운 상상속의 동물인 것이다. 그는 힘과 슬기를 겸비한 초원의 王者, 현명하고 결단성 있는 실력자로 이해되고 있다. 이 무서운 사자를 앞세워 사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年中 화평을 기원하는 무속이 싹뻗던 것이다.

北靑郡誌는 北靑人의 기질과 결들여 사자놀음의 정착을 설명하고 있다.

「北靑의 鄉民生活의 전통적인 한 특색은 淨化를 즐기는데 있다. 새벽에 울타리안을 말짱하게 쓸어, 집안을 먼지없이 던다. 이런 풍취는 북청인을 일러 청아하다는 별칭으로 부르게 까지 만들었다.

그 기질은 담백명쾌하여 表裏가 없다. 思而郎行이라 생각한 바는 그대로 행동화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런 기질 속에서 사자놀음은 마귀를 쫓아내고 1년 중의 화평과 행복을 맞아 들이는 정초의 연중행사가 되어진 것이다.

해마다 음력 정월 上元날 저녁, 세시 풍속의 하나로 행해지던 이 민속놀음은 신라 불교의 文化 속에서 이루어져 西域의 형상을 모방하면서도 그 樂士들의 樂想은 향토의 정서를 차별하게 담아 애향과 기원을 소복히 쌓아 올려왔던 것이다. 白雪 위에 明月이 교교한 밤에 寒風도 부끄럽게 男女老小가 떼를 지어 줄을 잇고, 집집마다 들안 가득 흥겨운 사자의 울동으로 번져지는 雅樂의 춤놀이는 집거하기 쉬운 冬夜에 한떨기 아름다운 훈훈한 민속의



애원성을 부르고 있는 김수석 노인

밤을 펼쳐주는 것이다」(北靑郡誌 1970년 p.264)

그러나 북청사자놀음은 외세에 대한 항거와 지배계급에 대한 풍자로 인해, 지배층으로부터 버림받은 수난의 민속이다. 다른 민간신앙에 대해서는 문자로 남기면서도 무려 1500년 동안이나 전수되어온 사자놀음은 연대기로마저도 없다는 것이다.

일제 때에도 북청사자놀음은 금지대상이 되었다. 북청인의 끈질긴 기질을 완전히 꺾지는 못해 사자놀음이 공연되기는 했지만 워낙 탄압이 심해 그 내용이 다소 부드럽게 변형되었다 한다.

사자놀음은 사자춤의 웅장성, 통소가락의 독특한 반주, 집중적으로 일원화된 구성의 특이성 대화에 흐르는 해학과 기백, 그리고 놀이에서 얻은 소득은 공익사업에 사용한 것등 젊은이의 웅장한 기백을 키우고 가난한 서민들의 공동사업 을 이룩하는 협동조직 운동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민속놀이는 北쪽에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서면서 南으로 피신하게 된다.

### 避難은 사자

이 북청사자놀음이 남한에도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순전히 金壽石翁(79세, 現 영랑동거주)을

비슷한 몇 분의 북청사람들의 노력때문이다.

都廳을 짓고 향수를 달래며 사자놀음을 즐기 시작하자 이북 5도청에서는 60년 북청사자놀음 보존회를 발족시키고, 64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수시키기 시작했다. 66년 10월 서울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제 7회 민속경연대회에 김수석옹은 같이 속초에 거주하던 오동술, 이재섭씨등이 함께 참가하여 개인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67년엔 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받기에 이른다.

70년 4월엔 북청민속예술보존회(초대 이사장 변영호)가 인가되고, 71년 김수석옹도 인간문화재 84호로 지정받는다.

이렇게 해서 북청사자놀음은 傳承地를 서울로 하여 일단 남쪽에 정착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수석옹 몇몇 속초거주 北靑人들의 공로가 대단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김수석옹은 1907년 북청읍 주평리에서 大農의 7대독자로 태어나 북청군 대성중학교를 졸업했다. 13세 때부터 사자춤을 추었으며 19세 때부터는 「애원성」 따위의 노래를 사람들 앞에 나와 불렀다. 1.4후퇴때 마흔 넷의 나이로 단신 월남

하여 이발사·어부등의 직업을 전전하며 오직 사자놀음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정열을 다했다.

또 현재 在東 北靑都廳會長인 金河翁翁(70세, 동명동 거주)도 34세때 단신월남하여 북청인들의 단합을 유도하며 사자놀음을 이곳에 뿌리내리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다.

## 고독한 사자

그래서 몇몇 人士들은 북청사자놀음이 束草를 그 傳承地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통문화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사회에서는 이미 이 고유민속이 사라져 버렸을 것이고, 또 서울의 북청예술 보존회의 활동이 민속경연대회에 시범으로 참가하는 정도의 「보이기 위한」劇에 지나지 않고 있어, 그 옛날 민중속의 진정한 민속으로서의 의미는 사실상 단절될 위기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민속의 본래 성격을 살려 정월대보름 악귀를 쫓기 위해 집집을 방문하는 「살아 있는 민속」으로 전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북출신의 실향민들로 재구성되었고, 특히 北靑郡民이 그 절반이 넘는 현실을 중시하여 束草文化院에서는 오래전부터 북청사자놀음을 이 지



틈만나면 사자탈을 매만지는 김수석 노인



함께 통소를 불며 고향을 그리는 김수석·김하륜 노인

역 고유민속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여름만해도 市内 연극인들을 대상으로 전수강좌를 시도했었으며 설악제 행사에도 서울에서 북청사자놀음 연기자들을 초대, 시연을 보이면서 그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김수석옹이나 김하륜옹은 어린시절 피부로 사자놀음을 익혔던 마지막 세대들이다. 그들이 고�령입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아직 정정하여 북청사자놀음의 맥을 놓지 않고 있긴 하지만 이제 이곳에서 그것을 정착시킬 기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음은 누구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승에는 후계자 不在라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도 未完의 상태로 남아있다. 이미

수차례 시도해 보았으나 수강생들의 의욕부족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우리 민족의 애환을 담고 살아 숨쉬던 천년전통이 단절되는 모습을 지켜 보면서 그 마지막 北靑人들은 안타까와 한다.

사자는 그래서 자기를 아껴주던 고향을 그리워하며 지금도 고독하게 울부짖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잠시만 귀를 기울인다면 저문날 잠결에 사자가 부르는 통소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때때로 의관을 갖추고 마주 앉아 부르는 北靑人들의 그 아련한 몸부림을 말이다.

내과 · 외과 · 산부인과 · 소아과

## 속 초 의 원

속초시 중앙동 478-1 ☎ 32-1011~3  
2-2145

# 北靑獅子놀이



崔琳圭 / 東宇專門大教授

## 一、北靑사자 놀이의 유래

제보자 金壽石(79세, 속초시 영랑동 4통 1반) 씨에 의하면 獅子의 형상이 인도에서 부터 중국을 거쳐 신라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오늘날 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北靑郡誌(p. 112)에 의하면 西域千里에 유입되어 新羅의 佛敎文化에서 싹이 텄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獅子의 형상을 쓰고 매년 正月 대보름을 기하여 음악에 맞춰 춤과 노래를 즐기며 집집마다 그해의 古事를 빌어주는 鄉土民俗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 二、北靑사자 놀음과 傳説

北靑獅子 놀음에 연관된 傳説로써는 '범잡은 삼사리 마을의 李壯士'와 '왜장한테 살해된 놀이꾼'이 있다. 前者의 '삼사리'마을과 '쌍성(雙城)'이라는 지명이 나오는 傳説을 근거로 하여 보면 북청사자 놀음의 起源은 700년 전으로 잡을 수 있다. 後者의 전설은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두 傳説에서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큰 의미는 惡을 용납하지 않는 獅子탈의 높은 氣概와 節操를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 三、北靑사자 놀음

### 1. 명칭

北靑獅子놀이에 대한 명칭은 '사자놀이' '사자놀음' '사자춤' '북청사자놀음' 등 몇 가지 이름들로 불리우고 있으나 提報者에 의하면 그 당시 北靑에서는 '北靑獅子놀이'으로 주로 불렀다고 한다.

그리고 文公部에 중요 무형문화재 15호로 '北靑獅子놀이'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본 民俗에 대한 명칭은 '北靑獅子놀이'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 2. 構成

北靑獅子놀음의 구성은 크게 演技者, 樂士, 臺本으로 나눌 수 있다.

#### 1) 演技者

길잡이, 양반, 꼭쇠를 비롯하여 37~41명으로 구성한다.

#### 2) 樂士

통소, 북, 장고, 팽과리를 비롯하여 7~11명으로 이루어졌다.

#### 3) 臺本

### 3. 가면, 의상, 소도구

양반은 위엄이 있어 보이는 가면을 썼는데 수염이 길고 신분에 맞는 옷을 입고 손에는 긴 담뱃대와 부채를 들고, 꼭쇠는 양반의 시중을 드는 하인의 신분에 알맞은 옷을 입고 짚신을 신었으며 다리에는 행전을 댔다. 애운성춤을 비롯하여 춤을 추는 사람들은 고깔을 쓰고 흰두루마기에 짚신을 신는다.

사자탈은 폭이 45cm, 길이가 75cm 정도의 크기로 종이를 으깨어 사자탈을 만들고 색을 칠한다. 몸체는 90cm, 꼬리는 80cm 정도로 그물에 다물감을 들인 실로 만든다.

### 4. 놀이과정

본 놀이는 2마당 9거리로 애원성마당과 사

자놀이 마당으로 양분한 다음, 다음과 같이 세 분되어 있다.

1) 애원성 마당

- ① 해 학
  - ② 애 원 성
  - ③ 사 당 춤
  - ④ 칼 춤
  - ⑤ 무 동 춤
  - ⑥ 곱 사 춤
- } 6거리

2) 사자놀이 마당

- ⑦ 사자춤과 승무
  - ⑧ 풍 차
  - ⑨ 군 무
- } 3거리

먼저 애원성 마당을 중심으로 연출되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 1 마당>-애원성 마당

㉠ 해학(諧謔)

양반, 꼭쇠, 길잡이가 등장한다. 길잡이가 구경꾼들을 헤치고 들어와 가장자리를 빙빙 돌면서 분위기를 잡아 놓자 양반을 모시고 하인인 꼭쇠가 '갈 지(之)'자 걸음으로 등장하여 꼭쇠는 양반을 상대로 익살이 넘친 대사와 흥내로 양반의 체면을 여지없이 무너뜨린다.

㉡ 애원성

악사들이 반대 편에서 들어오며 가락을 연주한다. 뒤이어 구슬픈 애원성 가락을 연주하면 애원성 노래가 시작되고 길잡이는 퇴장, 양반은 춤을 추기 시작한다.

㉢ 사당춤

애원성춤과 노래가 끝나고 남녀 한 쌍으로 된 거사춤군이 들어온 후에 한 쌍의 사당춤군이 들어와 간드러진 춤을 춘다.

㉣ 칼춤

칼춤 가락이 시작되자 칼을 휘두르며 춤을 춘다. 칼 날이 번쩍일 때마다 양반은 두려워 부채로 얼굴을 자주 가린다.

㉤ 무동춤

칼춤이 끝나자 두 쌍의 무동이 사당춤 가락에 맞춰 곱사춤이 벌여진다. 춤이 끝나자 징소리에 따라 통소가락이 잠시 중단된다.

<제 2 마당>-사자놀이 마당

㉦ 사자춤과 승무

꼭쇠가 사자를 데리고 들어오자 승무를 따라 사자가 춤을 춘다. 처음 사자는 앉아서 인사를 하고 앞뒤,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춤을 춘다. 앞발을 들고 그 늠름한 상체를 세우곤 한다.



이러한 춤 동작을 몇 번 하다가 빙빙 돌기도 하며 여러 동작을 섞어 춤을 춘다. 양반은 사자의 웅장한 춤에 탄복한다. 사자춤 증반이 끝날 무렵 꼭쇠의 요청으로 허기진 사자에게 토끼 한 마리를 던져주자 순식간에 해치운다. 그 사자는 춤을 계속하다 갑자기 쓰러진다.

다급해진 양반은 유교식으로 축문을 고하고 절을 해도 낫지 아니하자 스님을 불러 열불을 한다. 그래도 별 효용이 없자 의원을 불러 사자의 병을 진찰하게 한다. 의원이 사자의 입에 약을 넣는 순간 사자는 의원의 팔을 물고 놓아 주지 않는다. 꼭쇠의 설득으로 놓아 주게 되자 의원은 질겁하여 놀란 모습으로 사자에게 약을 다 먹인다. 이윽고 사자가 다시 소생하여 승무와 함께 사자춤 말장이 시작된다.

㉔ 풍 자

농가 한 채가 가설된 무대가 바뀌자 사자는 그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가 잠귀를 쫓아낸다고 이방 지방 들고 부엌에 들어가 바가지를 물고 나와 마당에다 팽개친다. 잠귀를 몰아내는 사자의 소동이 끝나자 영감, 할머니, 손자가 등장하여 사자에게 엽전과 쌀을 준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무병을 비는 뜻에서 사자에게 간청하여 손자를 사자의 등에 한번 태워 마당을 빙빙 돌게 한다.

㉕ 군무(넙두리춤)

넙두리 춤가락에 맞춰 양반, 꼭쇠, 영감, 할머니, 처녀, 총각동이 어울려 한바탕 춤이 벌어지고 난 후에 주위 구경군들에게 절을 하고 일렬로 서서 힘차게 두 바퀴 돌고 밖으로 나간다.



□ 특별기고 / 그리운 내고향

문풍지가 우는 종이문 속에서도 한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고 화려한 타일과 수세식이 아니더라도 편안한 뒷일을 보면서 살아왔는데...

# 어느 가을날의 断想



박 세 교 / 속초의원 원장

환절기 탓인지 종일 봄비던 환자가 뜰해지자 피로가 일시에 겹쳐 들었다. 2층 내 방으로 찾아들 때에는 석양이 맞은편 4층진물 유리창에 눈부시게 걸려 있었다.

하루가 또 갔구나.....

그러나 무사히 갔다는 안도감이 얼버무려진 채 나는 거리를 굽어 보았다. 한 눈에 들어오는 비좁은 네거리엔 여전히 봄비고 있었다. 빨갛게 또는 노랗게 형형색색의 모자를 쓰고 두리번거리는 관광객, 그 사이로 바쁘게 움직이는 시민들. 질주하는 차량과 연도에 늘어선 승용차. 확실히 거리는 활기차고 도시는 살아 움직이는 것이 분명했다.

고층은 아니지만 말끔히 단장된 빌딩이며 정돈된 가로수 까만 아스팔트와 붉은 색깔의 보도 그 위에 이따금 뿔구는 낙엽이 조금 스산한 감은 있지만 거리 골목 어느 구석에도 내 등심의 그림자는 찾을 수 없도록 속초는 몰라보게 발전해 왔다.

나는 이른바 속초에서 잔뼈가 굳었고, 성장해 왔으며 그리고 늙고 있다. 성장기간의 수업기간을 제외하고는 나는 거의 내 생애 전부를 이 고장에서 보냈다.

어느 해인가 고향심기 운동이 활발할 즈음 나는 그 말이 풍기는 "뉘앙스"를 여러 각도에서 음미한 적이 있다. 향토심이 없고, 지방색이 없는 고장이란가 객지 사람이 아무때나 발 붙이기 쉬운 말하자면 객지를 타지 않는 고장. 이 말들은 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모두가 다오합지졸처럼 모여 들어 아무렇게나 살다가 돈만 벌면 가버리는, 철새가 계절따라 머물다가 미련 없이 떠나듯, 그런 뿌리도 가지도 없는 인조 나무인가.

저 수평선의 낭만도 폐부를 찌르는 설악의 정기도, 영랑호수의 꿈도 모두가 남의 것이고 우리가 아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나는 어느 해 깊은 가을 밤, 못하는 술에 몸을 흠뻑 적시며 어느 소꿉친구를 붙들고 한탄한 적이 있었다. 소설바람에도 싸늘하게 식어 버린 콘크리트 벽에서 혹은 두텁게 짓이겨 버린 시멘트 골목집에서도 속초의 옛 모습은 사라지고 말았다.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고무장화없이는 살 수 없었던 진흙밭 속초…….

그러나 그 지겨운 골목의 발자욱 마다에는 인정이 넘쳐 있었다. 뜨내기 젊은 놈이 돈 몇푼을 노려 살인을 자행하는 치한도 없었고, 옷가게를 털고 금은방을 터는 도둑도 없었다. 문뚱지가 우는 종이문 속에서도 한 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고 화려한 타이,루와 수세식이 아니라도 편안한 뒷일을 보면서 살아왔는데 이 호화롭게 발전된 뒤안길에 이다지도 각박하고 어지럽기만한가. 거래는 있어도 인사는 없다는 살벌한 말이 생각난다.

어느날 아침의 다정한 듯한 인사도 세대가 각박하다보면 하나의 거래를 의미한다는 뜻일거다. 진실된 문안이 아니라 다음에 잘 봐달라는 일종의 확인 의식에 준한다는 뜻이 얼마나 냉혹한 인심인가.

황혼이 지고 땅거미가 질 때까지 나는 이런 엉뚱한 생각으로 물끄러미 거리를 굽어보고 있었다. 남의 덕장의 명태 몇 마리를 슬쩍해 술안주를 하며 흥겹게 떠드는 젊은이가 마침내 일큰한 기분으로 그 주인을 찾아가 사실을 고백했을 때 덕장주인의 너털웃음이 있었다면 차가운 하늘에 걸린 조각달도 웃어 주련만. 그런 애교 있고 지혜로운 젊은이와 그런 관대하고 의젓한 어른이 이 거리를 메워 준다면 설사 어판장이 흥어로 메마르고 관광객이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아름다운 거리가 포도위에 따뜻한 인정이 넘쳐 풍성하겠는데 -.

<略 歷>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64년)
- 현 속초의원 원장
- 속초고등학교 동문회장

# 내 정서의 뿌리

李 盤

열살이 되기 전부터 살아온 속초는 내 모든 가치와 정서를 형성해 준 곳이다. 그리고 감히 말하는데, "나만큼 속초와 그 주위의 구석 구석을 다녔든 사람이 있을까?" 하고 의문을 제기 하고 싶다. 물론 자동차로 나보다는 더 다녔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울진에서 고성까지 뛰어 다녔고 오색, 청봉, 미시령에서 속초앞섬까지 건거나 뛰면서 혹은 수영해서 다녔다. 그것도 수십번.

장사동에서 청호동 좁은 골목까지 내가 안다 녀본 곳은 없다. 나는 어릴 때 신발매달 소년이었고 조금 커서는 마라톤을 했으니까.

속초도 이제는 많이 변했다. 승리사진관 뒤에는 커다란 분뇨옹덩이가 있었는데, 우리들 중의 몇은 습박꼭질을 하다 그 통통에 빠진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시장 북쪽에는 매우 다정다감한 눈이 있었는데 가을이면 갈대가 아름다웠다. 그곳에서 갈대를 몇 개 꺾어들고는 우렁골을 지나 영랑호쪽으로 접어들면 교아원이 있었는데 나와 나의 동무들은 그 교아원의 부모없는 소녀의 빨간 불을 매우 좋아했다.

보광사 호랑이 할머니의 호령에도 불구하고 꽃을 따가지고 도망쳤는데 그때 칸나와 다알리아가 유난히 곱게 느껴졌다. 범바위는 우리들의 낙원이었다. 그곳에서 꿈을 키우며, 화염사에 가서 절의 쓰러져감을 보며, 옛것의 아름다움, 담담히 늙어감의 아름다움을 배우고 바위의 침묵과 냇물의 신비에 감탄했다.

그리고 어부가 되어 바다에서 오징어를 잡으며 건강한 삶, 노동의 신선함, 자연의 웅장함에

머리속일 수 있는 지혜를 익혔다. 그렇게 속초는 가난한 나에게 재산을 모은대거나 권력을 탐내는 인간으로 성장시키지 않고 철학공부를 하게 하고 예술의 길에 발을 들여 놓게 했다. 나에게 가장 많은 가르침을 준것은 속초의 자연이었다.

내가 자랄 때의 속초시내는 전체가 교육의 현장이었다. 거리에서 좀 불량하게 보이는 젊은이들이 담배를 피우면, 지나던 어른들이 가차없이 그 젊은이를 불러 세우고 야단을 쳤다. 그 어른들의 다감한 눈길과 훈시는 우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중앙교회의 교인들, 학교의 윤홍열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스승들의 가르침, 김송원 선생님의 실존문학강의, 김인극 선생님의 예술가적 체취, 이 모든 것은 우리 또래들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나를 성장시킨 속초를 위해 내가 현재와 미래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있다. 시인 이성선이와 한 약속은 50대가 되면 속초로 돌아가 소극장도 차리고, 문화공간을 확보해서 후배들을 키워 보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느 정도 준비도 하고 있다.

그런데 나폴리를 다녀와서 내 꿈은 더 커졌다. 유럽인들이 아름답다고 찬양하는 나폴리의 자연 조건은 속초보다는 못했다. 그렇다면 속초를 아름답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는 없을까? 나폴리보다 더 아름다운 도시 베스비스산은 설악보다 못하고, 지중해는 영금정 앞보다는 맑지 못하니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속초를 가꾸는데 도움을 줄 수는 없을까? 철학가 플라톤도 지금 내 나이에 "이상국가"의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상"으로 끝이 났다. 그러니 나의 "이상"도 "이상"으로 끝날 수 밖에 없겠지만 꿈만이라도 아름답아질 속초를 생각하면 절로 즐거워진다.

카프카는 "인간은 고향을 갖기 위해 타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그만큼 인간에게는 가야할 곳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지금도 중앙동 언덕위의 자그만 집에는 내 어머니와 누이동생이 살고 있다. 그리고 내가 꿈을 키우던 방, 동쪽 창을 열면 바다가 물려드는 그 언덕에는 언제나 나를 반겨주는 이웃들이 살고

있다. 아버지가 묻혀 있는 땅, 그리고 결국은 내가 묻히고 나의 어린 것들 역시 터를 잡을 그 땅에 신의 축복이 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

내가 어릴때는 청초호에서 청어를 잡았다.

그 청초호를 포도주를 먹어서라도 살리고 싶다. 내 작품의 대부분은 그래서 속초가 무대고 속초 사람들의 이야기들이다.

#### <筆者紹介>

- 李 盤 (본명, 李明洙)
- 속초고등학교 졸업 (7 회)
- 송전대 철학과 졸업
-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스웨덴 울살라대학원에서 연구
- 현, 극작가. 송의예전 교수
- 제 3 회(1979) 대한민국 연극제 희곡상 수상
- 제20회(1984) 동아연극제 희곡상 수상



연기자들과 속초어판장에서  
현장답사하는 필자(오른쪽 앉은이)

# 故郷에 대한 나의 辯



權 純 弟

해마다 설이나 추석이면, 슬하에 많은 이들이 고향엘 간다고 야단들이다. 고향이 무엇기에 그렇게 범석대는 것일까? 그러나 그 때가 되어도 고향을 찾아가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쓸쓸함이 다가오는 까닭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나는 내 고향에 대한 변을 펴며 잠시 추억을 더듬어 보고자 한다.

어떤 이는 타향의 생활전선에서 시달린 육체와 정신의 피로를 풀기 위하여, 다른 이는 께지에서 발전하고 성장한 자신을 가족과 친지에게 과시하기 위하여, 또 다른 이는 그저 그리운 이를 만나보고 추억의 마을길과 정든 동산, 그리고 마을앞 시냇물을 보고싶어, 또 다른 많은 연유로 많은 이들이 고향을 찾으리라!

고향을 찾아 위안을 얻는 이진, 자기성취의 만족을 느끼는 이진, 그리움의 회포를 마음껏 풀어보는 이진, 여타의 다른 것들을 찾는 이진간에 확실히 고향은 우리들에게 다양하고 무한한 유익한 것을 주는 곳임엔 틀림없으리라.

고향을 찾는 이들의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간에 “하천에 태어난 새끼물고기도 망망대해에서 성장하여 다시 그 하천으로 돌아온다”는 어느 어류학자의 연구발표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하물며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찾게 되는 것은 인간 성향의 하나라고 생각해도 그릇된 과장은 아니니라.

누가 나에게 내 고향이 어디냐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태어나 유년기를 보낸 곳이 강원도 고성군 서면 송탄리요, 6.25 전란으로 피난생활에 열륙진 청소년기—그러나 소중한 감사해야할 중교 교 시절들—를 지낸 곳이 속초읍 4구이이다.”

속초의 내 귀중한 추억 가운데 한가지만을 이야기하라면 그리 춥지않은 가을날이면 하학 후에 작은 소나무 몇 그루 있고 고운 잔디가 입혀진 묘소 옆에 앉아 큰소리로 책을 읽었다.

그러다 잠시 잔디에 누워 가을이 하늘을 바라볼 때면, 다시 일어서서 눈앞의 넓은 바다를 바라볼 때면 비록 내 비록 가진 것 없고, 내 제주 또한 비천하지만, 저 푸른 하늘 아래, 저 푸른 바다 위에 내 이상의 날개를 활짝 펴 보리라 몇 번이고 다짐하며 고독을 씌고 인내를 배웠으니 어찌 고맙고 소중한 나의 추억이 아니겠는가?

훗날, 프랑스 유학시절에서도 그 다짐은 피로에 지친 나에게 항상 새로운 용기를 주었으며, 유학에서 돌아와, 교단에선 지금에도 그 다짐은 유혹으로 부터, 나태로 부터, 교만으로 부터 항상 나를 지켜주고 있지 않은가? 내 비록 고향의 다른 이들과처럼 고향의 명예를 빛내지는 못할지라도, 그저 묵묵히 주어진 일에 충실하여 고향을 욕되게 살지는 않으리라 다짐해 본다.

그리운 고향, 평생도록 감사하여야 할 고향, 이 고향을 다시 생각하며 고향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어르신, 선배님 그리고 후배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두서없는 나의 변을 맺는다.

## < 略 歷 >

- 속초고등학교 졸업
- 한국 외국어대학교 불어과 졸업
- 동 대학원 불어과 졸업(석사)
- 프랑스 RENNES 대학교 유학, 불어학 연구(박사)
- KBS 프랑스 어나운서
- 주한프랑스대사관 통역 번역사
- 공주사대 불어과 교수
- 한양대학교 불어불문과 교수
- 현, 성균관 대학교 불어불문과 교수

## □ 나의 제안

## 南北往來와 期待



李相集 / 東宇專門大 教授

12년만에 재개된 남북적십자 대표들의 왕래를 주시하면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더욱 가슴에 와닿는 것 같다. 이전보다 현실적으로 더 잘 살아간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동강 난 국토에 대한 비분과 형제를 잃어버린 이산의 아픔으로 언제나 가슴이 답답하다.

세계에서 악랄하고 허위선전이 강한 북쪽정권 인줄 알면서도 이번만에는 진심이 있겠지 하는 기대감 때문에 통일의 염원을 향한 가슴 설레임을 느끼곤 한다.

방송화면을 통해 볼 수 있었던 평양 시가지는 어떻게 사는가하는 호기심 이외에 사람이 살지 않는 연극무대처럼 모여서 새로운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웃음 짓던 북쪽 대표단장이 종이 쪽지를 전해받고 갑자기 표독해지던 광경을 보고 정말 북한은 폐쇄사회이며 한 꼭두각시에 의해 지배되는 기계사회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어린 아이들을 동원한 전쟁놀이 마스크 게임에서 우리들은 북한의 날카로운 이빨에 오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들은 북한에서 획책하는 음모의 허상보다는 실상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고향방문이나 예술단교환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바램은 매우 크나 방문 자체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예측도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 우리측 수석대표가 표현한대로 북한사람들과는 엄청난 의식과 지각의 차이를 느낀다. 같

은 피를 나누었다는 것은, 긍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느끼면 모든 허물마저 덮어줄 수 있으나 다만 단일민족이라는 향수에 젖어서 우리의 목숨마저 잃을 수는 없는 일이다.

6.25 동란전 북한의뢰정권아래서 뼈아픈 경험을 겪은 우리 지역 사람들, 특히 나는 그들의 혹독함과 간교함을 잊을 수 없다. 지금도 우리 속 초시민중에는 실향의 한을 찾으며 남북통일이 되는 날 제일 먼저 고향에 달려 가겠다고 옴추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억척스럽게 벌어서 고향에 달려가 남부럽지 않게 살겠다고 오늘을 찾으며 내일을 바라보며 사는 대부분의 속초시민들이 아닌가? 첩첩이 쌓인 금강산줄기를 바라보면서 쓰라린 가슴을 부여안고 덩굴면서 통일의 소식을 기다리는 우리의 가슴에 그누가 더 깊은 상처를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바라는 지상 최대의 소원이 통일이며 최고의 기쁨이 통일임에는 틀림없으나 급하다고 무작정 달려 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

‘  
첩첩이 쌓인 금강산 줄기를 바라보며 쓰라린 가슴을 부여안고 덩굴면서 통일의 소식을 기다리는 우리의 가슴에 그누가 더 깊은 상처를 만들수 있단 말인가?’

이런 대표방문단에서 유별스럽게 나의 관심을 갖게 한 것은 개성시의 발전이다. 개성은 38선이남에 있어 국토를 빼앗긴 곳이고 속초는 38선이북에 있어 피흘려 수복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우리 속초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쾌적한 도시 구성으로 한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곳이다. 울산바위를 쪼개며 울려 퍼지는 뇌성벽력 속에서 자연의 위엄을 느끼며, 동해에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바라보며 자유의 의지를 심는다. 거리를 활보하는 시민들의 얼굴에는 화기가 만만하고 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가진다. 천진스러운 어린이들의 몸짓에서 거짓없는 진실을 발견하기도 한다.

남한은 북한에 비해 월등하게 문화와 사회가 발달되어 있다. 의젓한 자세로 그들을 대할 수 있으며 우리가 지닌 자유와 평화의 분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들이 비록 남아 빠진 공산주의이념을 고귀한 형제의 피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해도 자주 만나 자기들의 허상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일깨워 주어야 한다. 속단일지 모르나 북한사회도 어쩔 수 없이 개방의 눈을 뜨는 것 같다. 남한의 제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여성들의 옷차림도 획일적인 검정치마 흰 저고리에서 다양하게 변화된 점과 대화의 기회가 조금씩 넓혀지고 있는 점은 진일보된 점이라 지적할 수 있다.

이제 고향방문단과 예술단이 상호교환 방문하려고 한다.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에 신념을 갖고 문제해결에 노력해 보자. 지금까지 우리는 지혜와 정성을 모두어 우리의 것을 만들어 왔고 그 실적은 세계사에 기록될만큼 자랑스러운 조국으로 가꾸어 왔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나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용기일 것이다.

## 인간교육을 서두르자



文龍翼 / 농지개발조합장

해수욕철 어느 시내 버스에서 생긴 일이다. 느닷없이 “네 이놈, 어디에 사는 뉘집 자식인데 어디서 행패냐?” 하고 고향이 터져 나왔다. 차내는 순식간에 냉수라도 끼얹은 듯 조용하다. 모든 눈초리는 고향친 노인쪽으로 모아졌고 또 무슨 벼락같은 소리가 터져 나오나 하고 하회를

기다리는 눈치도 있고 어찌 저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노인이 있는가 하고 경황한 표정도 있었다. 나 자신도 그 다음 장면을 주시하고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경로석에 자리한 이 노인은 고향친 사실을 해명이라도 하듯 준엄한 어조로 다시 입을 열었다.

“아무리 말세에 배워 먹지 못했어도 이마에 피도 마르지 않은 늬이 담배불을 빌리자니 이런 망할 세상이 어디 있어…….”

물론 나이 어린 청년은 대꾸할 수도 없고 미처 몰랐던 버릇없는 짓이라고 깨달았음인지 한마디 말도 없이 친구 두사람과 함께 바로 다음에 내리고 말았다.

차중에는 남녀노소 할것없이 청년을 욕하는 사람, 노인을 칭찬하는 소리, 내집자식 걱정 하는 사람, 언젠간 자신들이 당해본 실화 한 토막씩 범벅이 되는 가운데 고향으로 훈계한 분의 건너편 자리에 앉은 노인만은 차내중구와는 판이한 활짝 발언이 시작되었다.

“이 사람 그만한 것 가지고 그리 야단인가? 자네 참 재수가 있어 우리들이 있으니까 고향이지 만약 그 청년이 행패를 부린다면 그때는 영감이 당하는 수 밖에 없어. 자네 큰집 손자놈 자기 예비를 매꼬잖어도 훈계 한번 변변히 해 보았나. 요즘 세상에서는 청이불문 시이불견(聽而不聞 視而不見)이 상책인 것으로 알게…….”

이 토막극은 예절이나 경로정신의 회박에서 연유한 버릇으로 돌릴수 있었으나 이기적욕구에서 지능적으로 고의적 범죄행위를 발각되지 않는한 반국가 사회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군중이 얼마든지 있지 않는가.

요즈음 정부에서는 국민정신 7대덕목을 정신교육의 지표로 삼고 있으며 넓은 의미에서 교육에 평생교육이니 전인교육이니 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전전한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쉽사리 얻어지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사회는 산업 도시화에 따른 개인주의 이기주의적 경제내실 추구속도를 따르지 못하는데 기인하리라 믿는다.

“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한번쯤 말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며  
맹모삼천지교를 모르는 사람은 없건만  
윤리·도덕은 어디가고 말았는가?**

”

더더욱 학교나 사회·가정교육에서 시민 덕목에 합당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 반성할 필요가 있다. 자녀를 경제적 가치증식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한다고 말하면 얼마나 지나친 망언이라 할 것이며 선생은 있어도 스승은 없다는 어설픈 속담이 얼마나 냉대를 받고 있는가? 모든 부모와 선생님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한번쯤 말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며, “맹모 삼천지교” 모르는 사람 또한 없건만 윤리·도덕은 어디가고 말았단 말인가?

財利추구를 위하여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며 국가체면을 송두리채 허물어 버렸던 모리배의 농간동 한심한 일이 한둘이었던가? 그러기에 인간은 경제적동물이라고 하나, 맹자는 일찌기 梁惠王을 처음 대하는 자리에서 “왕은 어찌하여 利를 끄집어내는 지요? 오직 仁과 義가 있을 따름이라고, 왕도 정치 즉 덕치를 펼 생각은 않고 霸道로 利를 탐하는가”고 정면으로 맞섰던 유교의 전통이 면면히 천여년을 이어 오면서 우리 선인들은 교육을 덕성 함양에 주안을 두고 가르치고 양육하여 왔으나 자연의 정복없이는 국민복지와 일용후생의 증진을 도모할 수 없다 하여—필연적이기는 하지만—과학기술의 발달은 우주의 신비를 하나둘씩 캐내고 있는 때에 덕맹의 회미해짐을 무어라 탓하느냐고 핀잔을 줄 것이나 사람이 사람다와야 함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 꾸준한 인격 왕성의 길만으로 얻어지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

도 없는 것이다. 더우기 요즘에는 태교까지 관심을 갖게 되는 이때이고 보면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재강조되어 다행한 일이기는 하나 예의니 질서니 하는 형식상 문제도 우리의 미풍양속이나 훌륭한 전통의 민족자긍과의 거리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나는 생각해 본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 그 원인은 서너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가난화 외세와 정부의 경제 제일주의 정책일 것이다. 못살았기 때문에 벌어야 했고, 자유와 평등이 황홀하리만큼 동경되었고, 35년간 경제개발에 주력한 나머지 심지어 국민정신분야를 제2경제라고 발표한 위정자도 있을 정도였으니 돈과 자유가 분별없이 판치는 사회로 변하였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겠다.

늦게나마 정부 개발정책도 5차계획부터는 사회발전 계획이 포함되어 다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교육이 지육 중심이 된다해도 덕육, 체육의 건전한 발달의 바탕위에 지가 함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 선인들은 교육하면 첫째 덕육, 둘째 체육, 셋째 지육의 순으로 힘을 기우렸다. 그런데 지금은 이 목표가 바뀌어 지·덕·체 순으로 교육을 표방 삼으니 이점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다. 무식한 도둑은 소도둑이 교작이지만 배운 도둑은 나라도둑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 빨리 서둘러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도둑맞기전에 참된 인간개발과 민주시민 정신 확립에 힘을 일이다.

# 호국보훈의 달



이 창 복 / 상이군경회 속초분회장

피로써 사수한  
이 강산위에  
우리가 사수한 핏값과  
상흔에 대한 보은을  
잊지말아야...

지난해까지는 6월을 「원호의 달」로 칭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호국 보훈의 달」로 개칭되었다. 행사내용이야 예년과 대동소이 하겠지만 근본 취지는 크게 다르다할 것이다. 즉 대국민 홍보를 호국의식 재무장과 국민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새로운 각도의 인식 제고, 2000년대를 향한 보훈행정의 일대 전환을 뜻하는 의미깊은 첫 행사인 것이다.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게 된 것이며,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스컴을 통한 홍보에 역점을 두고 국민으로부터 진정으로 존경과 추앙받는 국가유공자의 위치를 재정립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을 경주했다고 생각한다.

모든 행사가 그렇듯이 행사주간이나 그 기간 동안만은 떠들썩하게 관심을 쏟아부어 어리둥절하게 만들다가도 그 기간만 지나면 망각하는 것이 상례인것 같다.

「호국보훈의 달」행사도 예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새삼 드는 지금 태풍이 지나간 적막감같은 것을 쓸쓸히 되씹게 된다. 모든 행사가 그 취지와 목적하는 바가 있겠지만 「호국보훈의달」행사는 그 성격을 크게 달리하는 국가적인 행사이다. 다른 행사는 대부분이 문화적인 것이거나 사회질서 유지와 단순한 사회보장적인 의미의 것이 많지만, 호국보훈의 달 행사는 우리의 생존

과 국가의 존립이 불안정한 휴전상태에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 의미는 다른 행사와 같이 그저 스쳐 보내기에는 너무나 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무튼 「호국 보훈의 달」행사는 한정된 기간에 특정단체나 개인만이 관심을 가지고 치러질 것이 아닌 범국민·범국가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될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 국민의 안전육구도 충족될 것이요, 다음 단계로의 이행이 희망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리라 믿는다.

6월 한달동안 끊임없던 국가유공자에 대한 위문과 관심이 7월에 들자 언제 그런 행사가 있었던가 하는 식으로 깨끗이 가셔버린 지금 안타까움이 질게 마음 속에 깔려오고 있는 것이다. 인간사의 일면이 망각의 연속이라지만 피로써 사수한 이 강산 위에, 우리가 사수한 그 피 값과 상흔에 대한 보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점점 희미해져 가는 국민의 보훈의식을 다시 되살려 이 나라를 지키고 선진조국 창조라는 신앙을 일궈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p><b>현 대 약 국</b></p> <p>약사 : 尹 鍾 九</p> <p>속초시 동명동 466</p> <p>☎ 2-2533</p>
--

# 反共運動의 새로운 方向



金永根 / 반공연맹속초지부 사무국장

同族相殘의 悲劇 6.25 35주년 오늘, 南北對話가 활발한때에 즈음하여 反共意識의 새로운 무장을 어떻게 해야만 옳을 것인가?

1953年 7月 27日, 勝者도 없고 敗者도 없는, 3年餘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 국토는 초토화된 채 휴전이 되었던 것이다.

地球上에서 適對置下에 가장 오랜 傳統을 낳고 있는 155마일 休戰線, 비무장지대에 南侵略 땅굴을 수도없이 파헤쳐놓고 호시탐탐 赤化野慾에 망상하고 있는 北韓 共產集團, 저들은 南北會談을 진행하는 “테이블” 아래를 괴뢰집단의 근성을 못버린 채, 비싼 외국산 굴착기와 강제노동으로 수 없이 많은 사병들은 희생되어도 아랑곳없이 밤낮으로 파내려온 것이다.

북괴의 양면, 僞裝平和 “제스추어”는 오늘날 大韓民國 國民이라면 모르는 분(그분은 좀 이상하지만) 아마 철부지 연소자 빼놓고 한 분도 안계시리라

고 믿는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너무 겸손해서인지 아니면 너무 쓰라린 6.25의 상처가 회상하기 싫어서 억지로 망각할 수만 있다면 잊으려고 애를 쓰는 것같아서 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필자도 어떤 때는 안타까울 때가 있다.

해마다 6.25는 시간과 공간을 헤치고 찾아온다. 저만치 6월이 오면 가슴이 메이고 나도 모르게 반공호국영령들의 원혼이 자주만 내 마음속을 어둡게 하고 내 가슴을 친다.

“잊지말자 6.25”

對共要員만 간첩을 잡는것은 아니다. 온 國民 모두가 對共要員이요, 간첩을 신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수상한 사람이나 상식밖에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곧 바로 113을 돌려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살기 좋은 체제가 어느 세계사 속에 기록되어 있겠는가?

自由, 좋다.

民主, 좋다.

그 自由와 民主主義, 그것을 얻고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先烈과 호국영령들이 투옥되고, 학살되고, 희생되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렸는가? 그래도 民族의 平和結一과 生存의 의미와 先進祖國 創造에 同蔘할 의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듯이 솟아 오르지 않는 우리 국민은 한 사람도 안계실줄 믿는다.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미련없이 조국의 자유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草露와 같이 던질수 있었던 崇高한 反共精神을 본받을 줄 아는 國民임을 또한 그 배달민족의 저력을 우리들은 믿고 싶은 것이다.

최근, 우리 社會의 일부 학생들의 태도는 어떤가? 體制自體를 부정하고 도대체 어디까지 물에 띄워야 할 배를 山으로 몰고 가고자 야단들인가? 모든 동료, 친구들, 부모 형제 자매들이 달가와 하지 않으니 너무 극열해지고,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스튜던트 파워”. 이미 선진국들이 겪은 열병같은 것이 아닐까. 그런데 유일하게 政府를 전복한 “4.19” 학생의거야말로 “스튜던트 파워”의 가장 성공한 위대한 민주주의의 희생이었다고 하지만, 그때는 모든 國民의 지지와 성원이 바탕에 깔려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 아닐런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은 세계의 모든 흐름이 自國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제까지의

●내고장 선각자●



독립만세를 선도한 애국지사

# 李錫範

李錫範 / 字士一 號雪樵

公은 咸平人으로 明宗때 양양府使 李春齡의 後裔로서 一八五九年 儒林의 家門인 양양 抹泉里에서 태어났다. 世稱 雪岳山이 생기고 그 精氣를 받은 唯一한 人物이라 하였으며 豪蕩한 性格에 不屈의 鬪志를 가지고 愛國心이 透徹하였다.

일찌기 父母를 따라 道川面 中道門里(現 道門洞)에 移居하여 學問을 닦아 一八八四年 高宗甲申에 初試 及第하고 東學亂때는 反東學軍을 組織하여 甲午義兵將으로 活躍한 傳統的인 儒學의 人物이다. 主로 漢學을 工夫하여 漢學의 大家로서 名聲을 날리고 胥기만만한 壯年時節인 一八九九年에 中樞院議官을 거쳐 一九〇五年 軍部主事兼軍器廠技手에 任命되어 國政의 審議에 參與하여 土匪를 平定하고 神興寺를 破産에서 復古하였다.

그러나 公은 1910年 日帝의 殘惡無道한 合併統治에 痛憤을 禁지못하고 벼슬을 버리고 落鄕하여 隱忍 自重하여 오딘중 뜻하는 바 있어 初代道門面長에 暫定的으로 歷任하고 開化의 文物에 눈을 돌리어 大浦港을 크게 開港하여 物物交易의 經濟港으로 發展시키는데 獻身하였으니 참으로 先見之明이 있었다.

그리고 一九〇八年 및 一九一三年에는 當時 양양郡守 南宮樞 또는 道川面民과 더불어 양양峴山學校와 道門雙川書塾을 設立하고 後進의 養成에 힘써 抗日精神을 敦吹하는데 盡力하였다.

一九一九年 三月一日 亡國의 쓰라림 속에서 高宗皇帝의 國葬에 參禮하여 孫秉熙 등 三十三人이 唱導한 已未 獨立萬歲運動을 目見하고 下襄할때 獨立宣言書등의 文獻을 伯선속에 숨겨 가져왔다.

이에 그의 동생 前宮内部主事 國範과 謀議하고 長子 能烈(載勳) 次子 東烈(載炯) 그리고 族孫이되는 敎完 敎員등을 主動者로 하고 門生 中道門出身으로 金英經, 李鍾國 등 五

## 제20회 설악제를 결산하면서



김종록 / 속초문화원장

설악제는 1966년초 설악산이 좋아 東草에 오셨다는 李基燮 博士가 매주 토, 일요일 마다 萬事를 제쳐놓고 가족과 젊은 男女青年들과 함께 登山을 즐기며 깨끗한 공기와 山의 신비로움을 만끽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설악의 품에 안겨있는 우리 市民들이, 설악의 절경을 널리 알려 登山人口의 底邊擴大와 觀光客 유치에 한몫을 하기 위해 설악제를 시작한 것이 현 20회로 성년이 된 것이다.

당시 설악산악회에는 李基燮 博士를 중심으로 하여 尹洛淳, 朴永植, 白永一, 金仁烈, 朴弼明, 筆者 등 여러분들이 있었다. 각 職場山岳會가 조직되어 東草市廳, 法院東草支院, 檢察東草支廳, 各級學校, 商業銀行東草支店 등이 참가하였고, 그 밖에도 道單位 기관장 및 李殷相, 李崇寧, 方一榮, 李考祥씨 등 중앙에서의 많은 元老들과 全國各地 山岳會, 外國人 등 100여 단체의 수천명이 참가, 성황을 이루었다.

行事로는 登山大會는 물론이고, 정고평 無名勇士碑에 헌화도 하고 산악인들의 무사고를 기원하기도 하였으며 용사비앞 광장에서 모닥불을 해놓고 남녀노소 한마음 한덩어리가 되어 밤을 지새우기도 하였다.

또 登山王도 선발, 시상하여 명실공히 전국행사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었다. 마지막날 市廳廣場에 모여 五色燦爛한 복장에다 등산장비를 완비하고 市街行進을 하는 광경은 참으로 장관이었다.

제17회 때부터는 市民의 날 行事を 병행하기로 결정하여 각종 체육대회를 함께 하게 되고 제19회 때부터는 옛 조상때부터 내려오던 傳統民俗놀이를 곁들이게 되었다. 현대 모든 市民行事に 있어 민속놀이행사가 없이는 그 행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全市民이 同參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民俗競演大會는 2년째가 되는 제20회 설악제에 완전히 정

착되어, 登山大會와 市民體育大會와 더불어 8만 市民의 대화합의 행사로 승화발전되었다.

제20회 설악제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 까지 4일간 거행되었다.

전야제로 속초여고 학생들의 祭燈行렬과 영랑국민학교와 중앙국민학교의 고적대 행렬에 맞추어 폭죽 수백발이 오색 찬란하게 하늘을 수놓았고, 또 收復塔 앞바다에서는 수십 척의 어선들이 불을 환히 켜놓고 港口를 수놓으니 이야말로 壯觀이 아닐 수 없었다.

10월 1일은 설악산 소공원에서 온 東草市民과 산악인들의 무사고를 염원하는 산신제가 엄숙히 거행되었다. 산악인과 관광객들도 함께 참가하여 제를 올리고 음식도 나누어 먹었다.

예년과 달리 완전 하루를 民俗行事日로 하고 東草中學校庭에서 시작하여 수복탐을 경유 공설운동장까지 행진하며 한마당씩 놀아대니 말그대로 축제였다. 아마 우리 속초가 개항

## 설악제를 결산하면서

한 이래 처음보는 광경이 아닌가 한다.

가두행진중 市民들의 열띤 박수와 흥겨운 어깨춤은 體內에 조상의 피가 맥맥히 흐르고 있음을 단연 엿볼 수 있게 했다. 운동장 공개행사에서 洞마다 준비한 민속놀이를 경연하며, 洞에서 나온 응원단들이 쏟아놓는 장기를 또한 보기에도 흐뭇했다. 시연으로 출연한 束草女中學生 200여명의 강강술래와 雪岳女中學生 200여명의 리듬체조도 조화를 이루었고, 人間文化財 金壽石翁이 이끄는 北靑사자놀이와 대포국민학교의 농악대, 무용학원 꼬마들의 화관무와 부채춤의 손놀림 등에도 모두 감탄과 회열뿐이었다. 북청사자놀이는 6.25로 합경남도 北靑인들이 피난나올 때, 사자놀음도구 일체를 가지고 나와, 향수를 달래기 위해 명절 때마다 이곳에서 재연해 왔던 것이다.

초중고 학생 300여명이 참가한 白日場도 성황리에 거행되었고 登山大會도 많은 참가단체들로 인해 대성황을 이루었다.

그외 줄다리기, 그네뛰기, 씨름, 물동이 이어나르기, 쌀가마니 겨나르기, 노인들의 옛따먹기등 민속행사와, 배구·축구 제주·마라톤등 체육행사로 설악제는 절정을 이루었다.

그뿐 아니라 모든 경연과 경기를 마치고 난 후 시상직전의 「한마당놀이」는 이번 설악제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압권(壓卷)이었다. 이 한마당놀이는 각 洞에서 출전한

선수, 임원, 洞民들과 각 기관단체장들이 가면을 쓰고 주악과 농악에 맞추어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막론하고 한바탕 어울리는 것이다.

이는 내일을 위한 활력소가 되고 같은 市民으로서의 우정을 나누며 친근한 벗이 되게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제20회 설악제는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깊다 하겠다. 지금까지는 市長이 중심이 되어 官主導로 행사가 이루어져 왔으나 이번에는 民主導로 전향하기 위한 整地作業으로 전문단체별 주관으로 행사를 치루어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그로 인하여 각 동에서는 洞單位 설악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명년도 행사를 위하여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설악제가 일시적 행사가 아닌 진정한 화합의 행사로 뿌리 박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20회 설악제를 결산하면서 본인은 다음과 같은 方向으로 행사가 보완 발전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一、앞으로의 설악제는 民主導로 정착·발전되어야 한다.

一、주민의 경제실정에 맞게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一、설악제 등산대회를 좀더 확대, 보다 많은 등산 인구의 저변확보를 꾀해야 한다.

一、산신제는 山神을 降神하여 행사장 부근에 설치하고 全市民이 소원성취를 비는 제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一、한마당놀이는 地方有志, 기관장, 단체장, 일반서민 등이 격의없이 한바탕 어울릴 수 있는 진정한 화합의 장으로 내용을 충실히 키워야 한다.

一、각급 학교에서도 대거 참여하여 명실공히 全市民의 행사가 되어야 한다.



민속경연우승팀에 시상하는 文化院長



산신제를 올리는 광경

一、민속경연에 있어 역사성이라든지 고증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해 주어야 한다.

끝으로 한마디만 덧붙인다면

「雪岳祭」라는 호칭을 「雪岳文化祭」로 개칭하기를 제의한다. 이는 설악제가 단순한 등산대회나 체육대회가 아닌 향토문화행사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더욱 설악제는 문화행사 위주로 발전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대내적으로 우리가 문화시민임을 자각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이를 널리 홍보할 수 있을 것이다.



민속경연대회모습

# 자매도시 그레삼市를 방문하고



최 용 철 / 속초시 시정계장

미국 오레곤주 그레삼시를 방문하게 된 것은 '85년 6월 23일 그레삼시장과 그레삼시 자매시 위원등 14명이 속초시청을 내방하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조인식을 가졌던데 대한 답방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마가렛 웨일 그레삼시장의 초청으로 9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10일간 양종석 시장님과 차진환 평통협의회장, 김태영 시정자문 위원장, 김종록 문화원장, 윤종구 새마을지회장, 김정문 올림픽 추진위원장, 신영철 수협장, 김성기 강원일보기자 등 9명으로 구성된 시대표단이 양 도시간의 우의 증진과 선린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방문하게 되었다.

속초市와 그레삼市 간에 자매결연을 맺게 된 것은 속초시가 설악산을 가지고 있고, 그레삼시가 후드산을 가지고 있는 유사성으로 처음에는 속초 소재 동우전문대학 이사장 전재욱씨와 미국 오레곤주 클라크 대학 정치학과장 하만경 박사 간 친분관계에 의한 민간차원에 논의되었었으나 그 후 양도시 시장간에 서신과 선물교환으로 발전되어 '85년 6월 23일 속초시청 회의실에서 양 도시

시장을 비롯한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조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레삼시는 미국 오레곤州 북단에 위치하여 州의 수도인 포틀랜드시의 위성도시로서 38km<sup>2</sup>의 면적을 갖고 있으며 주요산업은 임업 및 항공산업과 관광이 주를 이루고 있고, 관광자원은 스키, 등산 관광지인 후드산과 절벽, 협곡, 폭포가 있는 고즈협곡과 콜럼비아강에 인접된 아름다운 지역이다.

자매도시 방문기간중 환영식과 친교행사를 9회에 걸쳐 335명과 가졌으며 후드산을 비롯한 관광지 8개소와 주요시설 10개소를 시찰하였다. 시대표단이 방문하는 관광지마다 환영 프래카드와 태극기를 게첨해 주었고, 그레삼시장과 자매시위원들이 우리 일행과 함께 여행하면서 뒷바라지를 해주었을뿐 아니라 대표단 일행이 묵은 호텔마다 호텔측에서 환영 만찬을 베풀어주는 등 극진한 예우를 다해 주었다.

로스엔젤레스에서 웨스턴 에어라인 편으로 12시 5분에 출발하여 그레삼시에 도착하던 9월 16일에는 포틀랜드 국제공항까지 환영을 나온 마가렛 웨

일 그레삼시장과 레이몬드 켈 오레곤주 명예 총영사를 비롯한 자매시위원들과 공항 귀빈실에서 인사를 나눈 후 곧바로 미국측에서 준비한 차에 편승하여 그레삼시에서 지정해 놓은 코취멘호텔로 향했다. 향하는 도중 시가지 곳곳에 우리대표단을 환영하는 프레카드가 게시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 일행은 호텔에 여장을 풀 후 잠시 자유시간을 가졌고 저녁에는 교민 박낙순(Harry W.Park)씨 집에서 교민 및 그레삼시측 인사들과 우리나라의 전통음식으로 준비된 만찬을 나누며 우리의 개발상을 소개하는 등 처음 만난 교민들과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교민들에게는 우리나라의 개발상과 발전된 모습을 바르고 빠르게 전해 주어 그들이 긍지를 갖고 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밤 늦게야 숙소로 돌아왔다.

도착하던 다음날인 9월 17일에는 친교행사로 키와니스 사회봉사단체와 레이몬드 켈 오레곤주 명예총영사, 자매시 위원회 주최 오만찬등에 참석하였다.

시설은 1891년에 시설되어 6개의 도크를 갖고 최대 8만톤 규모의 선박을 도크할수 있는 포틀랜드 항만과 1903년에 건축된 미국 전통 가옥인 피륙맨션을 시찰하였다. 여기에는 당시의 건축양식과 가구 등이 잘 보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레곤주지사 부인이 사용하던 침대가 기증되어 유물로 보관되고 한 자원봉사자가 찾아 오



현지신문에 보도된 방문단 기사

는 관광객들에게 안내하는 것을 보람으로 생활하는 면을 볼 수 있었다.

속초시 대표단을 위한 환영식은 19시부터 21시까지 그레삼시청내에 있는 시의회 회의실에서 한국측에서 시대표단 9명과 교민 50명, 그리고 미국측에서 빅터아티에 오레곤 주지사를 비롯한 오레곤주 명예총영사등 귀빈과 시장, 시의회 의원등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식과 환영연 그리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국가 국기는 미해병대 기수단이 들고 미국 국가는 그레삼시장 아들 데븐 웨일이, 우리 애국가는 교민 김석두 씨가 불렀다. 대표단에 대한 꽃다발 증정에 이어 그레삼시장의 환영사와 속초시장의 답사가 있었으며, 환영행사를 더욱 뜻깊게 하기 위하여 오레곤 주지사의 축사와 속초시 대표단에게 뜻있는 기념품이 증정되었다.

속초시장도 설악산 4계절 사진과 설악산비디오 테이프를 주지사, 명예총영사, 시장, 시의회 의원들에게 증정하였으며 특히 환영행사에 미해병대 기수단과 언론매체가 동원되어 환영식이 미국관례상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현지 교민들은 자부와 긍지를 가지며 기쁨을 표시해 줌으로써 민간 외교로 자매결연을 통한 상호 방문이 상당한 성과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방문 3일째인 9월 18일에는 소름토미스트 여성단체 초청조찬에 이어 보잉항공사 포틀랜드공장과 1900년에 설립된 보이드 커피회사 그리고 그레삼시 전철시설을 견학하였다. 전철시설은 미운수성이 1964년도에 미국도시집단 교통망 건립계획으로 수립한 사업의 일환으로 '84년 1월부터 '85년 8월까지 총 24km를 시설한 것이다. '86년 9월 운영을 목표로 시설

의 미비점을 보완키 위한 시운전을 하고 있었으며, 시대표단 일행은 전철을 직접 타고 견학을 하였다.

저녁에는 그레삼시 교외에 위치한 슈미즈씨 농장에서 가진 그레삼시 상공회의소회장 초청 만찬에 참석하여 그레삼시 상공인뿐 아니라 포틀랜드시 상공인들과도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날의 환영행사에는 대표단을 위하여 특별히 승마와 포크댄스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韓·美간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한 밤이었다.

대표단 일행이 행사를 마치고 박낙순씨 댁에서 잠시 휴식하며 첫날에 만났을 때 못다한 정담을 나누는 동안 자매결연 조인식차 속초시를 방문 했던

그레삼시장의 자매시위원 12명이 찾아와 자매시위원인 베티 웨든 여사가 속초를 왔다가 돌아갈 때 지은 「우리의 마음을 한국에」라는 시에 곡을 붙여 노래로 들려주기도 하였다.

9월 19일에는 라이온스 초청 조찬에 이어 마운드 후드대학을 방문하였다. 이 대학은 200에이커나 되는 본관을 갖고 매년 8,300명이 등록되어 49개 학과에 20,000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는 기술전문 대학으로 400명의 전입교수와 직원이 52가지의 직업기술 프로그램과 완벽한 실험기구 및 운동 시설을 갖추고 과학 및 건강, 실험 및 기술, 학생발전, 일반사회 교육등을 실시하는 곳으로 일반대학을 다른 사람들의 일반직장 재교육기능도 담당하고 있었으며, 태권도는 이 학교의 체육과목으로 채택되어 널리 보급되고 있었다.

우리 대표단 일행은 오후부터 후드산관광에 들어가 후드산 2,800m에 위치한 톱벌라인 토지에 투숙하게 되었다. 국립 식물보존지구인 후드산은 해발 3,427m로 美농무성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며 정상일대는 만연설로 뒤덮혀 있어 년중 1,000천인의 일반관광객이 찾고 있었다.

후드산 산록 수목 생육 한계선에 위치한 톱벌라인 토지는 1937년 루우즈벨트 대통령이 노동자들의 휴식처로 하사한 곳이다. 1975년에 개축하였으나 1936년 건축공사 당시 종사자들의 이름을 각 방에 붙이고,

우리의 마음을 한국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한국에 남겨 두었네.  
언덕위에 높이서서 나를 부르는  
한국에 우리의 마음을 남겨 두었네.  
조그마한 케이블카는  
별들을 향해 절벽길을 기어 오르고  
저녁안개는 나에게 영감을 주노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한국에 남겨 두었네.  
우리의 친우들을 찾은 속초에서  
양시장은 제일 먼저 앞장서고  
그들 돕는 이들도 그를 뒤따랐네.  
추억은 완전히 뒤섞이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한국에 남겨 두었네.  
얌전하고, 친절할 얼굴을 한  
나를 불러준 친애하는 전박사는  
결코 다시 잊을 수 없는 이  
우리는 그의 보살핌과 그의 우아함을 사랑할지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한국에 남겨 두었네.  
그것은 꿈이 아니고 현실이었네.  
우리는 경이로운 매력을 사랑하고  
모든 농장들을 사랑하고  
친절함에 감사하도다.

우리가 한국에 있는 그대들에게 돌아갈 때  
우리의 우정은 다시 새롭게 시작되리.

장식도 사전 설계가 없이 현지에서 임의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소, 사슴등의 조각품도 작자들이 현지에 출장하여 장식한 건물로, 방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용하였던 나무의자를 기념 표시하여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우리 대표단 일행은 여기서 하루를 묵으면서 미국측의 특별 배려로 준비된 눈위로 갈수 있는 차량인 카타필라를 타고 후드산 정상을 관광했다.

9월 20일에는 미 연방정부에서 인디안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600천에이커내에 있는 "카니타"지구를 관광하였다. "카니타"에 인디안 전통 가옥과 유명한 야외 온천 풀장이 있어 연중 관광객이 끊이지 않았다. 인디안들은 사막지대인 보호구역에서 사료(목초) 재배와 말, 방목 등으로 3개종목 2,600명이 살고 있으나 종족 확대를 위하여 자녀를 다산한 가정에는 연말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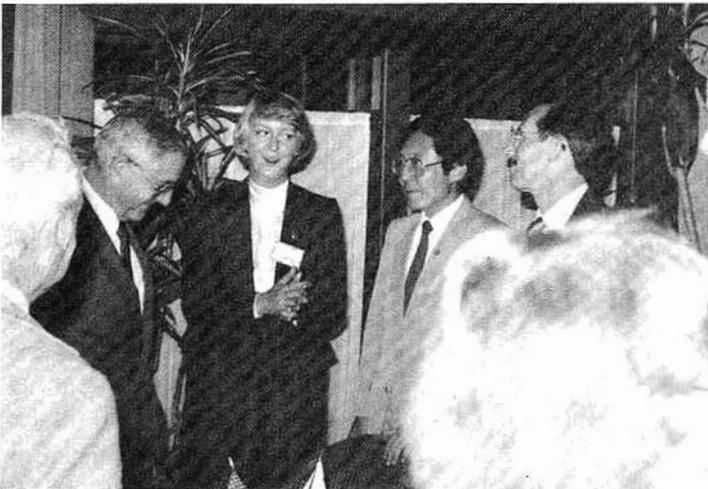
그레삼市 의회전경

제도도 갖고 있었고, 인디안내의 자치는 3개 종족대표 모임에서 모든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고 추장은 인디안 문화와 민속 보존에 임무를 갖고 생활하고 있었다.

우리 일행은 카니타에 이어 9월 21일에는 콜럼비아강을 유람선을 타고 관광하였다. 콜럼

비아강 2,031km에는 본빌·달라스·존데이등 3개 댐에서 5백만kw의 전기를 발전하고 있었으며 본빌댐에서는 나일강의 2배나 되는 수량을 도용 하여 은연어 부화시설을 갖고 있었다. 1909년 부터 운영되고 있는 본빌산란장은 오레곤州에서 제일 크고 오래된 곳으로 6백만~11백만마리의 부화 능력을 갖고 있으며 어직에는 거센 물살에도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시설되어 있었다.

연구시설로는 어도를 통과한 연어들을 수중 관찰시설을 통하여 연어의 종류와 수량을 체크하고 있었으며 각종 과학적 자료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 본 시설 견학은 금후 속초시 내수면개발에 참고가 되었다. 콜럼비아강은 유람선을 타고 관광한 후 콜럼비아 강변에 있는 189cm의 말트노아 폭포를 보는 것을 마지막으로 5박 6일



오른쪽 두번째부터 오레곤주지사, 그레삼시장, 속초시장



간의 그레삼시 공식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포틀랜드 공항으로 향했다. 우리의 교민들과 그레삼시장 및 자매시위원들과 석별의 인사를 나누고 오후 6시 55분 웨스턴 에어라인 편으로 로스엔젤레스로 귀국 길에 오르게 되었다.

자매도시 방문을 통한 환영 행사와 친교행사로 인해 미국 서북부의 잘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 나라를 널리 알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민들의 지위 향상과 한국교민으로서의 긍지를 새로이 심어 주었다. 미국사회 지도층과 사회단체원에 대하여

그레삼市民들과 우의를 다지며는 우리의 안보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을 고취시키고 우의를 증진하였으며, 민간차원에서 교류확대 기반을 조성하고 또한 지역개발을 위한 건문도 넓혀 이제 양 도시의 우호와 협력이 새로운 차원에서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였다.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우리의 실질적인 이익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학생교류에 의한 인재양성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보다 나은 내수면 개발 기술을 교환하여 소득을 높이며, 상설홍보관을 그레삼시에 설치하여 우리의 관광지와 토산품을 홍보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한편 민간으로 "자매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류를 영속화하여 모처럼 맺은 자매결연이 속초시 개발과 주민소득증대등 지역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교민들과 함께

내고장 소식



잼버리대회 유치

제17회 세계 잼버리 대회가 국립공원 설악산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우리 고장 발전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오는 91년 7월 30일부터 8월 7일간(8박9일) 신평지구 5백만평의 야영지에 1백20여개국에서 3만5천명의 대원과 학부모, 관광객, 보도진등 8만여명이 참가해 세계속의 한국을 마음껏 펼쳐 보이게 된다.

대회개최 의의는 ① '86.'88 올림픽에 이은 세계속의 한국 재확인 ② 2천년대 선진 조국 창조의 기반구축 ③ 스카우트

를 통한 2천년대 주인양성및 외교활동강화 ④ 한국 전통문화 소개로 외화수입증대이다.

대회장의 입지조건을 보면, ○야영자원 - 자연 및 인공조원 245만평 ○수자원 - 2개계곡천의 영지내 관동 ○산악활동자원-주변에 야산 및 험산 125만평 전개 ○수상활동자원-자연호수 및 인공 호수 보유 ○해상활동자원-봉포(鳳浦)해수욕장 ○항공활동자원-속초비행장 등이다. 이같이 산과 바다와 호수를 교루안은 최적지로 대회 소요예산이 1백11억8천9백만원 추정이며 외화수입 43억5천만원에 정이니 가위 대회규모를 짐작케 한다.

KAL 東草-日本부정기운항

대한항공은 속초-일본간 부정기항로를 개설, 설악산관광지 소개와 외화획득에 크게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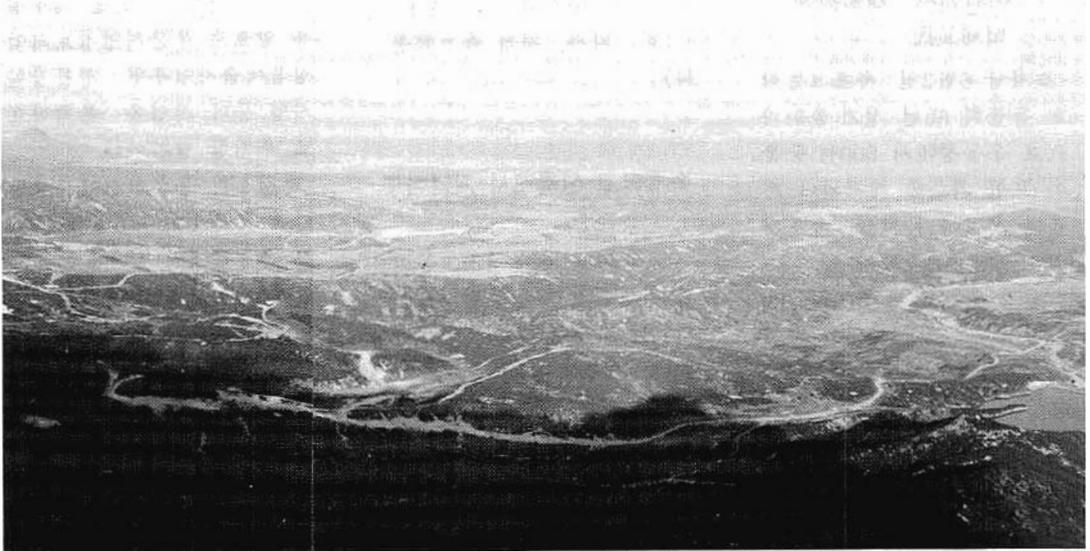
바지 하게 됐다.

속초-나고야간을 10월 25일 첫 취항, 이날 일본관광객 77명과 승무원 8명이 F28 제트여객기로 들어 왔었다.

교통부는 일본항로 개선을 위해 총공비 39억원을 투입해 비행장청사를 3백10평 크기로 증축했으며 종전 활주로 1천2백20m를 1천5백60m로 연장하고 TVOR항공기접근유도장치를 시설, 종전 연간 결항률 18%에서 9%로 낮추게 했다. 주기(駐機)능력 F27기 1대에서 F28기 2대가 가능하게 됐다. 속초비행장 확장으로 인해 외국인의 연간 수송능력은 7만명에서 17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제3회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개최

6월 14일부터 이틀간 공설운동장과 학생체육관에서 제3회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



91년 제17회 세계 잼버리대회가 개최될 신평지구 전경

회가 개최되었다.

모두 21개 시군에서 1,987명이 참가하여 민속놀이·민요·농악·민속극 부분의 경연을 벌였다.

속초시는 「속초 산대소리」로 출전하여 도지사상인 종합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의 유치는 속초를 전국 제1의 선진관광지로 부각시켰을 뿐아니라 향토문화 도시로서의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미실령 도로 확포장

올해 IBRD차관 19억원을 들여 26km 구간중 노학동 학사

평을 기점으로 8km를 우선 확포장하게 된다.

오는 87년말 미실령 도로가 확포장되면 한계령을 경유할 때보다 35km나 단축돼 서울에서 속초까지 운행시간을 1시간 앞당길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항공노선도 영남지역과 개설, 제트여객기가 운항하고 있으며, 항만개발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돼 87년 이후에는 1만톤급 2척이 동시접안이 가능해져 한일간 정기여객선의 취항도 기대된다.

육·해·공 3면의 교통망은 오는 88년을 전후해 완전히 결실을 보게 된다.

尺山과 大浦에 대단위 위락시설 유치

현재 척산은천지구 개발이 건설부의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온천지구 시설결정 용역중에 있다. 올해 안으로 개발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완료하고 '87년말까지는 완공시킬 예정이다.

또한 대포동 외용지도 유원지로 가꾸어,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속초해수욕장과 연결 종합레저타운으로 개발된다.

同門會소식

束草高等學校 同門會  
임원개선, 새회장  
박세교氏

○ 지난 6월 2일 속초고등학교 동문회 85년 정기 총회가 모교 운동장에서 500여 동문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어 제 6대 회장에 朴世教 속초의원 원장을 선출했다.

신임 박세교 동문 회장은 취임사에서 약 3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교지발간, 장학금 지급, 운동부 지원 등의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 회 장 박 세교(3회, 속초의원 원장)

• 부회장 김 두형(3회, 수산업), 김 봉만(4회, 수산업), 김수하(5회, 사법서사) 안 홍신(6회, 약사), 한 기증(7회, 수산업), 최 광철(2회, 의사, 제경 속고동문회)

속초여고 신축교사 기념식수

○ 4월 24일 속초여자고등학교 신축교사가 완공된 바, 동문회에서 주목 2그루(20년생)를 기증했다.

○ 6월 23일 '85정기 총회에서 임원개선이 있었다. 신임 회장엔 김금자씨가 부회장엔 한성열, 이옥인씨가 각각 피선됐다.

속초상고 동문회 현판식

○ 10월 19일 시내 교동에 동문회사무실을 개설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동문 사무실은 앞으로 동문취업정보사업 청봉예술사업후원, 청봉장학사업 등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제 1회 동문회장이 쟁탈기별 체육대회가 5월 26일 모교 운동장에서 400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우승은 6회가 차지.

종합건재상

계림상사

대표 : 이주한

속초시 중앙동 1/3 ☎ 2-2887

# 在京 東草高等學校 同門會의 오늘



崔光哲 / 의학박사

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서 공부할 때는 동기 동창 몇 명만 만나 지나곤 하였다.

62년 서울대 치대를 졸업하고 종합병원에서 인턴과정을 마치고 軍醫官生活을 마치고 다시 서울대학원에 박사과정을 하면서 민생고해결을 위하여 開業을 시작했다. 정말 눈코 뜰새 없이 살기가 분주했었다. 이력저력 세월 속에 파묻혀 지나가다 보니 안정이 된듯 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옛날 약관의 젊은 시절에 같이 놀던 친구들 그리고 선후배들과 대화도 나누고 시간적 여유도 있었다.

지금부터 약 10여년전의 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두 사람의 선후배 및 동료들 만나다 보니 개인의 醫院을 갖고 있는 우리 치과에서 자주 만나게 되어 수십명의 동문들과 대화를 가지게 되었다.

그때 선배로서 1회 李廷任, 2회 李相弼, 金三鳳, 3회 金憲傑 그리고 후배로서는 尹錫權, 鄭炳吉, 金黃龍, 李順福, 盧光福씨등 많은 선후배들이 뜻을 모으기 시작하여 수차례의 각기 대표들과 만나 同門會를 결성키로 마음을 가지고 드디어 76. 5. 8. 중구 "대림정" 한정식 식당에서 108명이 모인 가운데 創立總會를 열어 오늘에 와서 눈부신 발전을 하여 왔다. 이는 우리 동문들의 선후배 및 동료들의 단합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그후

一次總會	76. 11. 3.	동국대학교	104명	참석
二次總會	77. 11. 3.	용문중학교	74명	"
三次總會	78. 11. 7.	중구 "대림정"	98명	"
四次總會	79. 11. 1.	"	105명	"
五次總會	81. 11. 3.	영동고등학교	101명	"
六次總會	82. 11. 3.	"	103명	"
七次總會	83. 10. 20.	풍전호텔	153명	"
八次總會	84. 10.	"	305명	"

그리고 初代會長에 1회 李廷任, 二代會長 金敏熙, 三代會長 李相弼 선배님들 뒤를 이어 四代會長에 취임되었다.

그당시 선배들께서는 회장직을 안맡으려고 이리저리 핑계만 하다가 후배들의 강력한 요망에 피할길 없었다. 우선 연락사무실이 있어야 겠기에 저의 치과의원에 예나 다름없이 동문들의 연락소로 지금도 쓰고 있다.

모교의 발전상을 보면 33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다. 人生을 70으로 活動期를 본다면 중간정도의 성인의 시대에 도달했다고 본다. 그런데 너무나 미약하고 活動이 적은 동문회 입에는 틀림없다고 자가비판하고 싶다. 지금 서울에는 會誌에 수록된 회원만 1,500여명인데 아직까지 1000여명 이상을 더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동안 우리는 선후배간의 존경과 사랑으로 굳게 뭉쳐 本會의 育成發展과 地域社會開發 및 母校育成에 힘써온 것만은 사실이나 그 결과는 원

하는 만큼 큰 결실은 없었던 것은 자인하고 있으나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데 힘을 모아야 겠다고 본다.

그동안 중요한 사업으로는

1) 각기 同期同窓會 육성 활성화 그리고 회원 찾기 운동에서 활발하고 뜻깊었던 것은 사실이다.

2) 1980년 처음으로 회원수첩을 발간하여 많은 동문들의 호응속에 널리 배부되었다.

3) 매년 서울대에 합격한 성적이 우수하고 어려운 후배동문 2명을 모교에서 추천받아 입학 등록금 전액을 지불하고 있다.

4) '84년 會誌 創刊號 "束草"를 발간하여 칼라 표지에 120페이지에 달하는 훌륭한 책 2,000부를 제작 배부하여 서울, 속초, 부산등 전국의 회원에게 손닿는대로 드린바 있다.

5) 매년 봄이면 신입생 환영회를 가지는데 꼭 참석하여 격려해 주고 적은 선물이거나 주고 받는 흐뭇하고 따스한 사랑의 보금자리가 계속되어 앞으로 더 큰 규모로 발전하도록 힘써 오고 있으며 그러기 위하여 전보다 더 힘을 기울일 생각이다.

6) 동문들의 판손상제 또한 축하의 뜻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여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리는 거의 다 참석하였고 앞으로는 한건도 빠짐없이 찾아가 볼 생각이다.

7) 동문들중에 어려운 분들을 찾아 위로해 주었고 몇 분의 동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취직도 알선해 주었는데 다소 미약하다고 보나 앞으로 이점에 큰 역점을 둘 생각이다.

8) 母校 開校紀念行事 및 속초동문회 총회 그리고 13기 이후 후배들의 체육대회등 여러 행사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해 在京, 在束 동문들간의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우의를 돈독히 한 점 등은 자랑할만하며 저와 會長團 및 이사진들이 다수 참석한 일들은 흐뭇하며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9) 母校 배구단 전지훈련 및 전국시합때 많은 동문들이 시간을 내어 밤늦게 까지 숙소를 찾아 다니며 격려해 주고 운동장에서 열렬한 응원과 저녁식사등 다과를 베푸실은 너무나 훌륭한 일이라 생각되며 앞으로 계속 힘써 줄 것이다. 속초

중학교의 축구팀에게도 격려해 주어 항상 흐뭇한 생각에 기분 좋게 느낀다. 그 이외도 많은 좋은 점들이 있으나 아직까지 미약하고 만족스럽게 못해 드린 점 들이 많아 정말 송구스럽게 여기는 일들이 많다고 본다. 앞으로 會長團, 各期代表 이사진들과 역대 회장님들, 그의 중진회원들이 합심하여 동문회 육성 발전에 더욱더 기여할 것이며 舍會員들도 團結하여 한마음 되어 주길 바란다.

아직까지 못다한 일들 중에서 핵심은

1) 회관 건립이 안되어 동문들이 여기저기 안정없이 다니는 것을 보고 가슴 아프게 생각되며 會長인 저도 책임있지만 전동문이 舍心하여 회관건립에 적극 참여해야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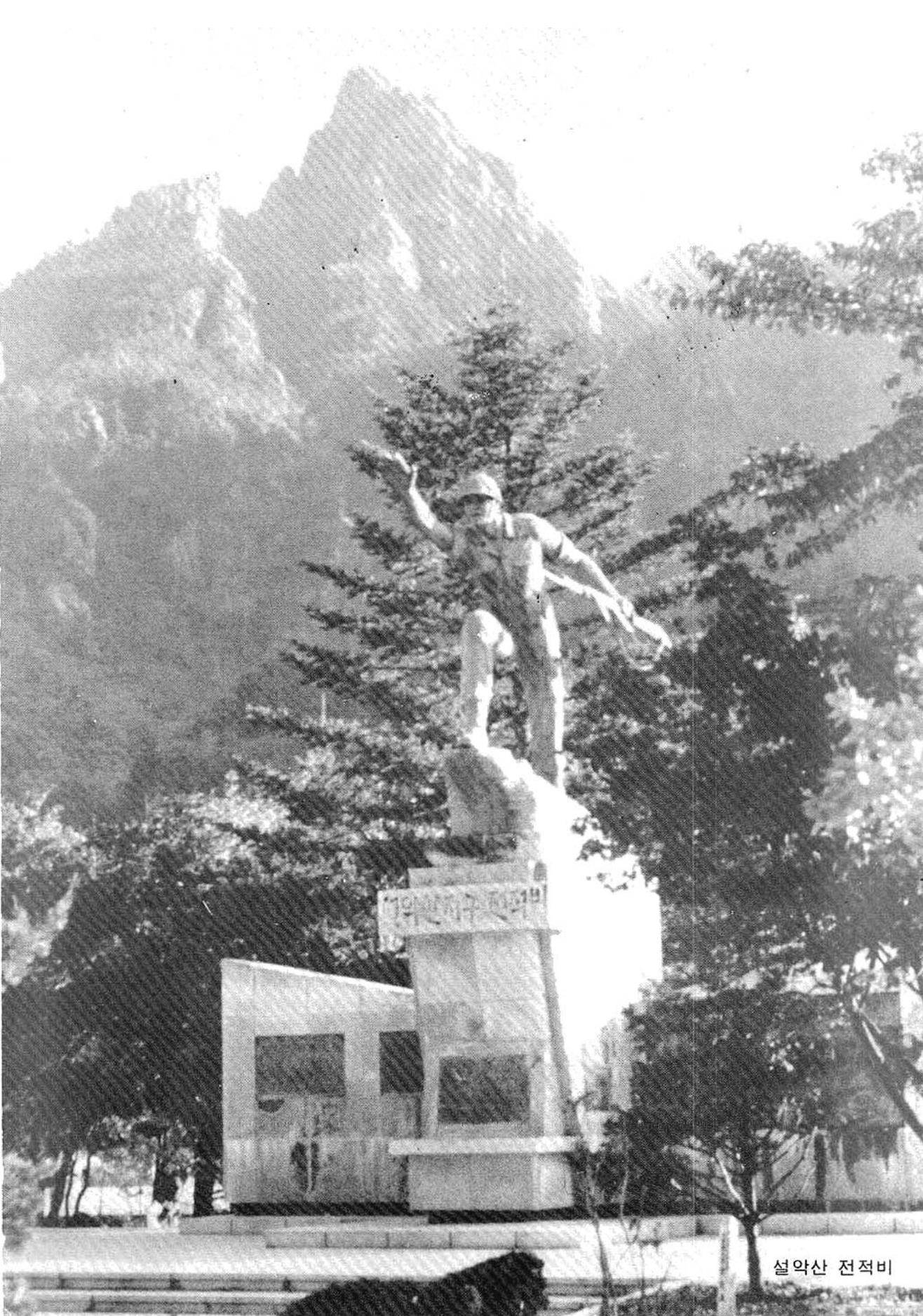
2) 會基金 확보와 장학기금 확보가 안되어서 정말 안타깝게 여긴다. 우리 모두 會員 개인의 안정이 곧 이루어진다면 이것도 뜻을 모아 기필코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며 그러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겠다. 또한 우리 전체 속고 동문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지역사회 개발과 속초시 발전을 위하여 중요직을 위시한 말단 까지 우리의 손으로 위대한 속초를 만드는데 앞장서야겠으며 三權의 자리에 앉아 평생을 내 고장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뼈를 이 땅에 묻힐 각오로 심혈을 기울여야겠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동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겠고 다소의 의견의 차이는 있을 망정 비판토록 하여 중지를 모아 위대한 속초와 훌륭한 속고 동문회가 되도록 舍心하고 단결하여야 겠다고 본다.

끝으로 在京 동문회 육성발전에 헌신해 주신 역대회장단, 각기 대표이사를 그리고 현직 부회장 朴在錫(4回), 黃英燮(5回), 李原俊(6回), 金黃龍(7回), 李順福(9回), 總務 金光洙(9回), 財務 姜永求(13回) 그리고 고문단 감사단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특히 會誌 "束草"발간에 애써주신 3回 劉志國 선배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在京에 계시는 은사님들 金致濶, 李昇均, 金明鉉, 李昌浩, 金孝淳, 李錫浩, 李鍾國, 辛承昭, 金客玉, 이성엽 선생님께서 항상 협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哀心으로 감사의 뜻을 올리는 바이다.



설악산 경관



설악산 전적비

# 雪嶽山 神興寺의 由來(2)



金 慧 法 / 神興寺 住持

神興寺는 大韓佛敎曹溪宗 第三敎區 本寺로 雪嶽山 外雪岳에 위치한다.

金剛山과 雪嶽山 그리고 五台山을 가리켜 三兄弟라고 옛부터 전해져 왔다. 이 三兄弟中에서 雪嶽山은 金剛山의 바로 위의 아우이고, 五台山 바로 위의 兄이다. 이 三兄弟中 모습이나 骨格이 비슷한 것은 金剛山과 雪嶽山으로 性格까지 비슷하다.

그런데 深山情景이 깊은 맛은 雪嶽山이 三兄弟中 으뜸이다. 사람도 3 형제중 가운데가 가장 잘 나서 出衆하다는 소리를 듣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산도 그렇다. 어쨌든 설악산은 名嶽이며秀絶한 靈嶽임에는 틀림이 없다. 神興寺는 이 名嶽이며 靈嶽의 대부분인 林野 약 4,000정보를 소유관장하고 있으며 설악산의 八奇八景을 비롯하여 이곳에 유명한 安養菴, 內院菴, 繼祖菴 등과 神光瀑布, 臥仙台, 飛仙台, 金剛菴, 權金城등과 그외에도 많이 있으며 內雪嶽의 百潭寺, 五歲菴 鳳頂菴 등이 은은히 자리하고 있다.

그러면 山內菴子로 부터 차례로 소개 하기로 한다.

## ① 安養菴

安養菴은 신흥사에서 동북방으로 500m 지점에 있다. 新羅 眞德女王 6年(652)에 慈藏律師가 香城寺 創建과 동시 安養菴터에 海雲菴을 세웠고, 옛 향성사의 산내암자이다. 그후 조선 선조 17년(1816)에 火魔로 소실되자 白雲洞의 白雲菴을 俊鏡禪師가 此墟에 이진하여 慧遠法師의 白蓮結社에 동참하여 安養國에 원생하는 자만 此菴에 상주케 하고 安養菴이라 명명하였고 1949년 李大德(比丘尼) 스님이 重創하였고 다시 1969년 林法知(比丘尼) 스님이 보수하여 설악산 念佛堂으로서 면모를 다하고 있다.

## ② 內院菴

內院菴은 신흥사에서 北方으로 약 1.5km 지점에 있다. 新羅 眞德女王 6年(652)에 慈藏律師가 香城寺와 같이 지금의 內院菴터에 能仁菴을 세웠고 옛 香城寺의 山內菴子로서 孝昭王 10年(701)에 향성사와 능인암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그후 仁祖 20年(1642)에 900여 禪僧들의 수도처였던 禪定寺가 화재로 소실되고 조선 인조 22年(1644)에 신흥사를 건립케 되자 선정사의 古墟가 공허함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여 동년인 仁祖 22年(1644) 秋節에 암자 4동을 세우니 그것이 內院菴의 창건이다.

그후 (1914) 甲寅 仲秋에 金剛山 神溪寺에 수도중인 비구니 金壽永스님이 內院菴은 古祖師의 선정하던 성지임을 자각하고 信心을 대발하여 자기토지 畓 50石分을 내원암에 헌납하여 선원을 개설하니 活句를 參究하는 納子들이 운집하였다. 禪院의 명성이 동방에 大關하였고 秋史 金正喜 선생이 성지순례길에 남긴 內院菴 현판이 아직도 생생히 정문에 걸려 있으며 內院菴의 터가 風水地理說에 매우 알맞는 좋은 터에 阿彌陀佛을 봉안하여 이곳을 찾아 기도를 모시는 이로 하여금 靈驗이 있다하여 옛부터 많은 선남선녀들이 찾는 명소이기도 하다.

## ③ 繼祖菴

繼祖菴은 신흥사로 부터 북방 2.3km 지점에 雄偉巨大한 二座石山이 있는데 純金한 돌로 형

성되어 그 형상이 芙蓉의 初秀와 衆笏의 東立과 같고 此山の 巍巍落落한 中腰에 一大靈穴이 있어 시시로 杳杳震雷의 소리가 宏大하여 천후와 같다하여 世稱 천후산이라고도 부른다. 이산 南下方에 一大石窟이 있는 바 그 窟內에 건물을 구성한 一菴이 있으니 此菴은 香城寺創立時(新羅 眞德女王 6年)(562)같이 建립한 繼祖菴이다. 옛날 洞山 覺智 鳳頂 三祖師가 항주하시면서 정진 수도하시던 처소요, 義湘, 元曉, 二祖師가 상계하여 수도하시던 도장이라 하여 繼祖로 명명한 것이다.

此菴에 봉안한 佛像은 阿彌陀佛 이외에 獨聖 那畔尊者를 모셨는데 응감이 甚靈하여 一切道俗이 성심으로 기도하던 所願成就한다 하여 地方人士 佛子들의 발길이 그칠 사이가 없는 곳이기도 하다.

繼祖菴門前에는 雙龍岩이 수문의 儀를 이루고 門外의 左右에는 臥牛石 龍岩石이 있어 靑龍白虎를 이루었으며 배상에는 百餘名이 앉아서 供養(食事)을 할 수 있는 磐石이 있어 일명 食堂岩이라고도 부른다. 그 頭上에 牛角石이 있으니 一名은 흔들바위(動石)라 하는데 一人一指로서도 動하나 腕力으로서는 힘들다. 此牛角石은 古來로 雙立하던 것을 中古에 이르러 米神상 風水地理를 공부하였다는 者가 佛家의 靈氣가 太多함을 嫌疑하여 1個石을 轉墮케 하였다 한다. 龍岩石은 龍鬚가 宛然하고 岩下에 如意珠石이 있고 靈泉이 용출하여 그 맛이 甚甘하여 이름을 甘露藥泉이라 하며 세인이 一服하면 심신이 爽快하고 淸涼散을 服用한 것 이상으로 精神을 맑게 한다. 이곳은 세계의 珍域이요 천하의 絶勝處로서 옛날 名宰相들이 많이 놀러 왔다가 岩面에 성명을 조각하여 온통 가득 메운 곳으로서 萬古의 불후를 자랑하는 現世 極樂淨土이라고도 할 수 있는 神秘境이다.

#### ④ 울산바위(蔚山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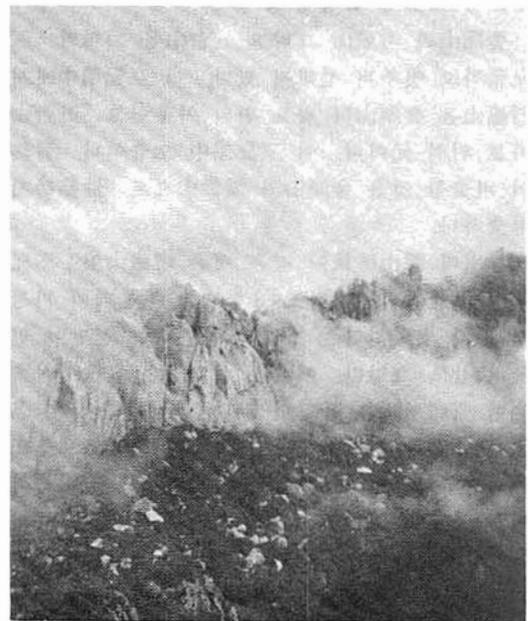
蔚山岩은 外雪嶽의 북쪽에 위치하는 岩山으로서 一名 천후산이라고도 한다. 蔚山바위의 높이는 해발 약 650m가 된다. 사방이 絶壁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발붙일 곳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여섯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奇觀은 다른 곳에서 보기 어렵다. 더욱 岩壁이 험

난하므로 알피니스트들이 등반을 즐기는 곳이기도 하다.

蔚山岩은 外雪嶽의 八奇 가운데 하나가 된다. 즉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천동이 치면 산 전체가 뇌성에 울리어 흡사 산이 울고 하늘이 으르렁거리는 것 같다. 그래서 천후산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그 소리가 외침같기도 하고 무슨 부름같기도 하다. 때로는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로 들리다가도 무슨 울부짖음같이 들리기도 한다. 天動이 길게 일어나면 外雪嶽의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다.

여름이면 하루 몇번이고 천후지동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奇岩이다. 더욱 울산바위에 구름이 허리를 감아 걸쳤을 때는 그 경치가 흡사 구름 꽃송이가 피는 것 같다. 蔚山岩雲花는 外雪嶽의 팔경 가운데 하나가 된다. 그리고 蔚山岩 위에는 넓은 반석이 수백간이나 되어 등반하는 알피니스트들이 여기서 휴식을 하면서 눈앞으로 전개되는 경치를 살피기도 한다.

繼祖菴에서 울산바위를 바라보면 외롭게 뭉쳐 있는 바위들 같다. 주위에는 바위떼가 별로 없는데 여기서만 오밀조밀하게 모였으니 전설이 있을만한 바위떼이기도 하다.



울산바위



雪嶽山 蔚山岩下の 계조안

『울산바위는 꼭 지조가 있는 바위떼들이었다. 아득한 옛날 太古때 일이다. 山神靈께서 천하절경의 名山(金剛山)을 만들고자 천국의 기암괴석을 모집하였다. 각 지방에서 그 姿態를 자랑하던 名山奇岩들이 부름에 응하여 金剛으로 모여 들었다. 당시 蔚山地方에 거하던 이 바위도 금강산의 일부분으로 동참코자 열심히 길을 건고 있던 중, 위낙 덩치가 큰 巨岩이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바람에 지금의 터에서 쉬다가 잠이들어 버렸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山神靈의 飛報가 들었다. “吾神이 만들고자 한 金剛山은 완성되었으니 이제는 바위가 필요없노라”고. 蔚山으로 되돌아 갈 수도 없는 처지여서 그냥 머물게 된 것이다. 당시에 자신의 걸음이 느려 金剛의 일부가 되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되어 눈물을 수없이 흘렸는데 지금은 甘露가 되어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藥水가 되고 있다.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 그 蔚山岩이 神興寺에 평지풍파를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되는 무슨 연고인지?

이 전설을 알게 된 울산원님이 울산바위 앞은 터가 神興寺 所有임을 알고 신흥사를 골탕먹일 계획을 세운 다음 신흥사를 찾았다. 住持스님을 불러 놓고 호령한다. “저 蔚山바위는 원래 울산지방의 소유로 그 지역의 관광지로서 많은 사람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貴寺刹에 소속되어 우리 蔚山地方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님을 마땅히 알고 現수부터 그 세금을 바쳐야 할 것이니라”.

排佛崇儒의 시대인지라. 1년 추수의 대부분을 바쳐야 하는 원님의 명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 주지 스님의 노심초사 고민은 말이 아니었다. 명을 어기자니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고 응하자니 매년 양식이 큰 걱정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스님들의 걱정은 아랑곳없이 울산원님의 세금반을 수레가 닥칠 날이 며칠 남지 않았을 때 후원(부업)에서 심부름을 하고 있던 행자(나이어린 등자승)가 주지스님을 찾아와서 “스님의 걱정을 덜어드릴 터이니 스님께옵서는 심려 놓으시라”고 하는게 아닌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일축하려 하였는데 그 진언하는 바가 당돌하고도 의연하니 주지스님은 이렇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인지라 반신반의 “네 생각대로 해 보라”고 하였다.

며칠후 울산원님은 곡식 실을 많은 牛馬車를 대동하고 山門안을 들어섰다. 이때 동자가 다가가서 배알하고, “원님께서 울산바위세를 받으러 오셨사옵니까?” 하니 원님은 “그렇다”고 대답한다. “죄송하지만 울산바위세는 낼 수 없읍니다” “나는 이곳 주지의 약을 할 하였는데 네 놈이 왜 나서서 세를 줄 수 있느냐 하니

느냐?” “아니옵니다. 원님. 저 울산바위가 저 곳에 머무르기 전의 저 곳은 농토였는데 그 큰 늪의 바위가 앉고 부터는 그곳을 농토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곳은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오니 저 울산바위를 도로 울산으로 가져가 주셨으면 합니다.” 논리정연한 동자의 말에 울산원님은 할 말이 궁해졌다.

“좋다. 내가 저 울산바위를 울산으로 옮겨 갈 터인 즉 네 늪들은 저 바위를 가져가기 쉽게 새끼 줄 태운 재로서 칭칭 묶어 두어야 할 것이니라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원님.”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대중 스님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그냥 새끼줄도 아닌 새끼줄 태운 재로서 저 큰 바위를 감는다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이며, 그 명을 어겼다가는 더 많은 세금은 물론이며 수모 또한 겪게 되는게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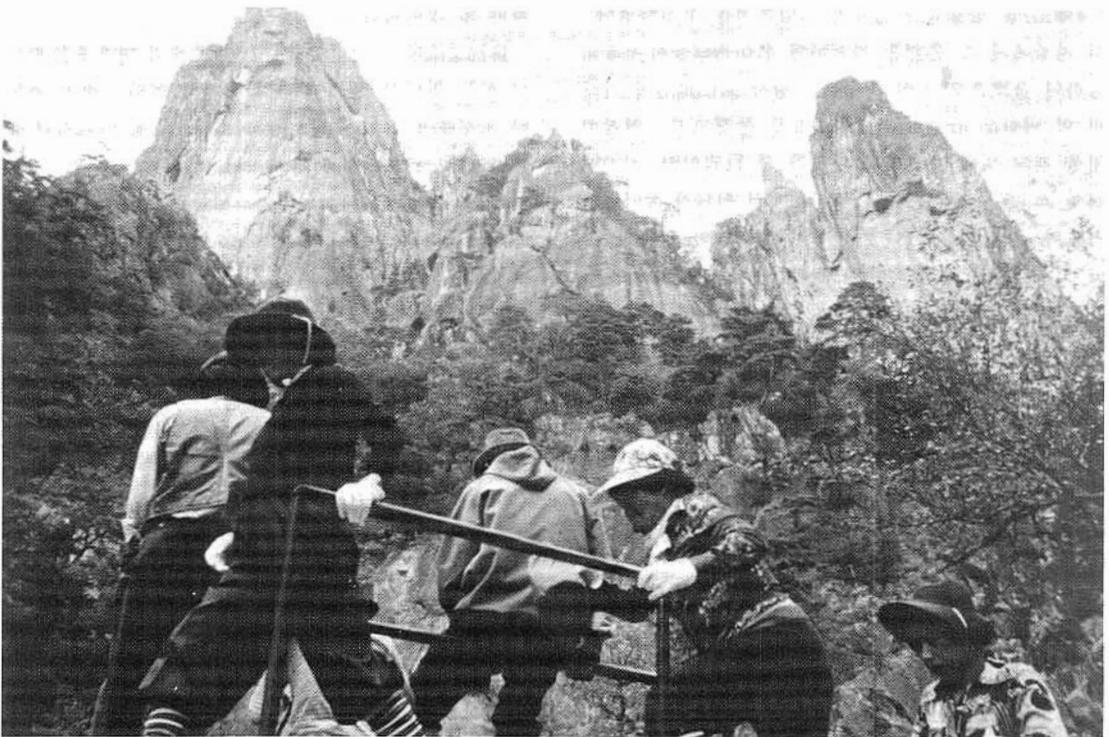
그래도 동자는 “열흘간의 여유를 주시면 꼭 새끼태운 재로서 묶어둘 것이오니 열흘 후에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원님은 회심의 미소를 입가에 흘리며 그려졌노라 하고는 물러간다. 동자는 걱정하는 스님들께 제게 비책이 있으오니 스님들께옵서는 심려 놓으시고 정진에 힘쓰라고 한다.

그날부터 동자는 많은 사람들을 시켜서 새끼줄을 수

없이 꼬기 시작한다. 수천발의 새끼줄을 전부 바닷물 에다 3일동안 담가 두었다가 다시 바짝 말린 다음 들 기름을 부어서 울산바위를 감기 시작한다. 다 동여맨 다음 불을 붙였다. 들기름을 칠하였으니 그 기름이 타면서 소금에 절여진 속의 새끼줄은 타지않고 꺼명게 재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설마 제놈들이 하면서 의기양양 산 문에 들어선 원님은 할 말이 없었다. 그 기지를 발휘한 동자는 신흥사 지장보살의 화현이라고도 전해진다.】

이 바위의 頂上에 향아리형같은 것이 다섯개가 있다. 이것은 화강암에서 발달하는 일종의 우혈현상(甌穴現象)의 침식을 일으켜서 이루어진 구멍이다. 天然의 빛물이 고여 無色, 無味, 無嗅해서 이곳 사람들은 靈水라고 한다. 깊이와 넓이는 곡식 7백두(斗)에서 千餘斗를 넣을만하다. 이 우혈 역시 八奇 가운데 하나이다.

※ 이외의 神光瀑布(土旺城瀑布), 臥仙台, 飛仙台, 權金城, 飛龍瀑布와 기타는 다음號에 자상히 소개하기로 한다.



三傳市虎 人皆信  
一綴裙蜂 父亦疑  
世上功名 看木雁  
座中談笑 慎桑龜

현장을 찾아서

## 泐 溜 柱 詩



李 建 錫

옛부터 우리나라를 가리켜 「아름다운 금수강산」 「동방예의지국」 등으로 일컬었다. 밭길 닿는 곳마다 절묘하고 심오한 풍경이 눈앞에 삼삼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연을 즐기고 詩를 노래할 줄 아는 이의 가슴을 화려하게 열어줄 수 있는 자연의 신비속에 많은 전설이 생겨나게 마련이다.

수천년 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옛 이야기로 우리는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전설 속의 고향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많은 세월이 흘렀고 시대가 바뀌어감에 따라 점점 예전의 절경을 찾아볼 수 없는 곳은 많고 게다가 국토가 양단되어 구수한 전설이 숨겨진 마을들을 직접 찾아가 볼 수 없는 까닭에 뜻깊고 재미있는 전설을 통해 그 고향을 머리속에 상상해보는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운 일이다.

어린 시절에 할머니,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눈을 깜빡이며 듣던 옛 이야기와는 또 다른 맛이 있는 우리나라의 전설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에 매달려 옛 이야기를 접할 수 없는 우리들의 양식을 무한히 살찌울 수 있고 우리 교유의 풍습과 관례 옛 사람들의 취향 성격 정서면 사고방식 등을 알 수 있으며 각 고장마다의 특징이 어떻게 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밖에 부모에 대한 효도, 나라 위하는 마음,

사랑을 갈구하는 젊은 남녀들의 사연, 이외에도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일깨움을 미루어 보아도 우리 민족의 인간성을 능히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우리 고장의 흘러간 세대의 향기를 듬뿍 담은 아름답고 짜릿하며 코미디한 맛을 안겨줄 이야기들을 많이 발굴하여 입이 아닌 글로써 후세에게 전하는 일은 뜻깊은 일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필자도 물치주시·울산바위의 전설등 한 두가지 외에는 알지 못한 까닭에 앞으로 본지를 통하여 시민들의 많은 발굴 투고가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물치주시에 대한 전설아닌 전설을 엮어 보기로 한다.

물치주시에 대해서는 지난해 속초문화원에서 애향운동의 일환으로 반상회보에 「이 고향을 빛낸 인물 兪勿齋 선생」을 소개할 때 말미에 언급한 바 있고 “束草文化” 창간호에 국립공원 설악산 제하 설악산 입구난에서 언급한 바 있으나 두 번 모두 다른 제목의 글을 쓰는 끝에 곁들여 언급한 탓으로 쇠귀 꼬리(詩句末尾)가 요약되어 있는 아쉬움이 있기에 본지의 투고청탁을 받은 이 기회에 그 쇠귀 속에 얼켜있는 사연을 좀 더 깊이 풀어보고자 붓을 들었다.

여기에서 먼저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글 속에 나오는 옛날의 물치마을이 현재의 대포

동 내물치 마을이나 아니면 강현면 물치리이나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양양군과 속초시에서 각기 물치주사를 내 고장의 전설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구한말시대에 발간한 양양읍지를 보면 아무런 설명없이 물치주사 제하에 네 귀절만이 실려있고 물제비는 대포동 내물치 마을 현 주택촌 언덕에 옛날부터 세워져 있던 것을 수년 전에 신 주택단지 건립시 현위치로 옮겨져 오늘에 이르렀으며 또 전날에는 속초도 양양부현에 속해 있어서 앞물치 내물치가 한 마을이었으나 근년에 쌍천을 경계로 나누어진 것으로 본다.

어쨌든 송시열 선생이 함경도 덕원에서 거제도 유배되어 가는 길에 날이 저물어 이곳 물치에 사는 鄭笠이란 농부집에서 하루밤을 묵게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간밤에 비가 많이 와서 온 마을이 홍수로 물난리가 나고 강물은 불어서 갈 길이 두절되었다. 할수없이 며칠을 더 머물다가 물이 빠진뒤 떠났는데 그후 마을 이름을 물치라 했다고 한다.

물치란 「물」자는 물에 잠긴다는 뜻이고 「치」자는 마을이란 뜻으로 유명한 송시열 선생이 물이 잠긴 마을에서 물에 막혀 몇 날을 묵어 갔다는 연유로 마을 이름을 물치라 했다는 것이다. 이때 송시열 선생이 유숙하던 정씨집 기둥에 붙어있는 쇠귀로 보니 글귀가 뒤바뀌져 있으므로 이상하게 생각하여 송 선생이 이 글에 대한 내용을 주인에게 물었더니 주인의 대답이 “작년 5월 5일에 지나가는 과객이 이 詩를 써서 네 기둥에 한 구절씩 붙이면서 하는 말이 명년 5월 5일 어떤 나그네가 이곳에 와서 이 글을 읽어 볼 것이라 하며 떠나갔다”는 것이다.

이 쇠귀를 붙인 네 기둥이 물치주이고 그 네 기둥에 붙인 네 귀절의 시를 ‘물치주사’라고 하는데 그 시를 써붙인 분이 누구인지 이름조차 전해오지 않고 그 시가 붙어있던 네 기둥의 흔적조차 없으니 무상한 세월이 애달기만 하다.

물치주사 네 구절은 다음과 같다.

三傳市虎 人皆信 (삼전시호에 인계신이요)  
一綴裙蜂 父亦疑 (일천군봉에 부역의라)  
世上功名 看木雁 (세상공명은 간목안인데)  
座中談笑 慎桑龜 (좌중담소에 신상구라)

먼저 첫째 句節의 “三傳市虎에 人皆信이라” 함은 시내 장터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 벽촌 앞 농터에서 마을 농부들이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장보러 갔던 한 사람이 돌아오면서 농부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오늘 장마당에 호랑이가 나와서 아주 혼이 났다더라” 전하니 농부들은 “저사람 싱겁진. 장터에서 술잔이나 마시고 취중에 잘못 전해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웃어넘겼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장보고 돌아오는 사람이 농부들을 향하여 “오늘 장마당에 산중 호랑이가 내려와 설치고 다니는 바람에 급히 피신하는중 장마당이 풍지박산이 되었다네” 라고 전하니 농부들 모두는 고개를 가우뚱하면서 “무슨 일이 있기는 있었던 모양”이라고 관심을 갖기시작하였고, 또 한 사람이 장보고 돌아 오면서 같은 말을 전하니 이를 세 번이나 전해 들은 사람들 모두가 믿더라는 이야기로 열 번 찍어 안넘어가는 나무 없듯이 거짓말도 여러번 또는 그럴듯하게 교묘히 꾸며서 하면 누구나 속게 마련이니 허황된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가르침이라 하겠다.

둘째 句節의 “一綴裙蜂하니 父亦疑이라” 함은 어떤 산골의 외딴집에 아버지와 계모와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계모의 성품이 교약하여 자신이 자식을 못나면서 남편의 외아들을 잘 위해 주지는 못할지언정 학대가 이루말할 수 없이 심하게 지내던중 그 度가 극에 달하여 엉터리로 아들을 남편에게 고자질하여도 남편이 바로 듣지 않으니 하루는 잔피로 흥계를 꾸며 남편 앞에 엎드려 눈물로 호소하기를 “계모도 에미는 에미인데 어찌 천륜을 어기고 당신이 외출하고 집에 없으면 자식놈이 이 에미를 겁탈하려고 덤비니 이일을 어찌하면 좋으리까” 라고 천연덕스럽게 거짓을 아뢰니 사람좋은 남편은 “설마 그 아이가 환장을 하지 않은 바에야 그럴리가 있겠는가”하며 일소에 불이니 “내 말을 못 믿겠으면 오늘 외출한다고 집을 나가서 바로 집 뒤 언덕 대밭 속에 숨어 있다가 벌어지는 광경을 직접 내려다 보구려” 라고 말하니 반신반의한 남편은 옷깃을 차려입고 아내와 아들에게 “멀리 좀 다녀 오겠다”고 말하고 대문을 나서서 가다가 되돌아와 집뒤

언덕 대밭 속에 숨어 대문 안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계모는 담장밑 장독대 옆에 키우고 있는 벌통에서 참벌 한되박 정도를 썰어서 삼베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대문 안마당으로 급히 뛰어나오면서 자기치마와 속옷에다 벌떼를 풀어 헤치며 아들을 부르면서 큰일 났다고 소리소리 지르니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사랑에서 급히 달려 나와 보니 계모의 치마와 속옷 속에 벌떼가 달려들어 왕왕거리니 벌떼를 털어서 쫓고자 계모의 치마와 속옷을 뒤집으며 털며 야단인데 계모는 아들을 떠밀며 때리면서 치마를 울리며 호들갑을 떨니 집뒤 대밭 속에 있는 아버지의 먼 눈에는 꼭 아들이 계모에게 겁탈하려고 덤비고 쫓아다니는 장면으로 보였다. 그래서 속옷의 벌을 한번 털으니 부자간의 천륜도 허사로 아버지가 그 자식을 의심하더라. 이 句節 역시 세상 만물을 바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여 처세에 현혹됨이 없이 살라는 교훈이라 하겠다.

세째 句節의 “世上功名은 看木雁이라”함은 산속에 뻗뻗히 들어서서 잘 자란 나무들은 사람이 용재로 쓸 때에는 밋밋하고 잘 생긴 좋은 나무를 먼저 골라 베어내서 쓰기 마련이지만 때로는 나무 기르기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르기 목같이 구부정하게 쓸모없이 못생긴 나무로 用材로서 뽑혀나갈 수도 있다는 것으로서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깨끗하고 밋밋하게 잘 생긴 놈이 먼저 죽고 못생겨 돌보지 않은 나무는 병신자식이 효자노릇 한다는 격으로 못생긴 덕을 보아 베어 나가지 않고 오래 살듯이 바꾸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잘 생긴 나무와 같이 人材도 바르고 고른 良材가 나라에 쓰여지는 법이지만 때로는 나무 기르기 같은 用材로 채울 경우에는 구부러진 못난 人材도 쓰이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로 즉 이 세상 공명은 看木雁과 같다는 일깨움이라.

끝으로 네째 句節의 “座中談笑는 慎桑龜라”함은 어느 산간벽촌에 두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아버지가 오랜 병으로 병석에 누운 지 여러 해인데 효자인 아들의 정성어린 간병에도 효험이 없이 아들은 산에 가서 땔나무를 해다 팔

아 좋다는 약은 다 구해다 대접하였으나 차도는 고사하고 병세는 점차 악화되던 차에 지나 가는 과객이 그 사정을 알고 “거북이를 많이 잡아다가 꼭 삶아서 먹이라”는 말을 하기에 아들은 그 길로 마을앞 큰 도랑 버드나무밑에 삼태기를 들고 가서 크고 작은 거북이를 한 삼태기 가득히 잡아다가 큰 가마에 넣어 물을 붓고 장작을 때서 하루종일 끓였으나 원래 거죽이 딱딱하게 굳은 거북이는 익지 않아 아들이 허탈에 빠져 부엌가마 앞에 주그리고 앉아 고심하고 있는데 가마속에 잠혀온 여러 거북이는 저희들끼리 주고받는 속삭임이 “저 머저리 같은 사람 아무리 불을 때보았자 우리가 삶아지나 보아라. 방법은 뽕나무 장작으로 불을 때면 우리가 꼼짝없이 익힐 터인데” 하며 웃더라. “옳거니” 하고 아들은 그 즉시 뽕나무 장작을 구해 불을 지피니 금시 거북이가 물렁물렁하게 익어 죽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좌중에서 가벼운 우스개 말이라도 거북이가 뽕나무이야기하듯 자기가 죽는 결과를 가져올 일조심 즉 말조심하라는 교훈이라 하겠다. 그러니까 송시열 선생 같은 영특한 인재도 쓸데없이 공명을 탐내어 노론이니 남인이니 하여 당파싸움에 휘말려 들지 않고, 상복문제로 왈가왈부하지 않았더라도 오늘의 이런 결과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 충고하는 글인듯 하다.

이 杼詩를 통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그무엇인가를 느끼고 깨달음이 있는 교훈으로 받아들여 생활의 윤활유 청량제로서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힘써야 하겠다.

#### <略 歷>

- 속초시 사회·재무과장
- 양양군 내무과장
- '82년 서기관으로 명예퇴임
- 현재, 속초시 지방행정동우회장  
속초시 정화추진협의회 부회장  
총무처 행정상담위원

## 홍 익 건 설

대표 : 방 승 철

속초시 교동 482-302 ☎ 2-4991

## 雪嶽山 케이블카



金亨東 / 설악관광(주)대표이사

雪嶽山 케이블카는 속초시 설악동 70번지 소공원에서 權金城까지 設置되어 있다. 이는 69년 12월 15일 韓丙起外 六名으로 會社를 설립하였다. 해발 670미터 權金城 까지는 길이 1,200 미터 평균 경사가 26° 급경사를 케이블카로 觀光객을 수송하고 있다.

雪嶽은 3地域으로 분류하는데 V字계곡을 중심으로 남쪽인 오색리 방향을 南雪嶽, 인제백담사 방향인 西쪽을 內雪嶽, 그리고 일반 觀光객이 많이 찾는 이곳이 바로 外雪嶽이라 한다. 케이블카를 타게되면 外雪嶽의 심장부인 울산바위 비선대, 와선대, 천불동계곡, 토왕성폭포, 신흥사, 속초 시가지, 동해바다 등을 바라볼 수 있으며 짧은 시간 내에 많은 觀光을 할 수 있어 노약자 및 어린이들에게는 더할나위 없이 신비의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 케이블카는 연중 무휴 운행하고 있으며 대자연의 철따라 감상(봄에는 진달래, 여름은 신록, 가을은 단풍, 겨울엔 雪景) 할 수 있게 되어 계절의 眞美를 만끽할 수 있다.

본사는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支社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동 12의 5 보성빌딩 203號에 자리잡고 있다. 會社職員은 50명으로 1984년도 기준으로 외형이 7億으로 작은 기업이다. 이 케이블카는 1970년 9월 10일

會社設立(설악관광주식회사) 수도시설공사를 착공 71년 7월 31일에 준공하였다.

初代 사장에 李基燮 박사가 취임했다. 1971년 8월 1일자 속초세무서에 영업신고와 동시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 당시는 4선교주식으로 반기(카)의 정원 21명, 소요시간 13분(엔진 175마력)이 되었다. 그후 1976년 동력 6,600볼트 고압선을 설치하였으며, 이때 21인승 카를 31인승으로 교체하였다.

영동고속도로 개통 이후 觀光객의 數가 늘어남에 따라 시설을 現代化로 지식을 일본 롯데코일 52미리를 수입하여 시설을 교체하였고, 카의 정원도 31인승에서 41인승으로 하고 6분 대로 운행하고 있다. 1984년도의 경우 연간 40만명(유아, 소인포함)을 운송하였다. 설악동 휴게소는 1980년에 건물을 증축하여 점포까지 말끔히 단장하였지만 權金城은 1970년대의 노후 건물이어서 현재 관계 당국과 증축을 협의중에 있는 실정이다

1975년도까지는 觀光객이 적어 부채가 많아 社員의 급료도 2개월 이상 체불한 적도 있다. 그러던 중 전임 사장이 1973년 12월 26일자 사임함에 따라 제 4대 社長에 본인이 취임하였다. 經營方針으로는 安全運行, 親切奉仕, 經營 合理化로 하였고, 社會服務 指針으로는 절대적인 整

備點檢, 能動的인 친절봉사, 효율적인 財産管理 自律的인 確認報告, 소득적인 福利增進, 生動的인 自然保護 등으로 방침을 삼고 항상 자연을 내뿜고 같이 보호하고 주위를 새마을 정신으로 청결히 하고 있어 한번 다녀간 관광객이 다시 찾아오게 마련이다. 이것을 每 教育時마다 強調하며 14년간이나 사장의 중책을 맡고 있다.

韓丙起(雪嶽觀光株式會社 社長)씨가 雪嶽山 케이블카를 설치한 것은 우연은 아니다. 본래교향은 평안북도 강경으로 6.25 사변시 월남하여 그후 속초에 정착하면서 이 지역 발전을 위해 여러가지 묘안을 검토중 雪嶽山의 아름다움을 보고 케이블카 설치를 현위치에다 하였다.

그리고 1971년 8월 21일자 당시 三洋航海(株) 社長이었던 한병기씨가 퇴직금조로 받은 2천만 원을 기금으로 회사함으로써 雪嶽文化財團을 설립하였다. 그후 雪嶽觀光(株)에서 5회에 걸쳐 5천5백만원을 증자, 현재는 資本金 7천5백만원으로 전문대생 2명, 고교생 593명, 중학생 482명, 계 1,077명에게 수혜하였으며 앞으로도 수혜 폭을 늘려 나갈 計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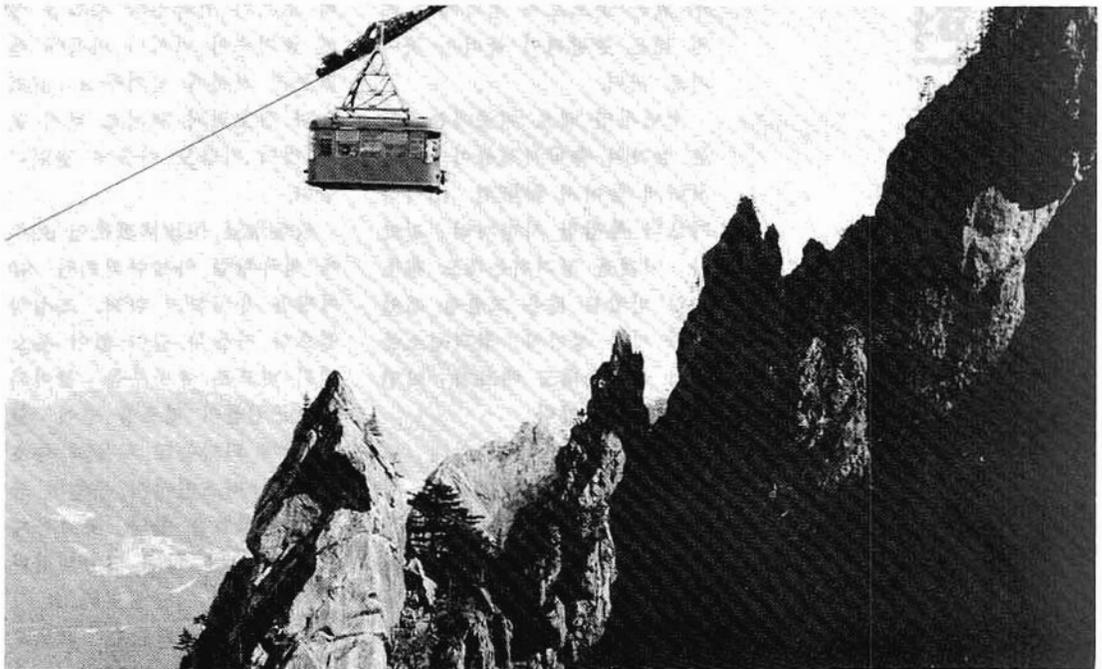
그뿐 아니라 會社 社員의 후생복지 면에서도

(의료보험가입, 출퇴근용 버스, 중식제공, 자녀 학자금지급)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觀光資源을 보존하기 위하여 自然保護運動, 새마을운동, 행락질서운동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던 중 1984년 하반기에 본인이 새마을 근면장을 수여 받았으며 이때 받은 포상금 3백만원과 회사 지원금 5백만원, 도합 8백만원으로 속초시 도문동 1103번지(충도문 1리)에 사슴 3두(암 2, 수 1)를 사육하고 있어 앞으로 사원의 복리를 한층 배가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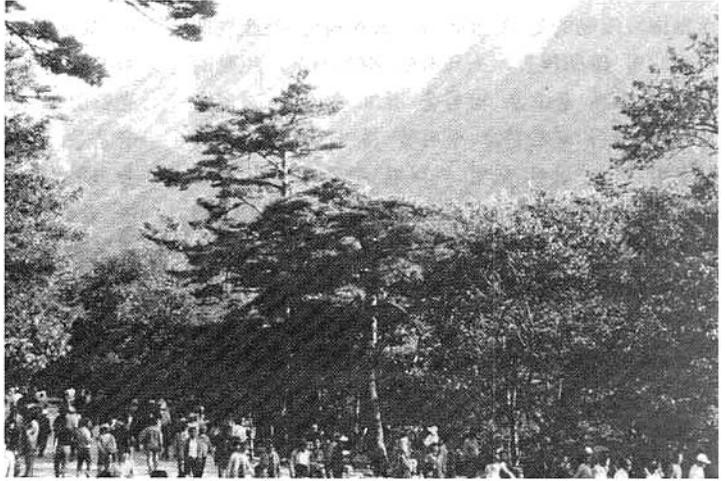
다가오는 '86, '88大會를 目前에 두고 있기때문에 손님맛이를 위해 미비한 점을 보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아무튼 명실공히 세계적인 名物로서 손색이 없이 雪嶽山 그 자리를 영원토록 굳혀나갈 것이다.

<略 歷>

- 속초지역관광협회장
- 도정자문위원
- 한국방송공사KBS속초방송국 자문위원장
- 속초상공회의소 회장



# 국립공원설악산 (소공원편)



## 雪嶽山 小公園 (舊團地)

東草에서 설악산 가는 시내 버스를 타고 종점에 내리면 大自然에 人智를 수놓은 듯한 아름답고도 아담한 소공원이 관광객에게 清雅한 情感을 안겨 준다.

이곳은 설악산 얼굴이라 볼 수 있는 곳으로서 전국에서 제일 많은 관광객이 들리는 곳이기도 하다.

수년전만 해도 이곳에는 많은 상가와 숙박시설들이 무질서하게 들어서 神聖한 山이라기보다 복잡한 시정거리 같았다. 이것을 정리하는데도 業主들의 반발로 많은 고충을 겪었지만 처음 상가와 접객업소를 불러 들이는데도 애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설악산을 개발하기 위해 왜정 말년에는 東草邑長으로 재직중이던 朴祥喜씨가 일본인 강원도지사를 가마에 태워 中道門에서 비선대까지 안내하며 雪嶽山을 개발해 달라고 애걸하였는가 하면, 사진작가 崔

九鉉씨는 고인이 된 李達永씨와 함께 交通遞信部를 찾아가 특별예산을 얻어 雪嶽山觀光호텔을 지어놓고 제일 귀한 손님으로 李承晚 대통령을 모셨다 한다.

때는 무더운 8月이라 이박사가 양복속에 입은 땀받이 삼베 조끼가 한국인의 체취를 물씬 풍겨주어 어찌나 마음에 들었는지 사진에 남겨두고 싶었다. 경호원의 제지로 찍지 못한 것이 지금도 마음에 걸린다 한다.

收復地區 民政移讓後인 62년에 영국황실 아세아학회원 90여명을 유치하기 위해 교섭하였으나 자동차 길이 없어 못오겠다 하므로 국방부를 찾아가 일선군인들의 협조를 얻어 길을 닦게 되었는데 서울서 속초로 가는 버스안에서 우연히 공사 책임장교를 만나 공교롭게도 한 좌석에 앉게 되었다 한다. “최구현인지 이달영인지 그 새끼들 때문에 쓸데없는 고생을 하게 되었다”며 불평하는 욕



朴 益 勳 / 老人 學校長

설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한다.

군부대의 덕분으로 길을 닦은 후 “영국왕실 아세아학회원”을 유치하게 되었는데 東草에서 아침 11시 출발한 차가 오후 7 시반에 겨우 신흥사에 도착하였다 하니 무려 8시간 반이나 걸린 셈이다. (지금은 20분이면 족하다)

雪嶽山 생기고 처음 맞이하는 외국인단체손님인데다가 여러나라 사람들이 모인 대접단이므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軍발전기를 빌려다가 전등을 밝히고 군악대를 동원시켜 대대적인 환영을 하려 하였는데 발전기를 돌리자마자 잠깐 켜졌던 전등도 갑자기 꺼지고 “야아”하고 울렸던 환성마저 사라지고 마니 깊은 山속은 철야로 변하고 말았다 한다.

부풀었던 꿈이 어둠 속에 잠기고 말자 애쓰던 지방유지들은 有口無言이고 外國人 들은 알 수 없는 말을 지껄려가며, 신흥사 보제루에서 밤을 지새웠다 한다.

다음날 아침, 먼동이 트기 시작하자 암흑속에 잠겼던 못 靈峯들과 奇岩怪石들이 신비스런 大自然의 姿態 그대로 보이기 시작하자 그들은 ‘원더풀, 원더풀’을 수없이 연발하며 기뻐하였다 한다.

그들은 아침 일찍 비선대에 올라가 맑은 물, 우거진 숲, 시원한 바람,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경관에 도취되어 예정보다 더 놀다가 가겠다는 바람에 설악산 선전은 고사하고 뒷바

라지하는데 혼이 났다는 것이다.

雪嶽山觀光호텔을 짓고 유치한 관광객은 美8軍과 前方장교들이 고작이었고, 일반 관광객을 맞이할 숙박시설이 없어 숙초시내 요소 요소에 광고문을 내붙이고 영업희망자를 모집하여 폐장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으나 찾아오는 관광객이 적어 적자를 보게되자 업자들이 불평은 점점 높아만 갔는가 하면 그들은 어느 여름날 “못살겠다. 崔九鉉, 李達永 물아 내자” 외치며 항의데모를 시작하였는데 때마침 난데없는 소나기가 갑자기 쏟아져 데모는 중단되고 그들중에서도 “崔九鉉 李達永이 무슨 죄가 있냐”하며 만류하는 사람도 있어 사태는 무사히 수습되었다 한다.

崔九鉉씨는 自己私財를 들여 설악산엘범을 만들어 내외인사들

에게 무상으로 배부해 가며 雪嶽山 개발에 애썼지만 山과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살아 있는 자신은 침묵만 지키니 四時之序에 成功者去라는 옛 先人들의 경험철학이 世人의 무관심속에서 시간과 함께 흘러만 가는가 보다.

처음 이곳에 온 것을 후회하던 業者들이 철거할 때는 못떠나겠다고 소란을 피웠으니 ‘人心은 朝夕變이요 山水는 古今同이라’는 말이 평범하면 서도 무엇인가 뜻있는 교훈을 주는 듯 느껴진다.

北쪽 山기슭에 당시 세워진 관광호텔은 수많은 사연 들을 간직한 채 어느 富豪의 별장처럼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小公園入口 溪谷 언덕밭이에 서있는 三層石塔은 신라 진덕여왕 6년 慈藏律師가 세운 것으로 임진왜란때 6층은 파괴



권금성

되고 삼층만 남았다 하며 지금은 寶物 第443號로 이곳이 千三百數十年前에 香城寺의 절터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호텔앞 神興寺入口에 서있는 一柱門은 단청도 화려하고 斗拱도 特出할 뿐 아니라 ‘雪嶽山神興寺’란 현판이 유난히 돋보여 지나가는 길손의 눈길을 끈다.

一柱門 오른편 山기슭 우거진 숲속에 자리잡고 있는 浮屠群은 지나간 風霜이 人生無常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육신의 나이와는 아무 관계없이 영원의 젊음인지 스님들의 그 모습들은 간 곳이 없고 褪色된 돌 조각에 연륜만 쌓여가고 있다.

蒼空 높이 權金城을 내왕하는 설악케이블카는 古代와 現代를 이어주는 交通의 利器로 등장하여 고대에 현대를 수놓은 것인지 現代文化에 古代의 香臭가 풍기는 것인지 이곳이야 말로 僧과 俗이 함께 하고 古代와 現代가 共存하는 文化꽃 향기로운 값진 勝地라 아니 할 수 없다.

#### 〈權金城〉

雪嶽山 소공원에서 남쪽을 바라보면 하늘을 찌를듯한 평장한 山峰이 바로 海拔 860 m나 되는 古山城 권금성이 있는 봉우리다.

權金城에 대한 여러 異說들이 많은데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44 襄陽都護府條에 “在雪嶽頂 石築 周一千一百十二尺 高四尺 今半頽落 俗傳 昔有 權金二家 避亂于此 故名 洛山寺記 耿云 天兵闖入我疆 是州於雪嶽山 築城守禦 疑即此” (설악산

꼭대기에 있으며 석축이다. 둘레는 1,112尺이고 높이는 4尺이었는데 지금은 반쯤 무너졌다. 세상에 전해오기를 “예전에 권씨 김씨 두 집이 여기에 피난한 까닭으로 이름하였다” 한다. 낙산사 기문에 “元나라 군사가 우리 강토에 마구 들어왔는데 이 고을에서는 설악산에다 성을 쌓아서 방어하였다” 한 곳이 여기인가 의심된다) 하였고, 同書 佛宇 洛山寺條에 의하면 “…… 水精念珠及如意珠 藏於是寺 傳寶之 癸日歲 天兵闖入戒疆 是州於雪嶽山 築城守禦 城陷 寺奴 取水精念珠 及如意珠 埋於地而 亡走 上告于朝 兵退 遣人取之 藏於內殿……” 풀이해 보면 수정neck과 여의주는 이절에 보관하여 보물로 전해 오다가 계축년에 몽고(元)병이 우리 강토에 쳐들어왔으므로 이 고을 설악산에 성을 쌓아 방어하였다. 성이 함락하자 절에 있는 종(奴)이 두 구슬을 땅에 묻고 도망쳐 조정에 고하였다. 침입군이 물러간뒤에 사람을 보내어 구슬을 가져다가 내전에 간수하였다는 것이다.

天兵은 胡兵 즉 몽고병을 이른다. 癸日年은 고려 고종 40년 즉 1253年이다. 文獻上으로 보아 이 城은 고려때 쌓은 城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文獻備考에는 이 城을 土土城이라고도 부른다 했다. 단국대학 박물관장 鄭永鎬씨는 이 城은 전형적인 新羅時代의 寺刹築城 양식으로 토성문이 七星峰을 향한 고갯마루에 자리잡아 이 城에서 외부와의 通路는 唯一한 七星峰通路가 사용

되었다 한다.

城의 규모자체가 전부 寺刹守護形態로 이와 같은 고증은 현재의 권금성 뒤편 寺址에서 출토된 瓦堂類에서 신라시대의 기와와 고려시대의 기와들이 수없이 발견되어 築城當時 이미 사찰이 들어서서 사찰에 의한 축성으로 단정했다.

寺刹에서 나온 기와는 七星峰 南쪽에 있는 陳田寺址의 기와류와 형태와 년대가 일치하여 權金城內의 사찰이 統一新羅時代의 禪宗의 발생지인 陳田寺의 附屬寺로 추정되어 寺刹築城이란 確信을 남겼다.

수년전만 하더라도 양양군수 李德元和 山賊魁首 吉吉洙의 사연을 새긴 碑石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말았다 한다.

이런 점으로 보아 이 城은 敵을 방어하고 주민들의 피난에 필요했을 뿐 아니라 때로는 도적의 소굴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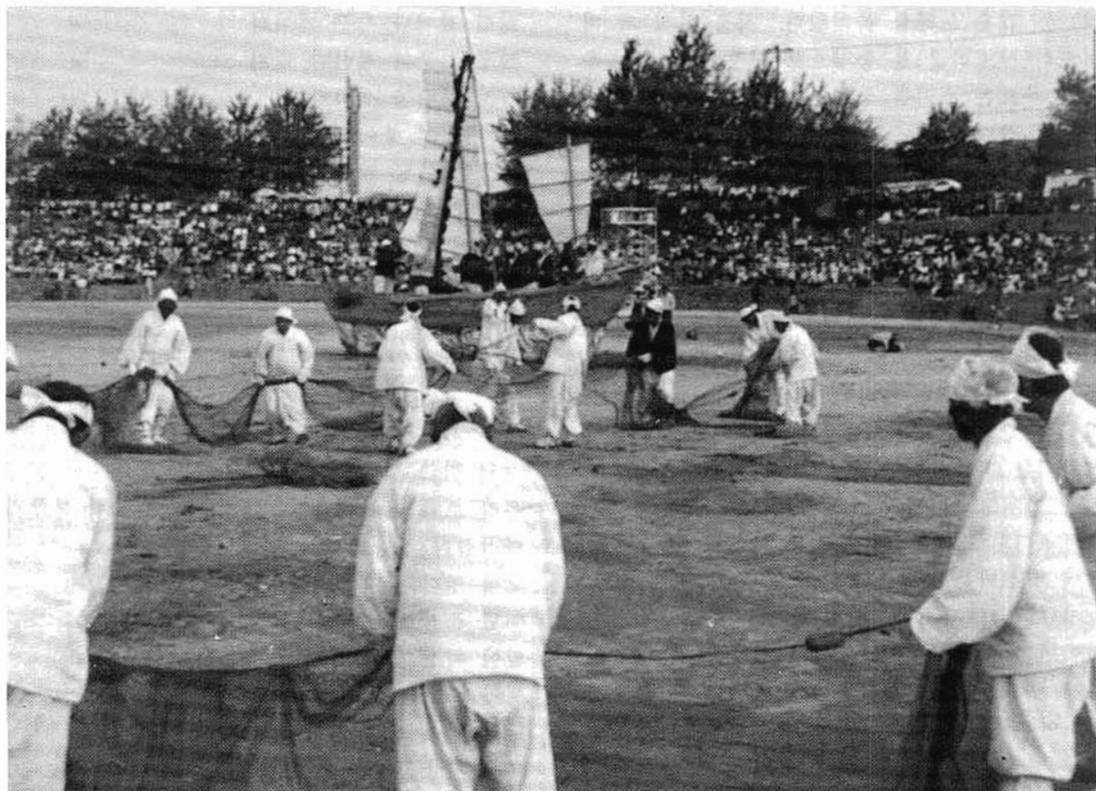
外雪嶽에 들어서서 권금성으로 오르지 않고서는 설악을 구경했다할 수 없을 정도로 전망이 좋아 年中探勝客의 발길이 끊기지 않는다.

근년에 세워진 安養菴에서 들려오는 讀經소리, 조그마한 산장에서 마시는 茶맛,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울산암의 신비, 아득히 보이는 동해바다. 이곳이야 말로 仙境이요 極樂이다.



# 속 초 산 대 소리

- 제3회 강원도 민속경연대회 종합우수상 -



85년 6월 13, 14 양일간 속초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제3회 강원도 민속예술 경연대회는 일기불순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성황을 이루었다.

21개 시·군이 경연을 벌인 결과 인제 뗏목놀이 「종합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유일하게

민요부문으로 참가한 속초팀은 2위인 「종합 우수상」을 차지하였다.

제3회 강원도 민속 예술 경연대회 속초시 출연 작품 「속초 산대소리」 그 내용을 소개한다.

〈제공 : 속초시 공보실〉



〈개 요〉

속초지방은 예로부터 생활터전이 바다이므로 어업에 대한 민속이 많이 전하여지는 곳이다.

그중 엄격한 규율과 금기사항, 힘든 조업과 오랜 선상생활을 극복하기 위하여 저어소리(노젓는 소리), 다리어 소리(그물 당기는 소리), 산대소리(가래푸는 소리), 베끼 소리(고기 벗기는 소리) 등 많은 노래를 불러왔다. 사공(선장)과 허리도리(선소리꾼)를 중심으로 어부들이 호흡을 맞춰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신명이 저절로 나게 되는데 산대소리는 그 구성이 크고 웅장하며 베끼소리는 4/4박자의 경쾌한 음조로 뱃소리의 극치를 이룬다.

지방마다 뱃소리는 서로 다르지만, 동해안에는 크게 강원도식과 함경도식으로 분류 되는데, 강원도식 뱃소리는 짜임새가 단순하면서도 소박한 것이 특징이고, 함경도식의 뱃소리는 잡담(사설)이 풍부하고 강직한 것이 특징이다. 속초지방은 강원도 지역이면서도 함경도의 풍속들이 교차되는 지역으로 뱃소리 또한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뱃소리의 구성은 몇 소절을 제외하고는 전형적인 뱃소리는 없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시조, 고사(故事), 판소리, 패설 등을 사설로 삼입된 것이며 정형없이 늘 부르던 사설을 그때그때 다르게 부르고 있는 것이 판소리나 기타 농요에 비하여 다른 것이 특징이다. 사설내용은 어부들의 희비애락을 노래한 것이 거의 전부이다.



〈뱃소리 내용〉

• 저어소리

항해할 때 노젓는 소리  $\frac{2}{2}$  박자의 경쾌하면 서도 애조를 띤 노래이다.

(앞소리)

행 해  
세월아 네월아 가지를 말아  
알뜰한 청춘이 다 늙어간다  
지어라 내지-  
이팔청춘 그림도다  
저달 보고 울지를 말아  
간다더니 왜 왔던가  
기암기산에 왔던 걸음  
밟힌 잠이나 자꾸 가거라  
자꾸 가구나 지어라 내지  
가지 만사를 생각하며  
이 가슴이 불이 붙는다  
오동추야 달 밝은데  
님의 생각이 절루만 난다  
지어라 내지 지어라 내지  
요차 보자 지어라 내자  
가자 가자 빨리가자  
이수 건너 백로가자  
백로 함께 어서가자  
조그만한 자라등에  
크다 하는 저달을 신고  
우리 고향 언제가나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 진다 설위마라  
명년 춘삼월 호시절에  
있이 피고 꽃이 핀다  
저어라 보구지 지어라 내자  
님아 님아 정든 님아  
요 내가슴을 만지어 보아라  
청청 하늘에 별두나 많다  
지어라 보구지 지어라 내자

(뒷소리)

지어라 보구지  
지어라 내~자

지어라 보구지  
지어라 내~자

• 다리어소리

그물 당기는 소리로  $\frac{4}{4}$  박자의 전형적인 뱃 소리로 매우 빠른 가락이다.

(앞소리)

보국청병 일인호야

(뒷소리)

다리어-

부산이 등실 높이 뒀다	”	(앞소리)	(뒷소리)
양국에 잦은 안개	”	에라소 가래소	에라-소 가래로다
월봉으로 돌아든다	”	퍼실어 보자	”
오월이라 오단오날	”	천안삼결 능수버들	”
양류속에 그네매고	”	지땀에 젖어 축 늘어졌다.	”
그네뛰는 요치녀야	”	이번 산대는 성주님 산대요	”
한번 굴러 앞줄 높이	”	다음 산대는 사공님 산대요	”
두번 굴러 뒷줄 높이	”	다음 산대는 사공님 산대요	”
삼사번 굴러내니	”	아가 동자야 술부어라	”
녹수청산 자진토다	”	매일장춘 먹고나 놀자	”
말없는 정산이요	”	아니먹고 아니쓰면	”
태가없는 유수로다	”	왕장군이 고잘래야	”
값없는 청풍이요	”	춘추시절은 적막인데	”
임자없는 이몸이라	”	개고충은 녀을 잃었다	”
일락서산 해는지고	”	산천초목은 굶어 가는데	”
월출동산 달이뒀네	”	인간청춘 늙어간다	”
간다간다 나는간다	”	산도 설고 물도 설은데	”
임을두고 나는가네	”	무엇하러 여기에 왔더냐	”
내가가면 아주가나	”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	”
아주 간다고 잊을쏘나	”	고대광실 높은 집에	”
가실적에 오마 하더니	”	살림 큰애기 안고 노는데	”
가고나니 그만이구나	”	우리 팔자는 기박하여	”
우리부모 날 양할제	”	이런 고상 하는구나	에라-소 가래로다
젖은자리 마른자리	”	푸른푸른 봄배추는	”
이리저리 가려늘혀	”	찬이슬 오기만 기다리고	”
이런고상 시킬려고	”	옥에 갇힌 춘향이는	”
세살적에 종이 나뒀으면	다리어-	이도령 오기만 기다린다	”
이런고상 없을텐데	”	이부자리 좋-다	”
금강산이 좋을시고	”	왕구성 풍-세	”
동해끼고 솟은산이	”	셋별 낫요강이	”
일만이천 봉우리를	”	사람간장 다죽인다	”
구름같이 물렸으나	”	산수갑산 딱다구리는	”
천하명산 그어디냐	”	참나무 구멍을 뚫는데	”
장안사를 구경하고	”	우리 저 멧텅구리는	”
만경대를 올라가니	”	뚫린 저 구멍도 못뚫는다	”
마의태자 어디갔나	”	세상만사는 무과주요	”
보고보고 앞만봐도	”	술이나 먹고 놀아보자	”
보배인들 배이어라	”		

• 산대소리

그물에 담긴 고기를 산대에다 담을 때 부르는 소리로  $\frac{4}{4}$ 박자의 장중하며 느린 소리이다.

• 배끼소리

그물에 걸린 고기를 벗길 때 부르는 소리로 가장 경쾌하고 사설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고 어부들에게도 가장 신명나는 소리이다.



위는 무리가 없는한 연회하지 않기로 했고 소품은 정확한 고증에 의하여 약 100년 전의 겨울 출어모습과 소리를 재현했다.

• 출 어 - (출어교사는 생략) 노젓는 소리를 하며 「비아다리」배기 경연장(바다)로 나온다. 돛을 올리고 노젓기를 그친다. 이때 그물을 치고 바다 한 가운데까지 오게 된다. 뒤이어 오리그물(길게 늘어놓은 그물)을 메고 선원들이 같이 지어소리를 하며 중앙에 도열하게 된다.

(경연장에 그물을 메고 나가는 선원은 배위에서의 내용을 확대하여 보여 주게 됨)

• 조 업 - 사공의 지시에 따라 쳐진 그물을 일제히 당기며 그물 당기는 소리인 「다리어」소리를 한다. (이때 그물 당기기 전에 많은 고기가 잡히도록 간단한 고사를 지낸후 그물을 당김)

• 산 대 질 - 사공의 선창에 맞추어 가래(산대)로 고기를 퍼 담으며 「산대」소리를 한다.

• 선상작업 - 끌어 올려진 그물 안에 코에 걸린 고기를 베껴내는 작업을 하는 「베끼」소리를 한다. 고기를 다베끼고 만선임을 확인하고 사공은 즉시 화장(취사일을 맡은 사람)을 시켜 만선기를 바닷물에 세 번 적신후 올린다.

• 귀 향 - 만선기를 달고 돌아 오면서 흥겨운 지어소리를 하여 부모형제들이 기다리는 항포구로 돌아오게 되며 돛을 서서히 내린다.

〈출연 소개〉

- 선 소 리 - 김형준(70세) 속초시청 학동 4통1반  
박남준(74세) 속초시청 학동 4통4반  
김동성(70세) 속초시청 학동 5통1반
- 어 부 - 조일량외 46명
- 소품제작 - 공정안외 39명
- 채 록 - 최임규 (속초전문대학교수)
- 고 증 - 최임규, 박남준
- 지 도 - 김종달 (속초민속보존회)

半世紀 前에 이미  
오늘의 속초發展을 設計

## 故 朴祥喜 읍장의 行蹟考察



李時行

公의 諱는 祥喜요, 號는 樵隱이요, 密陽人 으  
로 서기 1890年 章沙洞 章川里(現 章沙洞)에서  
출생하여 소년시절에는 漢學을 전공하고 青年期  
에 이르러 新文學에 눈을 뜨고 中道門里(道門洞)  
에 移居하여 雙川書塾에서 新學을 연수하였다.

그 당시 같은 마을에 살고 있던 구한말 中樞  
院議官이며 初代 道門面長을 역임한 바 있는 雪  
樵 李錫範翁의 薰陶을 받아 卓越한 人格이 형성  
되었다고 전하여 온다.

公은 타고난 天質이 英敏하고 용모가 단정하  
며 六尺居軀에 또한 진장하여 威儀가 출중하고  
善談雄辯으로 偉風이 堂堂한 豪傑文士로서 장래  
가 지극히 囑望되었다.

靑壯年期의 시대적 배경을 논한즉 日帝는 3·1  
운동의 격돌기를 거쳐 그 氣勢가 자못 熾烈한와  
중에서 隱忍自重하여 국내외의 諸般情勢를 銳意  
觀望하더니 1920년대에 이르러 憂國哀正의 큰뜻  
을 품고 義와 勇으로 中道門里 李載勳, 金英經,  
李鍾國 下道門里 李相赫, 李載嫻, 大浦里 朴士  
集, 내물치리 金德弘, 溫井里 金龍鎬, 尺山里  
李圭煥, 桃李院里 李相鳳등의 지방유지들과 交  
遊하면서 叫合提携하여 地方勢의 확장에 先驅의  
인 역군이 되었다.

이러한 時代的 環境에서 日帝는 公의 峻嚴한  
인품과 풍채에 두려워하는 나머지 德柔策으로  
1935年 江原道評議員에 위촉하고 地方勢의 확대  
를 견제코자 하였으나 항시 의연한 자세를 유지  
할뿐 그의 강직한 憂國丹心은 감히 제어하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은 高邁한 人格과 凜凜한 偉風에 더욱  
초조한 日本은 1928년에 도문면장을 薦舉하여  
예속코자 부심하였다. 如此한 立地에 당함께 크  
게 각성한바 있어 의연히 분기하여 地域開發을  
도모하여 도탄에 빠진 民生苦를 구출하는 一役  
도 憂國하는 길이라 看破하고 而長의 職責을  
교묘히 이용하여 당시의 立地의 인 與件과 환경  
에서는 도저히 그 누구도 構想조차 할 수 없었  
던 束草의 開港에 착안하고 1930년부터 이 원  
대한 開拓事業을 위하여 험난한 형극의 길을 택  
하였으니 어찌 위대하다하지 않으리요? 그 기발  
한 叡智와 度量은 果是哲人에 족하다 할 것이다.

公은 이 방대한 開港의 大役事를 수년간의 獻  
身의 인 노력으로 市場이 개설되고 築港의 기반  
이 조성됨에 따라 束草의 發展을 더욱 촉진시키  
기 위하여 1937年 道門面所在地를 大浦로 부터  
속초에 移設하는 작업을 거뜬히 成就하였다. 此  
에 同調한 各급 기관을 물론이며 日人의 小學校  
까지 점진적으로 이전하게 되니 명실공히 小都  
市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속초시의 기초가  
된 것이다.

公은 이에 편승하여 農漁村의 産業振興에도  
주력하는 동시에 農漁民을 계도하여 愛國心을  
고취시켜 自力更生의 길잡이가 되었을 뿐만 아  
니라 더불어 遠視的인 속초항의 개발을 위하여  
靑草湖 내항의 위치적 중요성을 대내외적으로  
表榜하여 軍港施設의 切要함을 力說하고 시행방  
법으로 기존 防波提를 속초섬까지 연결하는 설  
계를 유도하였다 함은 실로 奇想天外의 발상이



박상희 읍장비

라 높이 평가하며 또한 陸路의 開拓之計는 京春鐵道(당시 南北橫斷鐵路)의 연장을 절실히 強調하여 그 당시 이 地域까지 設計測量을 畢하였으나 때는 태평양전쟁의 종말기로 日帝는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國力の 衰盡으로 비록 實踐은 되지 않았으나 鼓舞的인 事實만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公은 鐵道の 延長을 병행하여 彌矢嶺道路의 新設事業과 下道門里의 部處保護를 위한 雙門提防工事は 그 당시 방대한 國庫補助金으로 民生苦의 해결은 물론 東草地域發展에 기여한 바 지대하며 또한 地方道路의 開設擴張工事的 추진으로 陸海의 交通이 원활하게 됨에 따라 매사의 급진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1942年 드디어 2萬餘名을 포용하는 속초읍으로 승격되는 榮光을 누리게 되었으며 公은 初代邑長으로 추대되었다.

回顧하건데 道門面에서 보잘것 없는 1個 한적한 漁村에 불과했던 東草津이 公의 기발한 發想으로 開拓에 着手한지 12年만에 小都市로 浮刻되었으니 기적이라기 보다 公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성취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은즉 그 위대함을 높이 讚揚함이라.

公은 初代邑長으로 重責을 통감하고 더욱 정력과 心血을 경주하여 邑民의 福祉向上에 盡力함은 물론 不斷한 東草開發을 위하여 晝夜勞心 焦思하였으나 수년간의 과로로 인한 身病으로 隱退하고 永朗湖畔에 一間 草堂을 짓고 晩年에 悠悠自適하며 한적한 歲月을 보내던 중 1948年 향년 59세로 서거하니 全邑民의 哀痛之感을 어찌 무엇으로 表現하리오!

公은 東草가 배출한 최대의 豪傑文士요 憂國志士요 開拓의 先驅者라 하겠으며 公인이 남기신 地域開發의 지대한 業積과 東草에 기여한 공로는 東草市의 史錄에 길이 기록되리라.

끝으로 附言코자함은 현재 收復塔 옆에 세워진 故 朴祥喜 邑長의 頌德碑를 바라볼 때마다 아쉬움과 서운함을 느끼게 된다.

그분의 業積이나 公德 또는 人品으로 보나 頌德碑 주변 환경이 너무나 초라하며 路上에 방치되어 보는 이로 하여금 우울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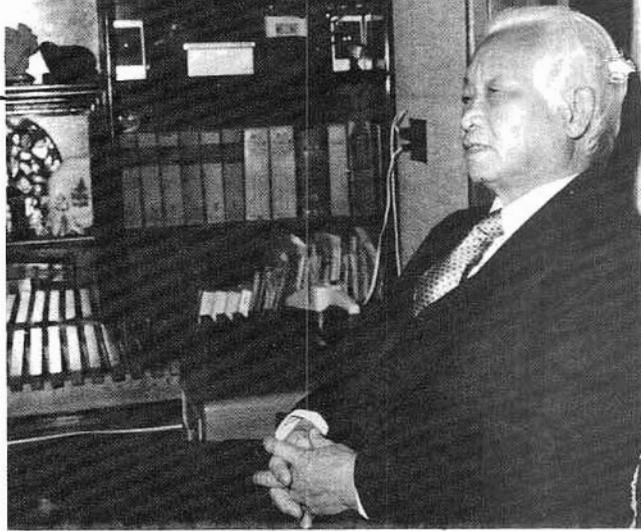
이 碑는 이 고장이 收復된지 얼마되지 않아 세워진 것이기에 당시 실정으로 보아 어려운 여건 하에서 온 市民의 精誠어린 성금으로 당초 市廳 앞 광장에 세워진 것이다. 그후 동명동 防壕위에 옮겨졌으나 당시 주민들의 여론이 분분하여 다시 收復塔 옆으로 또 옮겨져 現 路上에 서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碑身도 초라할 뿐 아니라 碑文도 마모(磨訛)되어 여러 사람이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여러모로 보아 그분의 功德을 기리는 精誠이 소홀함이 엿보인다.

앞으로 東草地方에서 많은 人材들이 배출되리라 믿으면서 현재까지는 故 朴祥喜 邑長같은 先覺者는 일찌기 없었으며 筆者의 소견으로서는 이분 業積과 人品을 깊이 기원하여 碑 또는 環境淨化事業을 하여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 山과 人의 영원한 동반자

## 李基燮박사



李基燮 박사(醫博).

그는 인술을 베푸는 의사이기에 앞서 산악인으로, 그리고 자연보호의 선구자로 더 잘알려지고 있다.

李박사는 칠순의 만년에도 설악의 기슭에 자리한 단칸방에서 인근 산간벽지의 무의촌진료와 설악을 오르내리며 산을 보호하는 일에 분주한 나날이다.

그는 사치를 모른다. 거짓말을 모른다. 명성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특히 산을 아는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를 모르는 이가 없다. 매스컴의 덕분이다. 덕(德)은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널리 알려져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된다는 것은 크나큰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이박사의 소개는 그의 약력을 약술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미사여구의 사족을 단다는 것은 낱말만 길어질 뿐 아니라 소설(小說)과 같이 지나친 가공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박사는 황해도 수안군 수안면 하도리에서 1913년 11월 9일 1남3녀의 막내로 태어났다. 8살까지 서당에서 천자문을 배우다 마을의 사립학교에 입학했다. 4년 수료후 수안공립 보통학교에 전학했다. 16세 되던 해에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해주공립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다. 4년때에 식민교육반대와 몇 일본인교사의 배척을 내걸고 단식동맹휴학에 가담하여 퇴학처분됐다. 이같은 단식동맹휴학에 의한 퇴학처분으로 국내에서는 면학의 길이 막혀 다음해에 일본에 건너가 광도에 있는 광능중학교 4학년에 편입, 무사히 졸업을 하였다. 졸업과 함께 귀국하여 농촌에서 치료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하

시고 간염으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같이 시골의 딱한 사람들을 구해야겠다는 결심에서 세브란스의전을 지원, 입학한 것이 뜻대로 그의 오늘날 인술을 농어촌 벽지 무의촌에 펼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의전 4년 겨울에 평양에서 함동실씨(당시 이화의전 1년생)와 결혼하고 38년 졸업하면서 바로 모교에 조수로 남아 의학연수를 계속하다 40년 10월 경도대학에 유학, 수학을 마치고 43년 귀국해 세브란스의전 전임강사로 일하기 시작했

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의술을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는 2차대전 말이라 국내에는 한국인들이 군사시설 노역장에 동원되어 하루에도 수백명씩 부상과 각종 질병에 죽어가던 때인지라 이들의 치료만도 모든 의사들이 몸을 쪼개서 써도 모자랐다.

이박사도 조선군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수영비행장에 파견되어 인부들의 치료에 나섰다.

해방이 되었다. 이박사는 해방 다음해인 46년에 서울 적십자병원 외과과장으로 취임하였다. 여순반란사건시 아군과 민간인들의 치료에 헌신했으며 49년 6월 26일 저격당한 백범 김구 선생의 시체검안을 하기도 했다. 이박사는 지금도 당시를 생각하면 「세상에 그 위대한 애국지사를 일개의 군졸개가 총구를 들이대다니-」 밤잠을 이룰 수 없다고 분함을 토로하곤 한다.

50년 6.25가 발발하면서 병원과 피난민들의 전상자들의 치료에 임했다. 51년 8월 서울로 복귀 후 해군군의관으로 입대하여 53년 1월에 해군예비역대위로 제대, 귀원했다.

53년 4월 이화여대의 부교수, 다음해 4월 교수로 승진하면서 이대부속병원장으로 취임했다. 미군민사처로부터 1만달러어치의 시멘트와 콘크리트를 원조받아 5층건물로 증축하고 과(科)도 늘리는등 병원을 확충했다.

이후 한국산악회이사와 서울산악회 2·3 대회장을 맡으면서 산사람들의 극기와 체계 있는 산행을 가르치고 또한 조난자들의 구조에 노력했다.

당시 서울법대생 한라산조난 때의 흥 종인 회장과 함께 구조에 나섰으며, 친구들과 북한산의 백운대에 올랐다가 조난당한 송모군을 2일만에 구조하기도 했다.

56년 동도대학에서 연구논문이 통과, 박사학위를 받았다.

60년 4.19가 나면서 정계동·온릉 세상이 시끄러웠다. 서울이 싫었다. 다음해에 흔쾌히 학교를 후진들에 맡기고 설악산을 끼고 있는 속초에 내려와 개업의를 하면서 틈나는대로 산행을 하고 무의촌진료를 하면서 또한 「자연보호현장」을 나름대로 손수 만들어 전단을 뿌리기도 했다.

64년 설악산악회를 조직하고 초대회장에 취임했으며, 66년 10월 1일 제1회 설악제를 개최한 것이 올해로 어언 20회 행사를 갖게 이르렀다.

설악산이 197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도 이박사의 지대한 공로가 들어 있다.

국제자연자원보존연맹의 조사에서 인적침해를 받지 않은 원상을 보존하고 있는 지역으로 확인된 것인데 이같이 설악산이 자연보존지구로 남으려는 이박사가 벌인 「자연보호캠페인」이 큰 몫을 했으며 또한 조사반에 제공한 이 일대에 서식하고 있는 희귀한 동식물의 수도 상당했기 때문이다.

이박사가 산악생활에서 가장 가슴아팠던 조난 사고는 69년 2월 14일 해외원정을 위한 동계훈련차 이희성 대장이 이끄는 10명 대원의 「죽음의 계곡」 조난사였다.

이박사는 이때에도 구조반을 총 지휘하여 3일만에 시체를 찾아 설악산 양지바른 곳인 노루목고개에 안장한 것이다.

설악관광개발주식회사 (회장 한병기)가 1970

년 설악동과 권금성을 잇는 케이블카를 설치, 이 박사는 사장에 취임했다가 2년만에 그만두었다. 천직이 의사인 그로서는 사장이 생리에 맞지 않았다. 인술과 자연이 오직이다.

72년 2월 제주도로 떠났다. 도립병원 서귀포분원장으로 취임했다. 서귀포산악회원들과 같이 한라산 북벽에 등산로를 개척하였고, 샘을 찾아내 「백록샘」이라 이름짓는등, 한라산의 동반로 개척과 자연보호에 크게 이바지했다.

조선일보에서는 74년 2월 이박사에게 조난자 구조에 공이 크다고 사회봉사상 인(仁)상을 수여했다.

이박사의 꿈은 산악학교와 노인병원 설립이었다. 이대 김옥길 총장이 등조하고 나서서 설악산피골에 2만평의 부지를 마련했으나, 곧 국립공원 시설단지 D지구로 묶여 버리는 바람에 이박사의 꿈은 지금까지 보류되고 있다.

75년부터 속초시보건소장, 도립속초의원 외과과장을 지내다 83년에 병원을 떠났다. 이후 틈틈히 산행을 하면서 한달에 한 두차례씩 무의촌진료에 나서고 있다.

이박사에게는 더 큰 계획 두가지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농어촌 보건의료사업협의회 창설이며, 또 하나는 노인촌의 건설이다. 끝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박사는 이 두가지 계획을 서서히, 매 순간마다 쉬지않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박사는 자연이 인간에게 갖는 의미를 첫째, 생활의 장소, 둘째 학술연구의 장소, 셋째 인간 정신부활의 장소 세 가지로 보고 있다.

그는 스스로가 이 세가지 의미의 현현이다. 이 박사, 그는 내 고장 아닌 우리 모두가 추앙하는 인물임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

崔 龍 文  
<본지 편집위원>

도시락 군수

# 朴 夏 榮



郡守시절에도  
도시락을 싸들고 출근하고  
매사에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성품은  
평생 그의것을 상사의 위엄을  
위하여 바치고 부하의  
공로로 나누어  
주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직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향하여 성실하게 그리고 不斷히 노력할때 運命의 神도 결코 외면만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실천한 人物이 바로 朴夏榮씨다.

지금 7旬이 넘은 그는 身老에 앞서 心老의 현상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老益壯의 모습으로, 이는 타고난 체질만이 아닐 것이다. 그는 少時에 晝冊과 더불어 하루 해를 꼬박 넘기는 경우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고 한다.

항시 그 성품이 겸손하고 온화하기에 權謀術數를 모르며 차분하고 도량있는 典型的인 地方行政官僚로서 평생을 公職에 몸바쳐 왔으며 그 博學한 지식은 그를 아는 이들의 定評이다.

6.25전란을 전후하여 불혹 40대에 黑頭의 郡守로서 威名을 떨쳤던 박씨는 원래 타고난 재능으로 행정수완이 남달리 뛰어나서 강원도내 일선 공무원들의 선망과 존경의 對象이었다.

젊은 시절에는 豪酒家로서 청탁을 가리지 않는 斗酒不辭였으나 근래에 와서는 愛酒家로서 심신에 맞게 酒量과 흡연을 조절하면서 건강관리에 유념하고 있다. 지금도 그 건강한 체구와 왕성한 氣魄은 젊은 그 누구도 탐내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는 아마도 마음의 평온한 생활, 매사를 순리에 따르는 관념에서 온 결과라 하겠다.

시기 질투를 모르고 오직 정직과 성실 그리고 실력과 분수에 따라 처신하는 것을 평생 생활신조로 삼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官界를 떠난 후 일시 政黨에 헌신한 바 있으나 이는 그의 人品과 良心이 사회의 존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黨이 인식하고 그를 간곡히 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첫째는 저변의 서민대중의 가려운 곳을 찾아서 고통을 덜어주고 民意를 반영하여 진정할 민주보전을 가져오기 위함이고, 둘째는 마음 속에 恨이 맺힌 이복의 고향땅을 하루속히 통일시켜 그리운 망향 金化郡에 가고 싶은 심정에서 이에 응한 것이다.

古書의 句節에 「道人不聞 至德不得 文人無己」라 있는데 즉, 군자는 명성을 휘날리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德을 행하다보니 재물이 없고, 文人은 결코 자기의 존재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뜻이다.

이는 바로 朴夏榮씨에게 합당한 句節이 아닌가 본다. 자유당 시절의 官吏라면 致富와 情實의 상징이 되다시피한 시절이다. 그럼에도 朴夏榮씨는 郡守시절에 도시락을 싸들고 출근하여

「도시락郡守」로 까지 불리웠으며, 매사에 결단코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그의 천품은 평생을 통해 그의 것을 상사의 威嚴을 위하여 바치고 또한 부하의 功勞로 나누어 주었다.

퇴임하고 다시 속초에 정직한 그는 거처할 草家一間도 없어서 東家食 西家宿하여 지나던 중이 사실을 전해 들은 동시 원주에 거주하는 친지 申基淵씨의 각별한 도움으로 현재의 거처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가히 清廉함을 파악할 수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표출되고 두각을 나타내 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것이 현대문명시대의 力學일지라도 모른다. 그러나 朴씨는 지기를 과시하거나 내세우는 것을 싫어하는 인물이다.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눈물이 아닐 수가 없고 왼손 모르게 행한 오른손의 선행이 선행이 아닐 수는 없는 것이다.

이처럼 아무런 야심도 사심도 없이 오직 성실과 정직만을 신조로 삼고 자기의 功을 남에게 돌리고 뒤로 쏙 빠지는 보살의 行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朴夏榮씨와 같은 인물의 소유자가 이 社會에 많이 있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필자 : 김 옹 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 束草文化



임상빈작 「땅의 소리」 강원일보 85사진공모전 金賞作品

## 문화계 동정

### □文人動靜□

김 영준(詩人)

- 「心像」 7월호에 新作특집 "골목에서"의 8편 발표. 평론가 윤석산 씨에 의해 호평 받음.

金 鐘榮(兒童文學家)

- '85년3월 강원일보에 "다리가 다시 달린 시계"를, 「소년」 8월호에 "사진 속에 숨어버린 아버지"등 동화 발표.
- 「한국아동문학 연구」 제2집에 "빈 들녘의 소나무"와 「한국아동문학」 제2집에 "용달샘"등 수필 발표.

朴 明子(詩人)

- 第二詩集 "빛의 시내"출간 "나의 詩論九題"의 64편 수록. 강원일보사간.

李 相國(詩人)

- 첫 詩集 "東海別曲"이 「민족문화사」에서 「한국시인총서 제26호」로 출간. "밤 한섬 열리는 큰 밤나무집 아들"의 67편 수록.

이 회갑(兒童文學家)

- 첫 창작집 "엄마의 얼굴" 출간. 극동방송에서 4월부터 3개월간 입체방송됨.

### □書藝人動靜□

- 第1回 韓國書畫作家協會 東草支部會員展이 6월14일부터 1주일간 농협 2층전시장에서 개최됨. 金鍾億 支部長外 지부회원작품 30여점을 전시함.

- 第8回 雪嶽書道會展이 강원도 서화동인회에서 설악제행사의 일환으로 개최함. 농협 2층 전시장에서 霽山 池應準 雪嶽書藝學院長의 회원작품 100여점이 전시됨.

- 東海市에서 개최된 제5회 강원도 서화전에 海石 黃棟俊 외 향토서예인 20명 작품 25점 출품.

### □演劇協會動靜□

- 제18회 공연 김용락作 장규호演出的 "열

한개의 출산"을 「카페 몽셀 통통」에서 5월 29일부터 1주일간 공연.

- 제19회 공연 東草文化院 주최 청소년대상 문화강좌에 김시라作 장규호演出的 "품바 각설이타령"공연.
- 제20회 공연 합수남作 최신영演出的 "탈출기"를 설악제 행사의 일환으로 일북문화관에서 공연.

### □寫真同友會動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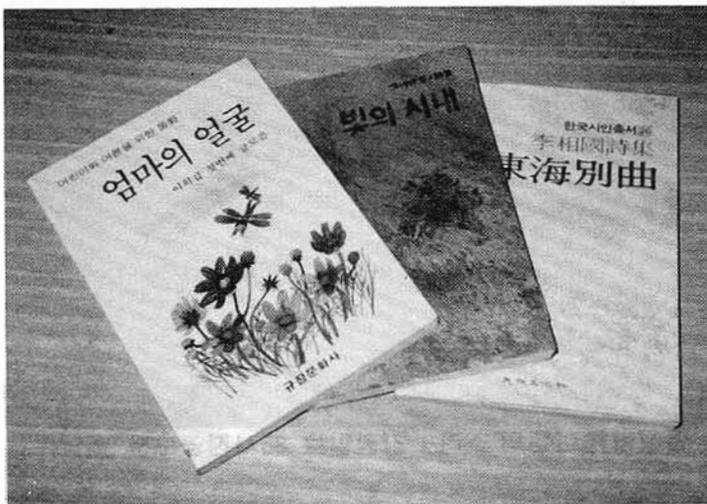
- 합동 야외촬영 인근지역 사진동우회와 합동으로 2회에 걸친 합동 야외 촬영 및 토론회 개최. 7월 16일에는 오색 주전골에서, 9월 22일에는 오대산에서 각각 열린바 當會 회원 전원이 참가.
- 제2회 영동지방 연합 사진 전시회 강릉·동해·주문진 등을 순회하는 연합 사진 전시회를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市內 "카페 다사랑"에서 개최됨.

엄 상빈

- 제18회 강원일보 전국 사진 공모전에서 "땅의 소리"로 금상 수상.
- '85 강원 미술대전에서 "家長"으로 사진부문 특선.

김 정일

- 강릉 단오제 전국 촬영대회에서 "묘기"로 입선.





□美協動靜□

- '85. 5. 26. 원주에서 개최된 美協支部長 회의에 김 영복 (지부장), 최호규(고문) 참석.
- '85. 6. 15~6. 20. 강릉문화원과 강릉시청 전시실에서 개

최된 '85 江原 100인전에 출품

- 金光秀 (설악의 잔설15號)
- 金榮福 (흔적 85-5 20號)
- 崔虎圭 (石彫作品 85-1)
- 玉明俊 (石彫 25×25)
- '85. 7. 16~7. 21.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된 제19회 한국미술협회공모전에 出品.
- 金光秀 (대포항 73×60)
- 金榮福 (흔적 85-1 73×60)
- 金南洙 (작품 85-15 92×73)
- 崔虎圭 (石彫女人像)
- '85. 9. 30~10. 5. 미협속초지부회원전을 「서원」에서 개

최. 김광수·최호규·이동명 신양순·김영복·김남수·윤재복·옥명준·최낙민·정광섭·이창수·조영주·장국보 등 회원 출품.

- 金光秀 (중앙미술학원장)
- '85. 5. 10~14.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된 함남도전에 "속초항" "4월의 설악" 出品
- '85. 8. 경주지방 스케치여행.
- '85. 10. 설악 및 오색의 자연을 담으며 의욕적으로 활동.

〈韓國演劇協會 束草支部 會員 住所錄〉

지 부 장	신 원 하	속초시 금호동 16통 3반	2 - 4300
부지부장	장 규 호	" 중앙동 11통 2반	2 - 5013
사무국장	최 신 영	" 금호동 8통 3반	2 - 707
기획실장	고 준 규	" 설악동 B지구5동	7 - 7533
제작실장	김 경 하	" 중앙동 493-5	2 - 8416
연기실장	신 오 일	" " 2통 3반	32- 4845
홍보실장	김 민 주	" " 2통 2반	2 - 6833
감 사 회 원	김 태 영	" " 2통 6반	2 - 8678
"	염 동 열	" 조양동 2통 3반	2 - 5681
"	원 기 중	" 영랑동 1통 2반	2 - 5563
"	김 귀 선	" 청학동 7통 6반	2 - 2510
"	탁 순 옥	" 금호동 5통 2반	2 - 8477
"	박 영 미	" 청호동 1통 4반	2 - 5694
"	유 정 희	" 청학동 5통 4반	2 - 4308
"	김 혜 정	" 금호동 12통 4반	2 - 5317
"	변 순 남	" 청학동 5통 2반	2 - 3475
"	윤 혜 정	" 교동 속초중학교	2 - 4985

# 國語는 文化의 尺度

尹弘烈 / 文協 東草支部長

“文章이 곧 그 사람이다……”(뷔퐁 1708~88, 프랑스의 박물학자, 수필가)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한 줄의 문장을 읽어 보면, 그 글을 쓴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하기야 사람의 생각을 음성으로 나타낸 것이 言語이고, 그 언어를 부호 즉 文字로 적어 놓은 것이 문장일진대, “문장이 곧 그 사람이다……”라는 말이 새삼스러울 것도 없겠다. 말 한 마디에도 그 사람의 지성과 교양의 혼합체인 인격이 드러나는 것은 마치 해가 솟아 오르기 때문에 아침이 되는 것처럼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국어는 바로 그 국민이라……”라는 말로도 직결되는 것이다. 국어를 보면 그 나라의 文化度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문화가 발달한 나라는 어휘가 풍부하다. 이 “풍부하다”라는 말은 어휘가 섬세하게 세분되어 있다는 증좌다. 또 섬세하게 세분되어 있다는 것은 정서적인 감정이 풍부하다는 뜻도 되겠지만, 그보다는 文化度가 높은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견해이리라.

個人間에서도 볼 수 있는데 知的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표현한다. 어휘가 풍부하기 때문이고, 알고 있는 어휘가 풍부하다라는 것은 많은 助言者를 거느리는 것파도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순수한 나라말이 외국어에 침식을 당해온지가 오래다. 전 세계의 어느

나라말치고 외국어에 약간씩의 영향을 받지 않은 언어는 거의 없다. 이른바 外來語라는 것이다. 특히 국경지대의 언어가 그렇다. 인접하여 있는 他國의 언어가 조금씩 스며들은 경우도 있으려니와 文物의 교류로 인하여 각기의 국어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고 받는 현상 또한, 어느 나라 말에나 있어 왔고 지금도 그런 작용은 가끔씩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어의 경우는 그 度가 매우 심한 것이다.

이 땅에 漢文化가 들어오기 시작하여 一千數百年이 흘러 가는 사이, 우리 국어는 약 6,7 할 정도가 漢字語化 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언어를 예로 들 필요도 없이 지금 筆者가 쓰고 있는 이 글의 독자들도 이 글의 어휘를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본다면 거의 대부분이 漢字語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서는 우리 말을 적을 수 있는 문자가 없었던 시대에 한자가 들어와 야금야금 우리 말을 몽개 버리기 시작하던 것이 三國時代, 특히 統三時代 전후하여 唐나라를 통해 漢文化가 거세게 들이닥치게 되면서 부터이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모든 분야, 즉 정부의 職制는 물론이고, 公私間의 모든 기록을 漢字로 하게 되었으니, 우리의 어휘는 전연 무방비상태에서 여지없이 짓밟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中國人式의 姓도 중국식의 人名, 地名 등이 나타나기 시작한 결과가 오늘날

우리 국민의 6.7할이 漢字語化한, 부끄럽고 통탄스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고유문자가 없었던 까닭에 우리의 말이 大量的으로 漢文語化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우리 조상들과 더불어 오늘날의 우리들의 국어에 대한 애착심이 적다는 것과 제나라 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에 대한 경각심의 부족, 그리고 그런 결과가 겨레로서의 수치스러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몽이 엉기고 뭉쳐서 오늘날의 국어가 된 것이라고 본다.

제나라 말을 제대로 못하는 백성이라면 이미 그는 主權을 상실한 아니 박탈당한 노예나 다름이 없는 처지일 것이고, 자신의 의사를 자신의 나라말로 멋 멋하고 자랑스럽게 표현할 수 없다면 지난날 일제의 압박을 받던 시대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렇건만도 오늘날에 제법 교육을 받았다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나라 말에 관하여 별로 애착도 관심도 없이 합부로 전연 필요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외래어도 아닌 外國語를 거칠없이 쓰는 것을 볼 때, 筆者는 울분을 느끼며, 한편으론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기도 한다. 어쩌면 저렇듯 무식하고, 뻔뻔할 수 있는 것인가고…….

그러면 이미 사라진 우리 말의 實例와 현재 사라져 가고 있는 말무리들에 관하여 몇 가지만을 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말을 지키고 나아가서 우리 어휘를 발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틀림없이 있었겠는데, 지금은 전연 찾아볼 수 없는 낱말 중에 來日에 해당하는 우리말이 없다. 지나간 날자를 일컬을 때 어제, 그제, 그그제라는 말이 있고, 또 앞으로 닥쳐올 날을 말할 때 모래, 글피, 그글피라고 하는 우리 말이 있건만 오늘과 모래 사이에 있어야 할 來日에 해당하는 우리 말은 완전히 없어진 것이다. 來日 이라고 부르든 明日 이라고 부르든, 그것들은 모조리 漢字語이지 순수한 우리 말은 아닌 것이다.

12세기경에, 고려엘 다녀간 사람으로 믿어지는 中國 宋나라시대 사람인 孫穆이 지은 鷄林類事라는 책에 보면 明日轉載……라는 말이 있다. 中國에서는 明日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에서는…

할제…라고 부르다는 뜻인데, 이것은……할제……가 아니라 ……올제 ……를 잘못 들었거나 잘못 적은 것이 아닐까 한다. 올제……를 바꾸어 말하자면 ……올때 ……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오늘을 지나 앞으로 올 날 ……이라는 뜻으로 올제……라는 말이 있었을 법하고 논리적으로도 그런 낱말이 있어야 맞는다. 그런데, 오늘날에 흔히 쓰이는 ……올제 = 올때……라는 말과 혼동이 되기 때문에 明日이란 뜻에 해당하는……올제……는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개념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의 낱말이 자연스럽게 도태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에는 알팍한 장삿속에 의해서 우리의 낱말 하나가 사라져 가다가 멈춰서리고 있는 것이 있다.

풍로라는 우리 말이 사라져 가는 과정에서 곧로라는 일본어가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풍로라는 名詞 자체가 순수한 우리 말은 아니고 漢字語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미 우리말로 굳어진 한자말은 外來語도, 더군다나 外國語로 다루지 않는 것이니까 풍로를 우리말로 본다. 그런 전제로 볼 때 지금 그 풍로라는 낱말이 死活의 기로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다.

日本의 석유펙회사와 기술제휴로 석유펙로를 만들어내는 우리 나라 업자가 약 5년간에 걸쳐 상업방송의 광고를 통하여 ‘……주방의 재롱동이 △△△ 석유곧로……’라는 선전을 끈질기고 즐기차게 해댄 결과로 이제는 어느 깊은 산골이고 작은 어촌이고 그리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거의 ……곧로……라고 한다. 석유곧로로 만족지 못하여서인지 전기 곧로라는 말까지로 번졌다.

지금은 △△△ 회사에서 나오는 석유펙로 상자에는 곧로가 아니고 풍로로 표기되어 나온다. 불행중 다행한 일인데 소규모 풍로 제작회사에서들은 아직도 ……석유……곧로라고 표기하고 있다. 국어에 대한 모독적 현상이라고 보아야겠다.

또 있다. 식당이나 술집 등에서는 그 식당의 종업원이나 손님들이나 접시에 담은 음식을 말

할 때, 사라……라는 말을 쓴다. 안주 한 사라, 두 사라하는 식의 말인데, 한 접시 또는 한 그릇이라고 하면 어떨까.

당구장에 드나드는 사람들치고 당구장 또는 당구라고 말하는 사람을 별로 못보았다. 다마치러 간다든가 다마장에 간다든가 하는 식으로 당구의 일본어인 다마라는 말을 즐겨 쓴다.

그런데 문제성은 당구를 다마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구와 다마라는 단어의 國籍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당구와 다마는 같은 뜻이지만 다마가 일본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거침없이 쓰다는 점이다. 국어가 뭔지 외국어가 뭔지의 구분도 못하는 경솔하고 천한 사고방식의 소유자들이다.

筆者가 自由中國엘 다녀온 적이 있다. 중국인들의 주체 의식이라든가 選民意識이 강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들 母國語에 대한 자부심, 애착심에 감명을 받은 바 또한 새삼 컸었다. 이 좁은 지면에 中國인들의 언어생활 상을 자세히 소개할 수는 없다. 우리들의 국어생활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것 몇 가지만을 들어보기로 한다.

그들은 호텔이라는 표시를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로마자로 표기하여 놓기는 하였지만, 원칙적으로는 漢字로 ○○飯店, ××大飯店 등으로, 그네들의 文字로 전통적인 名詞를 쓰고 있다. 그런 정도이니까 택시를 租車로, 오토바이를 機車로, 컴퓨터를 電腦로, 텔레비전을 電影으로 意譯해서 부르고 있더라도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까지도 외국어로 부르고 있는 실정이니 새로 들어오는 外國文物을 우리 언어감각에 맞게 번역을 한다든가 의역을 한다는 것은 바랄 수조차 없는 이유는 어디서 연유하는 것일까? 原語를 존중하는 일종의 拜外思想에서일까?

우리는 가스렌지, 텔레비전, 에어컨, 開業도 오픈, 병마개를 따는 것과 깡통 뜯는 것도 오픈(오프너가 맞지만)이라고 멋대로 부르기도 하며 아파트·오븐, 카메라, 잇빠이(가득히) 등으로 쓰고 있는 부끄럽고 창피한 현실이 아닌가.

국어는 곧 그 국민이라……라는 논리에서 더욱 수치스럽고 서글픈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들은 5천년의 문화사를 對內外的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들의 국어생활의 자세에서는 5천년의 문화사를 내세우기가 썩스럽다. 차라리 우리말을 찾을 것은 다시 찾고, 갈고 닦으면서, 바로잡는 데에 정성을 쏟는 것이 文化를 자랑하는 길일 것이다. 文筆家들은 문필가들대로 곱고 아름다운 낱말을 창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行政當局에서는 외국인 상대의 業體가 아닌 한 무의미하게 외국어식 空間이나 상표를 붙이지 않도록 지도와 단속을 해야 하리라고 본다. 그렇게 하여 진실로 문화민족다운 면모가 如實히 드러나게 해야 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중요한 사명중의 하나라고 굳게 믿는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나는 외국어를 배척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배척은 커녕 될 수 있는대로 외국어를 잘 배워서 정당하게 써야 할 경우에는 유창하게 쓰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바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또한 우리 국어를 지키고 文化를 발전시키는 방도도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 속초합동연탄공장

대표 : 권 병 태

속초시 청학동 482-55 ☎ 2-5092~4

# 穢 을 바라보며



李相國 / 양주농협근무

동학말 보천교군 할아버진  
술밭으로 대숲으로 바람되어 다니시고  
할머니는 별빛만 달빛만 바라 보셨습니다.

큰 아버님 구름에 쉬어 먼 북간도에 가시고  
징용 나간 숙부님 제가 되어 술밭으로 오셔도  
할머닌 빨래만 하셨습니다.

무명을 바라듯  
할머니 사랑은 회고 회어서  
강물에 빨래만 하셨습니다.

소지 사무듯  
소지를 사무듯  
푸른 기와집 난리통에 연기로 올리고  
울안팎 하늘 땅만 지키시다가  
먼 산 그림자 지고 날 저물면 머리만 곱게 빗으시다가  
할머닌 오동나무장의 웅이 무늬 되셨습니다.

- '76년 「心像」으로 등단
- 「갈매」 「新感覺」同人

□ 초대시

4月



김 영 준 / 속초상고교사

집쥐 한 마리 끌고  
바람이 먼저 와닿는다.

새 한 마리 어둠 저편에  
청량하게 쓰러지고 있다.

그리하여 山이여

다시 일어서면  
거절보다 깨끗한 하늘 하늘의  
먼 호각소리 들린다.

- 1956년 속초 태생
- 속초고등학교 졸업
- 공주사대 국어과 졸업
- '84년 心像 신인상 수상

□ 초대시

## 파도소리



金 春 萬 / 교동국교교사

오늘은  
파도 소리 불렀네.  
가슴 축축해지고  
따슨 손길 그리워

기이한 숨결과  
꿈틀거리던 아픔 이후  
씻겨진 내 귀로  
아무 것도 몰아올 수 없어

일렁거리는 기운으로  
흐린 창을 깨우고  
소리없이 사라져가는  
그대 몸짓을  
난 눈으로만 담고 있었네.

- 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졸업
- 관동대학 행정학과 졸업
- '79 방통문화상 시부 당선
- 설악문우회원

## 恨... 그후 30년

주 광 하

하선을 했지만 老父의 주름진 얼굴과  
상면이 무서워 故鄉行 列車 타기가 싫다.  
작년 설날 제복을 걸친 青年에게  
목메인 핏물로 統一을 말씀하시던  
백발의 할아버지가 올 동삼 열어 죽은 시체로  
바닷가에서 동개에 의해 목격됐다.  
無限의 能力과 화려한 前職을 팽개치고  
한 뺨이라도 더 복상하였다. 접점이  
녹슬어 버린 孝心, 戀心, 愛心은  
고기밥이 되고 말다.  
收復塔의 母子像은 이제 외롭다.  
국민학교 사년생인 三代는 반공시간에  
빨강색 크레용으로 호랑이 허리를 동강내고  
그것이 한반도란다. 동그라미.  
해안초소를 지키는 방위병은 戰爭의 意味도 모르고  
밤마다 억울하다는 思念에 젖어  
손가락 장난질에 太陽이 쏘는다.  
밀물에 끌려왔다가 썰물에 말라죽은  
無名의 海草처럼 참회할 겨를없이  
사라져 버릴 世代  
老父와 옛친구의 생애는 낭비하고 말다.  
“죽는 날까지  
눈감는 날 까지……”  
절규는 철조망에 찢긴 꼬라지로 피를 흘린다.

- 해양대화 줄
- 현재 외항선 승선중
- 속초를 끔찍히 아끼는 사람.
- 속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가슴을 가진 사람들  
모여 사는 마을이라고 믿는 사람.

□ 독자투고

## 고 향



高榮和 / 영동철물

고향에서 살리.  
인정이 넘치어서  
정이 들어 그리운 고향.

포근한 어머니의 가슴이 있어  
진종일 행복에 잠길 수 있는 곳.  
신비를 간직한 전설이 있고  
늘상 새롭고 아름다운 곳.  
행복해서 투정하며  
잔뼈가 자라던 곳.

함박꽃 피면  
가랑잎 따 모자 만들고  
꽃사이 누비며 뛰며  
대장놀이 즐겁기만 하던  
어린 시절 그리워.

참외를 따 든 하동이  
풍덩풍덩 냇가에 뛰어 들고  
멀리 매미소리 들린다.  
가을 골짜기 고운 단풍  
계곡물에 흘러가고  
겨울 산딸기 구했다는  
할머니의 효자 이야기.

눈 감으면 보는 옛동네.  
언제든 고향에서 살리.  
정이 넘치는 이 마을에.

● 고등부 詩 장원

# 불꽃놀이

홍

김 여 옥 / 속초여고 2

## I

꽃을 보아라.  
꽃이 부서진다.

머언 테두리를 들고 온  
피곤한 새가 숨어버린  
나뭇가지 위

날기를 잃어버린,  
조각난 불멸이  
한 거품 한 거품  
속 살을 보이고  
습관된 조바심은  
어둠을 열었다 도로 닫는다.



## II

거듭되는 散花

스스로 돌아가는 운명에게  
영겁을 향하여  
불멸을 향하여  
깊이 모르는 밤하늘에게  
파문을 일으켜 볼까……

발굽부터 정수리까지  
이어지는  
짧은 아우성은  
하늘과 땅 사이 가득 차 있는  
어둠의 주머니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  
스스로 찢어진다.

가슴 저쪽 구석에서 솟아나는  
포효는  
가슴을  
비우는 듯 한데.

● 중등부 詩 장원

# 불꽃놀이

문 상 혜 / 속초여중2

긴 꼬리 불빛이  
어둠을 사르며 춤춘다.

칠흙같은 어둠을  
밝혀주며 오르던 불빛은  
꽃되어 흩어지고,  
검은 비단에 오색 가루 뿌린 듯  
밤하늘을 수놓는다.

긴 꼬리, 꼬리마다 매달았던  
꿈과 욕망은 저 넓은 창공 속에  
사라지고,  
네가 터질 때마다 지르는 환호성은  
우리 귀에 메아리친다.

너의 힘찬 부서짐은, 모든 너의  
답답하고 생활에 찌든 마음을  
씻어준다.

잠깐 피었다 지는 너는,  
오르기 위한 안간힘과  
지나친 과욕으로 결국 터져 버리는  
우리의 삶과도 같다.  
너는 결국, 모든 이에게 내일을 바라보는  
희망만을 남겨준다.

● 고등부 詩 장원

## 흔

임 석 화 / 속초삼고 3

항상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너,  
난, 너의 손을 잡으련다.

바다같은 시원한 멧은 없어도  
어머님의 따스한 손길을 간직한 너,  
난, 너에게 고개를 숙이련다.

웃음, 슬픔, 말을 잃고  
어둠을 벗삼아  
모진 세파에 견디며  
언제나 변함없이 순박한 너,  
난 일어서련다.

푸근한 품에 안기면  
부드러운 눈길로 께욱 감싸고  
따신 햇볕 비쳐  
꿈을 심어 주는 너,  
난, 너의 냄새를 좋아하련다.

따스한 손길, 부드러운 눈길, 그리고,  
푸근한 품 속, 바보처럼 순박한 너,  
난, 너를 품으련다.

네 맘보다 더 깊은 이 맘에…….

● 中等부 詩 장원

# 새

이 경 희 / 속초여중 2

문득

오래 전에 내게서 멀어진  
새가 그리워진다.

새는

나에게 있어  
망각되지 않는  
아니  
망각될 수 없는 그런 존재일까?

그리워도 볼 수 없다.  
말하고 싶어도 새는  
이미 내 곁에서 멀어져 있다.

왜 그랬을까?

왜 새는 저 깊은  
고독의 해안에서  
살고 싶어 했을까?

언제나 새는  
침묵을 지켰다.

처음 보았을 적에도  
새는 조용했고  
멀어지는 그 순간순간 까지도  
새는 우울했다.

그러나

새는  
내 영혼의 불이 꺼지는 그 순간 까지  
내 곁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존재라 확신한다.

새는…….



● 중등부 산문장원

## 설악제를 맞으면서

정 소 영 / 설악여중 3

하늘이 주신 선물, 설악! 이를 경축하기 위해 10월1일 우터 우리 지방에서 설악제를 열었다. 올해로 벌써 19회째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부터이다. 원 취지는 설악을 소개하므로써, 등산인의 저변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설악은 천혜를 입은 자연의 보고이다.

옛부터 손꼽히는 명산으로서 즐기찬 태백산맥의 등을 타고 우뚝 솟은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산이다. 과연 설악은 자랑할 만한 명소들이 많은 곳이다.

푸른 동해를 품에 포근히 안고 웅장히 솟은 산은 그 옛날 어느 용맹스러운 무장의 모습과 또 다른 일면 아름다운 여인상을 연상하게 하곤 한다. 비룡폭포 등 여러 폭포수와, 울산바위 등 하늘을 우러러 솟아있는 기암절벽과, 신흥사 등 고찰이 들어서있는 과연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한것 이룬 참으로 경탄할만한 곳이다.

첫날부터 설악제를 축하하기 위한 많은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었고 또 그 모습을 지켜보기 위한 많은 관광객이 설악산에 몰려 잠시 교통혼잡도 있었다. 설악제니 다른 곳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여러 행사가 개최된다. 설악산에 산다는 산신에게 평안을 비

는 산신제와 또 동해바다에 제를 드리는 풍어제가 열렸다.

요즈음같은 문명의 이기 속에 토속적이며 향토적인 이같은 행사를 구경하기는 무척 힘들 것이다. 시청에서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는 망향제가 열렸다. 어머니와 아들이 손을 잡고는 멀리 북녘땅을 바라보는 애절한 모습을 담은 수북담앞에서 고향에 가고파도 이제는 갈수 없는 이국땅처럼 되어버린 그 북녘을 향해 그래도 언젠가는 꼭 가게되리라는 간절한 소망을 안고 많은 실향민들은 그들의 간절한 바램 - 평화 통일 - 을 그들의 갈망과 염원을 저 높이 뜬구름에 실려 북으로 북으로 날려 보냈으리. 그들의 바램 아니 우리 모두의 바램은 넉넉히 북녘땅에 전달되었으리라.

한편 공설운동장에서는 더불어 많은 시민의 날을 경축하기 위해 또 속초시민의 단합을 기하기 위한 속초시민 체육대회가 열렸다. 각 동에서 나온 많은 선수들이 동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싸웠고 또 이웃사람들의 열띤 응원의 함성은 푸른 창공을 뒤덮었다.

산악인의 날이었던 설악제가 이제는 시민 전체의 날로 바뀌었다. 이를 경축하기 위해 화려한 불꽃놀이가 있었고 또 이날을 빛

내기 위한 많은 문화행사도 열렸다. 아름다운 설악의 모습과 깨끗한 속초의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좋은 날이다. 각박하다고도 할 수 있는 사회 생활 속에서 잠시 내가 떠나 자연과 마주할 수 있는 즐거움을 맛보는 기회이다.

웅장한 대자연은 결코 남을 속이거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문명은 발달할수록 인심은 야박해진다고를 한다. 그러나 이번 설악제를 통해 우리만은 결코 그러하지 않으리라는 결의도 다지게 된다. 그 어느 것도 가지지 못할 장엄하고도 숭고화 대자연 설악앞에 내 자신이 너무도 초라함을 느낀다.

아무 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는 또 조그만 이익 앞에 다투는 그런 비굴한 인간이 되지 말자.

대자연 설악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또 깨닫게 한다. 앞으로 설악제는 우리 모두의 흥겨운 날로서 다방면의 많은 행사가 전개될 것이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속초를 찾아 그 스스로 행사에 적극 참여하리라. 매년 설악제를 맞으면서 느끼는 여러 감흥은 나를 좀 더 성숙한 인간으로 이르는 길에 한걸음 더 들여 놓고 있다.

● 고등부 산문장원

# 바 다

황 순 옥 / 양양여고 2

갑자기 쏟아진 장대비가 요란하게 땅을 두드리더니 금새 흙물이 마당 가득히 쌓였다. 책상에 턱을 피고 앉아 빗방울을 세고 있던 나의 시선이 마당쪽으로 조금씩 떨어졌을 때는 세 세상을 만난듯이 활개치던 빗방울이 그 생기를 잃어갔다. 마당에 눈동자를 쫓고 있던 나는 아주 작은 많은 물길들을 보았다. 처마 밑에 구멍이 하나 뚫 패이더니 그 길로 또 물길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진 물길과 물길이 모여 마당을 벗어날 때는 강을 이루었고 그 강은 작은 바다를 만들어 갔다.

제법 바다처럼 보일 즈음의 물이 모여 들었을 때, 하늘은 어느새 잿빛 옷을 벗어 던지고 시원한 여름옷을 찾아 나섰다. 나의 두 눈은 잠시 하늘을 스쳐 보긴 했지만 그곳보다는, 지난 겨울 친구은 함께 찾았던 「수산」이라는 진짜 바다를 찾아헤매고 있었다.

겨울날씨답지 않게 햇살이 포근히 대지 위를 녹히며 계절을 찬송하고 있었다. 모처럼 양지별에 나와 책을 읽고 있던 나는, 나를 향한 하나의 눈길에 고개를 들었다. 뜻밖에도 은경이었다. 같은 반이긴 하지만 별로 친하지 않은, 몸이 나 두배쯤 되는 말이

없는 애였다. 내가 이 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이름 석 자, 얼굴 생김, 그리고 환경 - 아버지가 오래 전부터 자리에 누워 계시기 때문에 엄마와 함께 집안 일을 꾸려 나간다 - 조금 뿐이다.

“웬 일이니. 우리 집엘 다오고 은경이가 모처럼 외출을 하니 까 날씨까지도 알아 차리네.” 표정을 잃어버린 아인 말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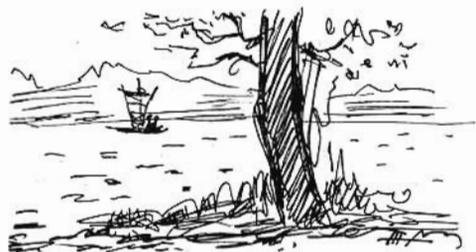
“순옥아, 부탁이 있는데 그냥 나와 함께 걸어주지 않겠니?”

겨울은 역시 겨울이었다. 두손은 얼굴을 매만졌고, 입김은 손을 찾아 질주하였다. 은경이와 내가 자리를 잡고 앉은 곳은 바다가 내다보는 제방쪽이었다. 난 작은 두 손으로 은경이의 왕방울만한 두 눈을 닦아 주었다.

“난 정말 몰랐어. 하지만 앞으로는 모르지 않을거야. 늘 옆에서 지켜보고 채찍질해 줄게.” 은경이는 말없는 대답을 내가

숨 속에 심으며 두 눈을 바다 위에 던졌다. 힘겨운 생활 속에서도 웃음이 떠날 줄 모르던 은경이네 작은 전세방이 얼마전 눈물의 아픈 씨앗을 뿌리며 힘없이 무너져 버렸다. 불치의 병을 앓고 계시던 아버지가 그 자취를 감추신 것이다. 아버지라고 불러 줄 수 있는 분이 계신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은경이는 아버지를 간호했고, 집안 일을 돌보았다. 그리고 늘 기도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렸다. 아이의 가슴 속에 커다란 구멍을 남긴 채 -

몸부림은 치기 시작했다.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 작은 전세방을 꾸며 놓을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생겼고, 배를 채울 수 있는 먹을 것이 풍부해졌다. 하지만 그 무엇도 은경이와 엄마의 마음을 채워줄 수는 없었다.



●중등부 산문장원

어린 동생이 웃고 떠들때면 아인 작고 피로운 가면을 만들어 써야 했던 것이다. 싫었다. 땀과 때가 찌든 아버지의 옷을 빨고 싶었고 아버지의 불에 뽀뽀를 하는 막내 동이를 갖고 싶었다. 작은 방 안을 맴돌며 빠져 나갈 줄 모르던 진짜 웃음을 찾고 싶었다.

“은경아.”

지친 침묵을 깨뜨리고 아이를 불렀다. 말이 없다. 그러더니 갑자기 두 팔을 크게 벌려 바다를 가슴 속에 안고는 두 눈에 강한 빛을 담았다.

“은경아, 우리 한 번 힘차게 저 바다 위를 뛰어 보자. 아주 힘차게 열심히 뛰어야만 빠지지 않을 거야.”

“좋아, 뛰어갈 수 있어. 친구와 함께라면 더 열심히. 나 찾았어. 저 바다가 내게 이번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대답을 주었어. 난 이 공간 속에 나와 엄마를 집어 넣겠어. 엄마에게 있어 아버지는 지금부터 나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삼켜 버리고 소화시킨 나 자신을 가질거야. 이 망망대해 앞에서 난 오늘 약속을 했다.”

푸른 하늘이 바다 밑에 가라앉아 그 빛을 더할까 무렵 난 은경이의 크고 억센 손에 악수를 청했다.

정말 유난히도 넓고 푸른 바다였다. 이 세상 모든 아픔, 슬픔, 괴로움을 다 용해시켜도 그 푸른 빛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동공을 하늘에 고정시켰을 때는 눈이 시리도록 강한 태양이 지구 위를 향해 축복의 손을 뻗었다.

# 가을일기

원 영 주 / 속초여중 2

“따르릉! 따르릉!”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위에 낭랑한 전화벨 소리가 수를 놓아버렸다.

“어보세요?”

이런 맑은 가을 날 누군가가 날 부르는 소리에 어느덧 나의 마음 속에서도 산들산들 바람이 불며 코스모스 한 잎이 활짝 피었다.

“누구?”

“나 진이야, 진.”

언제 들어봐도 맑고 탐스러운 멜로디가 나의 귀에 진이라는 웃음을 짓게 만들었다.

“오늘 우리집에 오지 않겠니? 엄마가 서울을 가셨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의 귀에서는 푸른 바람소리가 들려왔다. 왠지 모르게 외롭고 허전했던 마음이 금새 저 설악의 웅장한 골짜기로 바뀌어져 있었다.

진이네 집으로 가는 길에는 코스모스가 나를 반겨 주었다. 긴 모가지를 내밀고서는 웃는 모습에 누런 이가 드러나 보였다. 정다운 나의 가을 연인들! 코스모스가 싱글벙글 웃으며 저 곳을 가리킨다. 파란 지붕에 빨간 단장의 진이의 집.

“진아, 진아!”

왠지 나의 목소리가 저 창공을 날아 갈듯이 크게 들렸다.

“들어와!”

노랑색 원피스를 입은 진이의 모습은 마치 저 설악의 물든 노란 은행나무잎 같이 느껴졌다. 귀여운 친구! 나의 친구!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코스모스인 나의 연인들도 긴 모가지를 날려 보내지 않으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나를 부르며 날개를 단 코스모스들은 자유로이 자유로이 드높은 창공 속으로 사라져 버리곤 했다.

“주야!”

“응?”

“난 말야, 심심하거나 외로울 때면 내 마음의 고향인 바다에 간단다.”

“왜?”

“바다는 언제나 나의 마음을 감싸주는 큰 기둥이거든.”

그 이야기를 하는 진이의 눈에 맺힐 의미없는 이슬에는 나의 모습이 아롱져 있었다. 그 맑던 하늘에는 보슬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다. 그 빗방울이 진이의, 진이의 눈물 같았다.

분홍색 우산을 지붕삼아 진이와 난 코스모스가 만들어 준 비단길을 걸어갔다. 참으로 폭신했다. 비오는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나의 마음은 어딘가 텅 비어있다고 생각이 되었다.

어느새, 검은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로 가는 문 앞에 우리 둘은 서 있었다. 진이와 난 벤치위에 앉았다. 비가 와서인지 축축했다.

그토록 푸른 바다가 어느새 검은 악마의 눈길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갈매기 아줌마도, 저 끝없는 수평선도 어디론지 사라져 버리고, 하얀 안개가 저 넓은 바다와 새하얀 등대를 감싸 주고 있었다. 나의 마음까지도.

진이의 그 작은 입술이 열렸다. "오늘이 무슨 날인줄 알아?" "글쎄."

"작년에 우리 아빠는 저 검은 파도가 삼켜 버렸어. 그날도 아빠는 다시 돌아 오시지 않았어. 바다는 내 마음의 기둥이지만 한편으로는 바다가 싫어." 저 하얀 안개가 나와 진이를 남겨둔 채 멀리멀리 설악산을 사라지게 했다. 바보같이, 진이의 아픔도 모른 채 있었다니……. 가슴속 깊이 이슬이 맺혔다. 아주 굵고 슬픈 이슬이…….

분홍색 지붕이 나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검고 차가운 모래밭을 달려가고 있는 진이는 슬픔을 잊으려고 애쓰는 모습 같았다. 나도 분홍색 지붕을 떠나 멀리 날려 보냈다.

"진이야, 진이야!" 뛰어가는 나의 뒤로 검은 모래 발자국이 쫓아왔다. 슬픔의 이슬이 또 다시 내렸다. 하늘에서도

내 눈에서도, 마음에서도, 진이의 가슴 속에서도…….

그 비는 나의 발자국을 지워버리기도 했다. 나의…….

지금은 이 세상에서 떠나버리고 없는 바보같은 진이!

그 맑은 눈동자가 좋았는데, 그 맑은 눈동자가 좋았는데……. 가을이 되면 생각나는 진이! 저 코스모스 밑에 잠든 진이의 모습이 보인다. 진이가 가을 바다를 보고 내게 미소 짓는다.

아침햇살에 붉은 단풍잎 같이 반짝이는 저 바다를, 어여쁘게 웃고 있는 이 코스모스 잎을 일기장에 집어 넣어야겠다. 진이의 웃음과 함께.

가을의 일기장을 접어 두어야지. 진이와 나의 추억 메모장으로…….

"진이야!"

● 고등부 산문 장원

## 가을 일기

고 석 / 속초여고 2

잠결에도 그것이 밤 떨어지는 소리임을 알았다. 시계는 한가한 휴일 아침의 기상시간을 알리고 있었다. 일어나 거울을 보자 갑자기 선생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주번이라 선생님 책상 위에 놓을 꽃을 꺾었다. 화단에 피어 있던 보라빛 들국화였다. 학교에

가서 화병에 막 꽃을 때 선생님께서 들어 오시며 놀람의 미소를 지으셨다.

"대단히 예쁘구나. 꽃가게에서도 볼 수 없는 들국화다. 가을 냄새가 물씬 풍기는 걸. 들국화도 이렇게 청순히 계절, 어제는 그만 물어 버리고 말았

어. 얼마전만 해도 파랑던 감이 어제 보니 노랗게 익어가고 있지 않겠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월은 또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니 눈물이 막 나오더라. 후훗. 나도 늙었나 봐. 꽃이 정말 예쁘다. 고마와."

사과빛 불과 맑은 눈을 가진 전 날 선생님의 모습은 남들이 흔히 말하는 '올드미스'가 아니었다. 소설이나 그림 속의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이었다.

나는 두 손으로 불을 감싸고 거울 속의 자신을 쳐다 보았다. 아무래도 불에 나있는 여드름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러다 그냥 웃으며 방을 나왔다. 마당에 나오니 어머니께서 벌써 마당의 나열을 쓸고 명석 위에 빨간 고추와 보드라운 흰 감자가루를 가득 넣어 놓으신 것이 보였다. 명석 옆에는 새벽에 따다 놓으셨는지 누우런 호박이 파란 아침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뒷뜰에서 장대 휘두르는 소리가 들렸다. 신이 넘으신 어머니가 두 팔을 펴서 겨우 겨ான을 만 한 오래된 밤나무에 올라가 밤을 따고 계셨다. 장대를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알밤과 밤송이가 후두둑 떨어졌다.

“뭘하고 셧니? 바구니들고 어서 주워라. 머리카락에 맞지 않도록, 조심하고.”

며칠 전부터 식사 때마다 뒷뜰 밤나무를 베어야겠다고 버르시더니 오늘 아침에 시작하셨나 보다.

동네 꼬마녀석들이 울 밖에서 돌을 던져 따다가, 장대를 이용해서 따다가, 나중엔 빈 집임을 알고는 울을 넘어 들어와 밤을 따기 시작했다. 그것을 보자, 동네에서 ‘깍쟁이 아줌마’라고 소

문난 어머니는 울까지 들어오는 꼬마들을 보며 극성맞다고 혀를 끌끌 찼었다. 그러다 추석 때 외지에서 직장다니던 오빠가 오자, 밤을 따라고 일렀지만 오빠는 내년쯤에는 자가용을 사고, 후년에는 밤나무, 감나무, 배나무를 모두 베어 버리고 뜰을 넓혀 새 집을 짓겠다는 말들만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꼬마들에게 소리 높혀 하는 말이,

“야, 조금 따다 가. 안가면 혼내줄테야.”

였다. 그리고는 한번도 들에 나가 녀석들을 쫓지 않았다. 오빠 자신도 어렸을 적에 소꿉 먹인다고 끌고 나가 풀밭에 매어 두고는 남의 집 밤서리해서 한 움큼씩 내게 준 적이 있으니 꼬마들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오빠는 다시 추석을 지내고 집을 떠나 가버렸고, 오늘 어머니는 ‘제 것도 못찾아 먹는다’며 서운하신지 드디어 아침부터 직접 밤나무에 올라가 털기 시작하셨다.

손 끝으로 밤송이를 집어 바구니에 넣었다. 어느 것은 입을 딱

벌리고 윤기 흐르는 굵직한 밤알을 토해 내고, 어떤 것은 아직 덜 영글었는지 온 몸의 녹색 가시만을 주뻗하게 힘주어 나의 손끝을 경계하였다. 입 벌린 송이는 두 발로 비비다 밤이 나올 것 같으면 들고 있는 꼬챙이로 건드려 빼었다.

그러다 조심하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들리면 바구니는 남겨두고 뛰어서 처마 밑에 웅크리고앉아 온통 뻗쳐있는 밤나무위에 작은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본다.

‘밤이면 허리가 쑤신다, 발이 저린다는 분이 어디서 저런 힘이 솟을까?’ 실로 푸른 하늘 아래 가득히 뻗쳐있는 나뭇가지 사이에 긴 장대를 흔드시는 어머니는 아주 작았다. 하지만 오빠도, 나도, 동네 분들도 어머니는 결코 작지 않은 거인임을 안다.

장대를 나뭇가지에 걸고 땀을 닦으신다. 나는 다시 바구니째로 달려가 밤을 주워 담는다. 두 손바닥을 오므려 담은 정도의 커다란 송이가 떨어져 있다. 귀하게 치마로 싸서 따로 갖다 놓았다.

내일 학교에 가져가 올 가을에는 꼭 시집가시기를 바라며 선생님께 드려야지, 밤을 보고 또 세월이 지났음이 아쉬워 우시면 어쩌거나 걱정이 된다. ‘제발 우시지 마세요. 성실하신 선생님의 계절은 풍성합니다. 이런 계절 앞에서는 우는 것이 아니래요.

제가 또 이렇게 가을 선물을 드리잖아요’ 하며 웃어 드려야겠다.

바구니는 가득 차고 어머니는 다시 장대를 휘둘러 밤송이를 털구신다.

# '85 東草文化院 主要事業 實績

□ 「東草文化」創刊 記念 行事

- 일시 : 1985년 2월 18일
- 장소 : 향군회관 2층
- 내용 : 鄉土誌 「東草文化」창간을 기념하는 自祝宴을 가진. 발간에 공이 큰 朴益勳 교장의 2인에게 감사패 전달.

□ 「鄉土文化의 方向」강연회

- 일시 : 1985년 2월 18일
- 장소 : 향군회관 2층
- 내용 : 文學博士 韓相甲 東宇專門大學長의 퇴임에 즈음한 기념 교별 강연회를 개최.

□ 제 8 회 연말리기 대회

- 일시 : 1985년 3월 3일
- 장소 : 영랑동 성황당 뒷산
- 내용 : 전통민속문화의 계승보존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연례행사로 개최.

(수상자 명단)

부 문	등위	성 명	주 소
높 이	1 등	최 인 석	동명동 5/5
	2 등	김 수 석	영랑동 8/2
	3 등	조 춘 식	영랑동 8/2
날 리 기	1 등	이 경 현	속초중 1년
	2 등	조 등 길	영랑국교 4년
	3 등	권 성 중	설악중 1년
제 작	1 등	조 수 현	영랑국교 5년
	2 등	권 영 순	동명동 10/6
	3 등	김 호 정	청학동 5/6

□ 대포국민학교 어린이농악대 농악기 전수

- 일시 : 1985년 4월 19일
- 장소 : 대포국민학교
- 내용 : 전통문화보존을 위한 어린이 농악대 창설 지원. 장구·소고·징·상모·뽕파리·북·호적 등 농악기 일습 전달.

□ 敬老孝親思想宣揚 雄辯大會

- 일시 : 1985년 5월 22일

• 장소 : 일북문화관

- 내용 : 경로효친을 주제로 한 학생 웅변대회를 개최.

(수상자 명단)

部別	賞區分	姓 名	學 校	演 題
初等	최우수	이영미	청호국교4	사랑의 길
	우 수	윤지영	속초국교4	옛것을배우자
	장 려	이아미	증앙국교3	늦어버린후회
	최우수	김미경	속초여중2	효도의 참실
中等	우 수	김지영	설악여중1	노인을 공경하자
	장 려	이동진	속초중 2	참된효도의길
高等	우 수	한선희	속초상고1	단군의 자손

□ 제 3 회 강원민속예술 경연대회

- 일시 : 1985년 6월 13~14일
- 장소 : 공설운동장
- 내용 : 전통문화계승과 향토문화발굴을 위한 민속예술경연대회를 속초로 유치 주관함.

□ 敬老思想 선양잔치 및 孝婦·孝子表彰式

- 일시 : 1985년 6월 27일
- 장소 : 학생체육관
- 내용 : 美風良俗의 미덕을 살리고 敬老孝親思想을 선양하고자 효부·효자 15명을 발굴 표창하고, 노인위안 잔치를 베풀.

(표창자 명단)

성 명	학 교	성 명	학 교
이 연 회	영랑국교 5	박 선 회	은정국교 6
박 찬 원	증앙 " 6	김 상 경	속 초 중 3
김 현 석	속초 " 6	고 종 연	설 악 중 1
이 진 호	교동 " 6	정 정 희	설악여중 1
박 경 원	청호 " 6	이 복 석	속초여고 1
김 상 현	대포 " 6	전 판 일	속초상고 2
천 경 애	대포 " 6	지 우 희	도문동 4/2
전 수 경	설악 " 6		

□ 청소년대상 문화강좌

- 일시 : 1985년 7월 23~28일
- 장소 : 서울에식장
- 내용 :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학·음악·미술 무용·연극·전통문화 등 문화 예술 전반에 걸친 강좌를 개설, 여름 방학의 여가를 이용하여 실시함.

□ 박공예 무료 강습회

- 일시 : 1985년 8월 28일~9월 28일
- 장소 : 東草文化院
- 내용 : 주부들의 취미개발과 정서함양을 위해 전통 박공예품 제작 실기 지도를 주 2회씩 실시
- 강사 : 이세련 (은혜공예사)
- 참가주부 : 50人

□ 주부교실

- 일시 : 1985년 9월 9~14일
- 장소 : 속초문화원
- 내용 : 경로효친사상 선양을 위한 주부 교육 실시

□ 제20회 설악제 민속예술 경연대회

- 일시 : 1985년 10월 1일
- 장소 : 공설운동장
- 내용 : 향토민속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설악제 주종목으로 정착시킴. 관내 13개 全洞이 참가하여 市民和合의 결정적 계기가 됨.

• 심사결과

- 최우수상 대포동 성황제 풍어놀이
- 우수상 교동 만천 회달구질소리
- 청호동 풍어제
- 장려상 중앙동 논피호의 불꽃놀이
- 금호동 읍돌목 해전놀이
- 동명동 상어놀이

□ 壽石 및 박공예 전시회

- 일시 : 1985년 10월 1일~5일
- 장소 : 농협 2층 전시실
- 내용 : 향토축제시 소외되기 쉬운 주부, 노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취미 개발 및 정신수양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관내에선 처음으로 개최.
- 壽石 140점, 박공예품 100점 전시

□ 설악제 백일장

- 일시 : 1985년 10월 3
- 장소 : 속초여자중학교
- 내용 : 학생들의 정서함양 고취를 위한 문화 행사로 연례적 개최. 관내 16개교에서 200여 학생이 참여, "가을 일기" "흙" "새" 등의 제목으로 文才를 겨룸.

(입상자 명단)

구분	시 상	문 부
초	장 원	이 종 회 (속초국교 5)
	차 상	김 종 운 (은정국교 5)
	차 하	최 지 회 (영랑국교 5)
중	장 원	이 경 회 (속초여중 2)
	차 상	탁 원 정 (설악여중 2)
	차 하	장 혜 경 (설악여중 2)
고	장 원	임 석 화 (속초상고 3)
	차 상	고 경 순 (양 양 고 1)
	차 하	이 상 직 (속초상고 3)
구분	시 상	산 문 부
초	장 원	권 상 회 (속초국교 6)
	차 상	정 유 석 (은정국교 6)
	차 하	장 화 자 (청호국교 6)
중	장 원	원 영 주 (속초여중 2)
	차 상	이 혜 원 (설악여중 2)
	차 하	김 수 정 (속초여중 1)
고	장 원	고 석 (속초여고 2)
	차 상	강 순 녀 (속초상고 3)
	차 하	김 철 수 (양 양 고 2)

□ 내고장 文化論壇

- 일시 : 1985년 11월 8일
- 장소 : 시청회의실
- 내용 : 우리 고장 文化의 실상을 소개하고, 정치·경제·사회 제분 계서의 문화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 각 기관장 및 교직원, 문화 예술인, 평통자문위원, 지방유지동 200여 人士가 참여 성황을 이룸.

演士는 李相穆 동우전문대학장, 趙慶東 동우전문대학 경영학과장, 盧在春 속초시교육장 등 3人.

□ 경로효친사상선양 학생글짓기대회

- 일시 : 1985년 7월 ~ 12월
- 내용 : 경로효친사상 선양 실천수기를 공모, 시상함.

□ 향토 사료 발굴

- 일시 : 1985년 12월

- 내용 : 영랑호의 유적과 역사적 유래를 발굴 소책자로 제작, 배포함.

□ 향토지 「東草文化」발간

- 일시 : 1985년 12월
- 내용 : 전년도에 이어 東草文化 제 2호를 년간으로 발행.

## 文化院에 協替해주신분들 (1985)

梁 鍾 釋	東草市長	朴 正 一	反共聯盟東草市支部長
盧 在 春	東草市教育長	尹 基 元	東邦遠洋開發公司會長
李 培 殷	東草女子高等學校長	金 亨 東	雪嶽觀光開發(株)社長
李 澤 圭	東草中學校長	咸 泳 泰	現代슈퍼社長
金 雲 天	雪嶽女子中學校長	金 煉 鐸	泰日商會社長
申 元 均	東草女子中學校長	全 商 熙	大建社長
金 鎮 邦	雪嶽中學校長	李 建 錫	地方行政同友會長
金 錫 年	中央國民學校長	李 虎 舜	前商業高等學校長
裴 永 培	東草電信電話局長	張 憲 榮	東草市體育會副會長
柳 然 和	東草郵遞局長	尹 重 國	마을金庫聯合會長
崔 在 吉	東草市繁榮會長	朴 相 善	金信堂 社長
車 鎮 煥	平統協議會長	崔 景 순	황금상회 社長
金 容 龜	選舉管理委員會事務課長	金 暻 자	정화술불갈비 대표



김 광 수

### 표지설명

“청초호반에서 본 雪嶽”은 내가 東草에 온 81년 7월에 청초호를 거닐다가 문득 손을 댄 作品이다. 호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어선과 설악의 절경, 흐르는 구름, 물에 어린 그림자 등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詩人이라면 한 수 읊으려만 화가인 나로서는 붓을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욕심이 지나쳐 60號 大作을 한 것이 잘못일까? 마음에 차지 않아 그려저럭 매만지다 보니 1년이 걸렸다. 마침 10월 江原道展에 出品하였더니 입선에 그쳤다. 나로서는 꽤 고생한 作品이지만 駄作中の 하나다.

## 編 輯 後 記

- 束草에도 文化定着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음에 새삼 놀랐다.
- 「束草文化」가 束草人の 진정한 호흡과 맥락을 담기 위해 존재한다는 본래의 사명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 奇稿者를 비롯해 第二號 편찬에 협조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

### 편집위원

주간 尹 弘 烈  
위원 池 一 權  
      金 盛 文  
      崔 龍 文  
      李 建 錫  
간사 최 재 도  
사진 崔 春 永

### 束草文化 第二號 -비매품-

1985년 12월 20일 인쇄  
1985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金 鍾 祿  
편집 編 輯 委 員 會  
인쇄 江 原 日 報 社

□ 本誌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 東草市水産業協同組合



組合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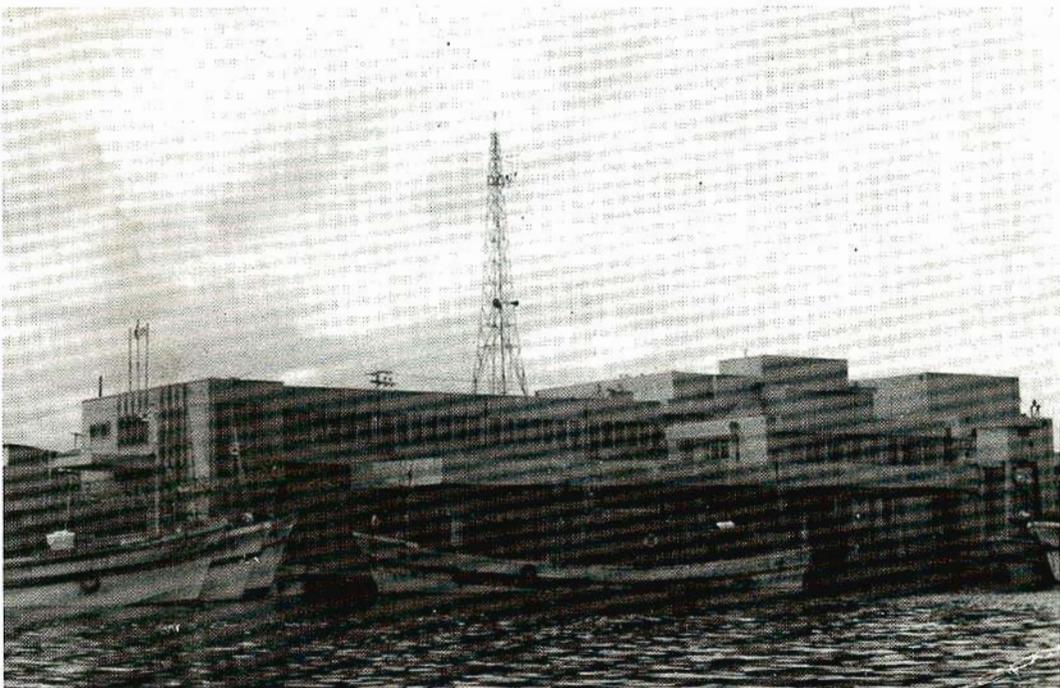
組合長	申	永	澈
專務	黃	石	東
常務	朴	贊	鎬



專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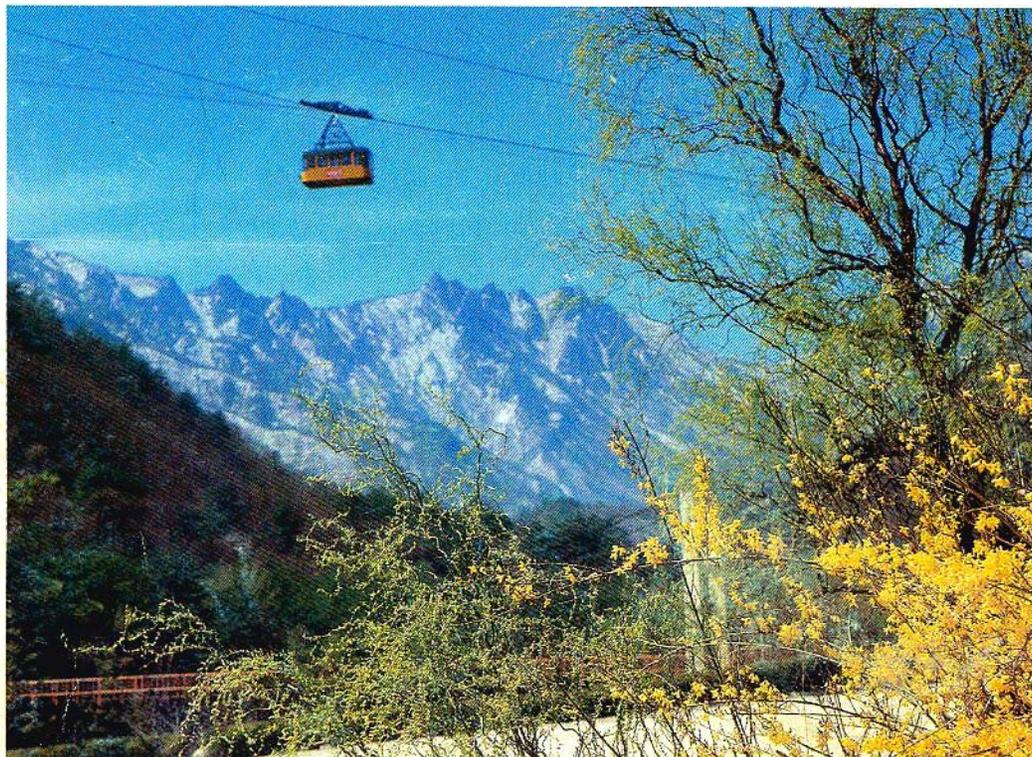
총 부 과 장	崔	煬	圭	판매과장	金	永	春
어로지도과장	金	喜	平	저축과장	崔	根	在
새마을지도과장	金	啓	元	금융과장	高	世	準
사 업 과 장	金	炳	陵	공제과장	金	義	容

## ◇ 어민권익보호 · 복지어촌건설 ◇



속초시 중앙동 482-17 ☎ ② 3122

# 雪嶽山 케이블카



會 長 韓 丙 起  
代表理事 金 亨 東  
社 長



## 雪嶽觀光(株) 케이블카

商號：雪嶽觀光(株) 케이블카

本社：江原道 束草市 雪嶽洞 170番地

電話：7-7362, 7365

支社：서울시 江南區 瑞草洞 12-5 보성빌딩 203號

電話：554-1820